

한국사연구회

제343차 월례발표회

자 료 집

일시 : 2022년 9월 17일(토) 14:00~17:10

장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 및
ZOOM(대면·비대면 동시진행)

<https://korea-ac-kr.zoom.us/j/2532664989?pwd=aGdWNFBvR3M0aHdqUGE5clgwWXVldz09>

식 순

사회: 김보광(가천대)

제1발표 14:00~15:00

신라의 연령등급제 운영방식과 그 의미

- 田制·稅制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발표 : 윤준혁(고려대)

토론 : 윤선태(동국대)

제2발표 15:00~16:00

유득공의 화이관과 역사 서술 - 사군지를 중심으로 -

발표 : 장병진(연세대)

토론 : 김경화(인하대)

휴식 16:00~16:10

제3발표 16:10~17:10

『삼국사기』 후고구려·궁예 관련 ‘정보’의 수용 방식 문제

- 궁예의 가계 및 출생 관련 정보를 매개로 -

발표 : 홍창우(전남대)

토론 : 박수정(동서대)

목 차

신라의 연령등급제 운영방식과 그 의미

- 田制·稅制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 발표문 : 윤준혁(고려대) 1
- 토론문 : 윤선태(동국대) 33

유득공의 화이관과 역사 서술 -사군지를 중심으로 -

- 발표문 : 장병진(연세대) 35
- 토론문 : 김경화(인하대) 46

『삼국사기』 후고구려·궁예 관련 ‘정보’의 수용 방식 문제

- 궁예의 가계 및 출생 관련 정보를 매개로 -

- 발표문 : 홍창우(전남대) 49
- 토론문 : 박수정(동서대) 74

신라의 연령등급제 운영방식과 그 의미

- 田制·稅制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윤준혁(고려대)

1. 머리말
2. 연령등급제의 성립 시기와 연원
3. 연령등급제의 개편과 丁田制
4. 「촌락문서」에 보이는 追·助·除의 의미와 성격
5. 맺음말

1. 머리말

연령등급제는 국가가 戶口를 연령대별로 나눈 명칭을 課役¹⁾과 결합시킨 제도이다.²⁾ 課役의 기준이 신장에서 연령으로 전환되는 것은 호적제도의 성숙 및 그를 기반으로 하는 고대 국가의 출현과 관련된다.³⁾ 즉 연령등급제는 고대 국가의 출현과 함께 시행된 것이다. 이후 수취의 주된 기반이 人身에서 土地로 전환되면서 연령등급제는 사라진다. 중국사에서는 建中元年(780)에 시행된 兩稅法이 그 계기로 지적되며,⁴⁾ 한국사의 경우 고려 시대부터 호적에서 연령등급 없이 나이만 표기된다.⁵⁾ 한국사의 전개에서 古代의 특징으로 人身的 수취가 지적되는 만큼,⁶⁾ 연령등급제는 한국의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윤준혁, 2022 「신라 연령등급제의 개편 배경과 운영방식」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1) 『令義解』 권3, 賦役令10에 의하면 課는 田租·調, 役은 歲役·雜徭 등이다. 단, 雜徭는 歲役과는 구분되므로 이 글에서는 課는 租·調, 役은 歲役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2) 凌文超, 2010, 「秦漢魏晉“丁中制”之衍生」, 『歷史研究』 2010-2, 28쪽. 중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丁中制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료에서 연령을 의미하는 丁中이라는 표현이 확인되므로 역사적 용어로 적절하겠지만, 연령등급 中이 보이지 않는 신라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연령등급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3) 宮宅潔, 2021, 「出生届—中國古代の戶籍制度」, 『ある地方官吏の生涯-木簡が語る中國古代人の日常生活-』, 臨川書店, 53~54쪽.

4) 尹善泰,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新羅 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9쪽.

5) 노명호, 1995, 「高麗時代 戶籍 記載樣式의 성립과 그 사회적 의미」, 『진단학보』 79, 32쪽.

6) 노태돈, 2014, 『한국고대사』, 경세원, 4쪽.

한국 고대국가의 연령등급제 중 가장 완전한 형태는 통일신라의 「신라촌락문서」(이하 「촌락문서」)⁷⁾에 보인다. 여기서는 村民들을 丁·丁女, 助子·助女子, 追子·追女子, 小子·小女子, 除公·除母, 老公·老母의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⁸⁾ 중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丁·小·老를 연령등급으로 사용하였고, 일본 養老令에도 丁·少·老가 확인되므로 「촌락문서」의 丁·小·老 역시 연령등급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신라에서만 보이는 追·助·除인데, 追·助는 丁보다 아래의 연령등급인 小와 함께 어미에 子·女子가 붙어 있다. 따라서 丁보다 아래의 연령등급으로 볼 수 있다. 除는 丁보다 위의 연령등급인 老와 함께 어미에 公·母가 붙어 있으므로 역시 丁 위의 연령등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라의 연령등급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각 연령등급의 연령대를 추정한 연구로, 丁의 연령 분석이 중심이 되었다. 신라의 成丁⁹⁾ 연령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의 요역 기사¹⁰⁾나 고려의 成丁 연령¹¹⁾에 따라 15~16세로 보는 견해¹²⁾와 唐의 成丁 연령¹³⁾ 등에 따라 20~21세로 보는 견해¹⁴⁾가 있다. 그런데 「촌락문서」 단계의 成丁 연령을 15~16세로 볼 경우, 小·追·助가 너무 좁은 간격으로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¹⁵⁾ 따

7) 「촌락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4장에서 다룰 것이며, 문서 속 4개의 촌은 순서대로 A촌, B촌, C촌, D촌으로 표기한다.

8) “此中古有人三年間中産并合人百卅五 以丁廿九【以奴一】 助子七【以奴一】 追子十二 小子十 三年間中産小子五 除公一 丁女卅二【以婢五】 助女子十一【以婢一】 追女子九 小女子八 三年間中産小女子八【以婢一】 除母二 老母一”(「촌락문서」 A촌). 나머지 3개 촌의 기재 순서도 이와 같다. 단 ‘三年間中産小’는 연령등급이 아니라 1~3세의 아이다(旗田巍, 1958·1959, 「新羅の村落 -正倉院にある新羅村落文書の研究-」, 『歴史學研究』 226·227 ; 1972,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435쪽).

9) 중국 정사에서는 丁의 연령이 되는 것을 進丁·成丁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成丁으로 통일하고, 老의 연령이 되는 것을 入老라고 할 것이다.

10)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1年 9月 ;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9年 8月 ; 『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41年 2月 등에서 15세 이상을 요역에 징발하고 있다.

11)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戶口,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 而免役”.

12) 野村忠夫, 1953, 「正倉院より發見された新羅の民政文書について」, 『史學雜誌』 62-4, 343쪽 ; 박시형, 1957, 「신라장적(新羅帳籍)의 연구」, 『역사과학』 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3쪽 ; 旗田巍, 1972, 앞의 책, 435쪽 ; 石上英一, 1974, 「古代における日本の税制と新羅の税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77쪽 ; 兼若逸之, 1979, 「新羅 『均田成冊』의 研究 -이른바 民政(村落)文書の 分析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23, 105쪽 ; 김기홍,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88쪽 ; 이인재, 1995, 「新羅 統一期 土地制度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6쪽 ; 이인철, 1996, 『新羅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282쪽 ; 이경식, 2005, 『韓國 古代·中世初期 土地制度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21쪽 ; 백영미, 2011, 「韓國 古代 戶口編制와 戶等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2쪽.

13) 『唐六典』 권3, 戶部郎中員外郎, “男女始生爲黃 四歲爲小 十六爲中 二十有一爲丁 六十爲老”.

14) 전봉덕, 1956, 「新羅의 律令攷」, 『서울대학교 논문집』 4 ; 1968, 『韓國法制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92쪽 ; 이기백·이기동 共著, 1982, 『韓國史講座 -古代篇-』, 一朝閣, 323쪽 ; 浜中昇, 1986, 「統一新羅 年齡區分と税制」,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法政大學出版局, 55쪽 ; 이태진, 1988, 「高麗後期の 인구증가 要因 生成과 鄉藥醫術의 발달」, 『한국사론』 19 ; 2002,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모델-』, 태학사, 80쪽 ; 박찬홍, 2001, 「新羅 中·下代 土地制度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6쪽 ; 이현숙, 2009, 「촌락문서의 인구분석으로 본 신라 통일기 전염병과 인구」, 『신라사학보』 15, 17쪽 ; 정덕기, 2019, 「통일신라 연령등급제의 연령과 속성」, 『역사학보』 242, 27쪽. 成丁 연령을 20세로 본 경우는 논자별로 그 근거가 다양하다. 浜中昇은 「촌락문서」의 인구 구성비를 일본 호적 등의 자료와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이태진은 隋代의 醫書인 『소품방』에 보이는 壯의 연령을 적용하였고 정덕기는 『禮記』에 근거하였다.

15) 전봉덕, 1968, 앞의 책, 292쪽 ; 박찬홍, 2001, 앞의 논문, 76쪽.

라서 「촌락문서」 단계의 成丁 연령은 20~21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기록을 고려할 때 자비마립간 11년(468) 당시 신라의 成丁 연령은 15세로 생각된다. 따라서 「촌락문서」 단계의 연령등급제는 성립 단계와 成丁 연령·제도의 형태가 다르며, 특정 시점에 개편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추출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는 追·助·除의 의미와 성격을 추정한 연구로, 주로 해당 글자의 사전적 의미에 의거하였으며, 연령대를 추정한 경우도 있다. 追는 稚의 變字로 보거나,¹⁶⁾ 어른을 따라다닐 수 있는 어린이 집단,¹⁷⁾ 助를 좇아 보조하는 집단¹⁸⁾ 등으로 보고 있다. 助는 丁의 助力집단,¹⁹⁾ 國役에 동원 가능한 미성년에 속하여 장차 丁으로서 익혀야 할 여러 훈련을 받는 집단,²⁰⁾ 調의 납부를 위한 역역 등에 동원되는 丁의 보조자·代役 집단,²¹⁾ 丁보다 감경된 課와 동일한 役을 부담하는 집단,²²⁾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집단,²³⁾ 성년 직전에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집단²⁴⁾ 등으로 이해하거나 追와 함께 丁의 보충 집단으로 보고 있다.²⁵⁾ 除는 課役이 免除된 집단,²⁶⁾ 부역이나 병역이 면제된 집단,²⁷⁾ 老와 마찬가지로 賦役에서 제외되지만 문서 작성 주기로 인해 다르게 파악되는 집단,²⁸⁾ 완전 免役은 아니지만 일차 實役에서 제외된 집단,²⁹⁾ 일본의 老와 같은 次丁 집단,³⁰⁾ 노동력의 질이 떨어져 동원에서 제외되거나 유사시 차출할 수 있는 집단³¹⁾, 丁의 역역 중 특정한 역역만 담당하는 늙은이 집단³²⁾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追·助·除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전적 의미에 기반한 추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의미가 명확한 除는 논외로 하더라도 ‘돕다’, ‘따라다니다’와 같이 막연한 의미만으로는 해당 연령층이 국가에 지는 부담에 대해 알기 어렵다. 따라서 사서·경전 등에서 課役과 관련하여 追·助·除가 사용된 용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제도의 계통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이다. 먼저 「촌락문서」에 보이는 신라의 연령등급제는 西晉의 ‘小-次丁-丁-次丁-老’를 기본 모델로 하였다는 견해가 있다.³³⁾ 이 견해는 西晉의 제도에서 西魏 이래 ‘黃-小-中-丁-老’로의 변화에 대해 丁의 복역 기간이 줄어드는 수취

16) 전봉덕, 1968, 앞의 책, 292쪽.

17) 이현숙, 2009, 앞의 논문, 11쪽.

18) 정덕기, 2019, 앞의 논문, 31쪽.

19) 전봉덕, 1968, 앞의 책, 292쪽 ; 이태진, 2002, 앞의 책, 82쪽.

20) 이기백·이기동 共著, 1982, 앞의 책, 324쪽.

21) 이인철, 1986, 「新羅 統一期の 村落支配와 計烟 -正倉院所藏 村落文書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54, 13쪽.

22) 浜中昇, 1986, 앞의 책, 56~57쪽.

23) 이현숙, 2009, 앞의 논문, 11쪽.

24) 정덕기, 2019, 앞의 논문, 29쪽.

25) 旗田巍, 1972, 앞의 책, 436쪽.

26) 野村忠夫, 1953, 앞의 논문, 344쪽 ; 旗田巍, 1972, 앞의 책, 436쪽.

27) 박시형, 1957, 앞의 논문, 13쪽.

28) 兼若逸之, 1979, 앞의 논문, 105쪽 ; 이인철, 1996, 앞의 책, 284쪽.

29) 이태진, 2002, 앞의 책, 82쪽.

30) 전봉덕, 1968, 앞의 책, 293쪽 ; 尹善泰, 2000, 앞의 논문, 57쪽.

31) 이현숙, 2009, 앞의 논문, 11~15쪽.

32) 정덕기, 2019, 앞의 논문, 34쪽.

33) 尹善泰, 2000, 앞의 논문, 166~173쪽.

의 감경조치로 보았다.³⁴⁾ 또 중국·일본에서 연령등급제가 강고하였던 시기에는 인신을 기준으로 수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촌락문서」 단계의 신라 역시 그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연령대·성격 추정에서 나아가 연령등급제를 수취 전반과 관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촌락문서」의 연령등급제가 개편된 형태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편 이전 시기와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黃-小-中-丁-老로의 전환을 수취의 감경으로 본 관점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연령등급제의 개편을 수취의 감경조치로 본 관점은 이후의 연구에도 영향을 주어 「촌락문서」의 연령등급제는 문무왕 遺詔의 ‘薄賦省徭’ 이념으로 인해 개편된 것으로 본 견해가 제기되었다. 연령등급제의 개편은 丁의 기간 축소에 그 핵심이 있는데, 이는 국가 재정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追·助·除와 같은 완충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³⁵⁾ 이 견해는 「촌락문서」의 연령등급제가 개편된 형태일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개편 배경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감세 목적의 연령등급제 개편은 제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 연령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라에서 감세를 목적으로 연령등급제를 개편했다면, 追·助·除의 추가와 같은 세분화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령등급제의 형태 자체가 변하는 경우는 기존 연령만을 조정한 경우와 구분하여야 하며, 그 배경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 외에 6세기 신라는 漢의 영향으로 15세 이상을 丁으로 규정하였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³⁶⁾ 하지만 漢의 연령 구분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한 검토나 제도를 받아들인 경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신라의 연령등급제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신라 연령등급제의 개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연령대·성격의 단편적 추정에 그쳤으며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하지 못했다. 최근에야 연령등급제의 개편이라는 측면에 주목한 논고가 나왔지만, 이 역시 개편 배경에 대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연령등급제의 개편 배경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의견이 분분한 追·助·除의 성격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II장에서는 연령등급제의 성립 시기와 제도의 연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통일 이전의 자료를 통해 연령등급제의 최초 형태를 밝히고, 중국의 제도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연령등급제가 개편되었다는 추정을 입증하고, 제도의 연원·성격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려 한다. III장에서는 연령등급제의 개편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알려줄 국내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유사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는 西晉·北魏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西晉·北魏 연령등급제의 개편 배경을 살펴보고, 신라사에 적용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신라의 연령등급제 개편 배경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IV장에서는 신라에서만 사용된 명칭인 追·助·除의 용례를 제시하고 의미·성격을 알아볼 것이다. 또 追·助·除가 족을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34) 이는 高敏, 1987, 『魏晉南北朝社會經濟史探討』, 人民出版社, 339쪽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黃-小-中-丁-老’의 연원을 北魏로 보고 있으며, 黃-小-中-丁-老를 수취의 감경 조치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5) 정덕기, 2019, 앞의 논문, 25~38쪽.

36) 전덕재, 2020, 「中古期 新羅의 租稅收取와 力役動員」, 『한국고대사연구』 98, 308쪽.

2. 연령등급제의 성립 시기와 연원

신라의 연령등급제가 최초로 제정된 시기와 그 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고구려의 경우 봉상왕 9년(300)에 15세 이상의 丁男을 궁실 수리에 동원한 기록³⁷⁾을 통해 당시 15세 이상을 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자비마립간 11년(468)에 하슬라인 중 15세 이상을 동원하여 축성하였다고 하며,³⁸⁾ 소지마립간 8년(486)에는 일선 땅의 ‘丁夫’를 징발하였다고 한다.³⁹⁾ 따라서 상고기 신라에서도 15세 이상을 丁으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여기서의 丁은 課役 부담의 핵심 계층으로, 중국의 丁과 성격이 동일하다.

위 기사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었고, 단행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흥왕의 율령 반포 당시 기존의 단행법령들을 일원화하여 전국에 동일한 법체계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¹⁾ 이때 연령등급제도 ‘○○法’이라는 편목으로 규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율령 반포와 함께 제정되었을 연령등급제에 丁 이외의 연령등급이 존재했을지, 15세라는 成丁 연령은 유지되었을지 궁금해진다. 전자의 경우 진흥왕대에 건립된 「단양적성비」에 「촌락문서」와 동일한 ‘小子’의 표현이 보인다. 따라서 당시 丁 외에 小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西晉에서 小·老를 ‘不事’로 규정한⁴²⁾ 이래 小는 課役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신라도 동일했을 것이다. 그 외의 연령등급 및 成丁 연령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이 참고된다.

A-1. 上元 2년 을해 (675) 봄에 阿達城 太守 級浪 漢宣이 백성들에게 명하여 어떤 날에 모두 나가 삼을 심도록 하고, 이 명을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하였다. 말갈의 접자가 이를 알고 돌아가 그 추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날에 이르러 백성들이 모두 성을 나가 밭에 있었다. 말갈이 군사를 숨겼다가 갑자기 성에 들어와 온 성을 노략질하니, 노인과 어린아이가 허둥지둥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⁴³⁾

A-2.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6세였는데, 종군을 청하였다. 왕은 (그가) 幼少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으나, 힘써 청하고 뜻이 확고하므로 마침내 명령하여 貴幢 裨將으로 삼았다. ⁴⁴⁾

37) 『三國史記』 권49, 列傳9 倉助利.

38)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1年 9月.

39)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8年 正月.

40) 이문기, 1997,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235쪽.

41) 홍승우,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0쪽.

42) 『通典』 권7, 食貨7 丁中, “晉武帝平吳後 有司奏 男女年十六以上至六十爲正丁 十五以下至十三 六十一以上至六十五爲次丁 十二以下六十六以上爲老小 不事”.

43) 『三國史記』 권47, 列傳7 素那.

44) 『三國史記』 권44, 列傳4 斯多含.

A-3. 薛氏女는 栗里 民家の 딸이다. (중략) 진평왕 때에 그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으나 正谷에 외적을 막으려 갈 순서가 되었다. (중략) 사랑부 少年 嘉實은 비록 매우 가난하였으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지조가 곧은 남자였다. 일찍부터 설씨를 좋아하였으나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설씨가 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야 함을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설씨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는 비록 나약한 사람이지만 일찍부터 뜻과 기개를 자부하여 왔습니다. 이 몸이 아버님의 役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중략) 마침 나라에 변고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대하도록 하지 못하여 6년을 머물고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3년으로 기약을 하였는데 지금 이미 지났구나.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⁴⁵⁾

사료 A군은 6~7세기의 상황을 알려준다. A-1에 의하면 675년 당시 아달성의 백성들은 특정한 날에 함께 밭에 나가 삼을 심었으나,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성에 남아 있었다. 이들은 課役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작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의 어린아이들은 앞서서의 小와 동일한 존재로 생각된다. 중고기에는 고령의 免課役 집단의 존재를 알려주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671년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에는 ‘과부들이 군량의 수레를 끌고 어린아이가 屯田을 경작한다’는 신라의 참혹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⁴⁶⁾ 이렇게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했던 시기에 새롭게 免課役 계층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령의 免課役 집단은 중고기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신라가 중국의 小·丁을 명칭·성격의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老 역시 중국의 그것과 같았을 것이다.

이상 중고기 신라에 小·丁·老가 존재하였음을 보았다. 다음으로 成丁 연령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A-2를 주목하였다. A-2에 의하면 15~16세인 사다함의 종군 요청에 대해, 진흥왕이 幼少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다가 마침내 비장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고려와 동일하게 成丁 연령을 16세로 보거나,⁴⁷⁾ 중고기에 이르러 15세에 대한 통념이 변화하였으나 당시 상황상 成丁 연령을 높일 수는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⁴⁸⁾ 앞의 견해에서는 15~16세가 군역을 지기 어린 나이이므로, 신라의 成丁 연령은 16세라고 보았다. 하지만 사다함이 16세라면 16세 역시 成丁 연령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고기에 15세에 대한 통념이 변화하였다거나 혹은 成丁 연령이 16세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을까. 먼저 귀족 자제인 사다함의 사례를 일반민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다함이 幼少하다는 진흥왕의 반응도 군역 그 자체가 아니라 종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睡虎地秦簡』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와 시기는 다르지만 사다함의 사례를 논할 때 참고가 된다. 이에 따르면 묘주 熹는 17세에 ‘傳’⁴⁹⁾하였는데, 2년 후와 3년 후 전쟁이 있었음에도 종군하지 않았고, 29세가 되던 진시황 13년에 처음으로 종군하였다.⁵⁰⁾

45) 『三國史記』 권48, 列傳8 薛氏女.

46)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7月.

47) 이인철, 1996, 앞의 책, 282쪽.

48) 정덕기, 2019, 앞의 논문, 23쪽.

49) 傳의 의미에 대해 荀悅은 正卒이라 하였고(『史記』 권11, 孝景本紀11), 顏師古는 名籍에 이름을 올려(著) 公家에 요역을 給하는 것이라 하였다(『漢書』 권1上, 高帝紀1上). 이는 후대의 成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군역의 대상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군시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⁵¹⁾ 따라서 중군을 기준으로 한 幼少를 근거로 당시 신라의 成丁 연령이 15~6세보다 높았다고 볼 수 없고, 15세에 대한 통념의 변화 역시 읽어낼 수 없다.

즉 A-2를 통해 중고기의 成丁 연령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의 <표-1>에 보이듯이 ‘小-次丁-丁-次丁-老’를 시행한 국가들의 成丁 연령은 16~20세였다. 따라서 만약 중고기에 次丁이 존재했다면 신라의 成丁 연령은 15세보다 높았을 개연성이 크다. 次丁의 존재 여부는 중고기 연령등급제의 연원·성격과도 관련되지만, 成丁 연령에도 시사점이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次丁(半丁)을 예비역적 집단으로 이해하면서, 가실과⁵²⁾ 설씨녀의 아버지를⁵³⁾ 각각 次丁으로 본 견해가 있다. 그러나 次丁의 부담인 半課·半役⁵⁴⁾은 단순히 丁보다 감경된 課役이 아닌 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후술할 西晉 次丁男의 課가 丁男의 ½이라는 점이 나 일본 養老令에서 次丁의 課役을 正丁의 ½로 규정하고 있는 점⁵⁵⁾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次丁은 평시에도 丁의 半·半課를 부담하였으며 예비역적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	小	次丁	丁	次丁	老
西晉	1~12세	13~15세	16~60세	61~65세	66세~
東晉	1~15세	16~19세	20~60세	61~65세	66세~
劉宋	1~14세	15~16세	17~60세	61~65세	66세~
梁·陳	1~15세	16~17세	18~60세	61~65세	66세~

<표-1> 西晉·南朝의 연령등급제 ⁵⁶⁾

특히 후자의 견해에서는 설씨녀의 아버지가 유사시에만 동원되는 집단이며 「촌락문서」의 除의 전신일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설씨녀의 아버지가 징발된 상황이 평시와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A-3에 따르면 3년을 기약하고 떠났던 가실이 국가의 변고로 6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설씨녀의 아버지가 징발된 시점이 오히려 평시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가 유사시에만 징발되는 계층은 아님을 알 수 있

50) 『睡虎地秦簡』「編年記」, “今元年 喜傳 二年 三年 卷軍 八月 喜掄史 … 四年 □軍 … 十三年 從軍”. 진시황 3년조의 卷軍은 卷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편·윤재석 역주, 2010, 『수호지진묘죽간역주』, 소명출판, 45쪽 각주 28번).

51) 박건주, 1994, 앞의 논문, 94쪽.

52) 신범규, 2018, 「신라 중고기 軍役의 형태와 운영 양상」, 『한국고대사탐구』 30, 106~107쪽.

53) 정덕기, 2019, 앞의 논문, 35쪽.

54) 『隋書』 권24, 志19 食貨, “丁男調布絹各二丈 絲三兩 綿八兩 祿絹八尺 祿綿三兩二分 粗米五石 祿米二石 丁女並半之 男女年十六已上至六十爲丁 男年十六 亦半課 年十八正課 六十六免課”. 半役의 용례는 III장의 각주 86번 참조.

55) 『令義解』 권3, 賦役令10, “京及畿內 皆正丁一人 調布一丈三尺 次丁二人 中男四人 各同一正丁 (중략) 凡正丁歲役十日 若須收庸者 布二丈六尺 (중략) 次丁二人同 一正丁 【謂 次丁一人歲役五日 若收庸者 布一丈三尺】”. 調의 부담에서 次丁(老)은 中男의 2배로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中과 次丁을 동일하게 본 견해(정덕기, 2019, 앞의 논문, 18쪽)는 따르기 어렵다.

56) 徐暢, 2011, 「隋唐丁中制探源 -從敦煌吐魯番出土戶籍文書切入-」, 『中華文史論叢』 102, 271쪽. 東晉과 劉宋은 丁과 그 아래 次丁의 연령을 한 차례 조정하였으며 표의 연령은 조정 이후의 연령이다. 조정 이전에는 西晉과 기준 연령이 동일하였다. 東晉·劉宋의 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III장 참조.

다. 결론적으로 설씨녀의 아버지는 일반적인 丁男이며, 『춘락문서』의 除와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후자의 견해는 후속 논고에서 北齊·北周가 年老한 丁을 入老 이전에 免役시킨 사례⁵⁷⁾에 대해 丁 내부에서 따로 次丁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중고기 신라에 적용하였다.⁵⁸⁾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次丁의 歲役은 正丁의 ½로, 免役이 아니기 때문에 北齊·北周의 免役된 丁을 次丁으로 볼 수는 없다. 중고기 신라가 北齊·北周의 제도를 받아들여 연로한 丁의 일부를 入老 전에 免役시켰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丁에 해당하며 次丁과는 관계가 없다.

이 견해에서는 중고기 신라가 丁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상고기의 연령등급제를 재편하였으나, 成丁 연령(15세)을 높이지는 못하였고, 부담 보조를 위해 次丁을 새로이 편성하였다고도 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課役과 무관하던 12~14세(子·女子)가 次丁이 된 것으로 보았다.⁵⁹⁾ 하지만 課役을 부담하지 않던 12~14세가 次丁으로 편성되면 해당 연령층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III장에서 보겠지만 이들 연령층에 대한 수취는 사회적 폐단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중고기 신라가 일종의 ‘爲民’을 위해 成丁 연령의 상승 없이 次丁을 새로이 두었다는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즉 현재까지 중고기 신라에서 次丁을 확인할 근거는 없으며, 율령 반포 당시 15세를 成丁으로 하는 小-丁-老의 연령등급제가 성립하여 나·당 전쟁의 종료 시점까지는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北齊·北周에서 丁의 연령과 役을 부담하는 연령이 다른 것은 연령등급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北齊·北周의 丁은 免役 후에도 여전히 丁으로서 일정 기간 正課를 부담하였다. 하지만 課를 부담하는 연령은 丁의 연령 및 균전제의 授田 연령에 그대로 대응하였다. 免課과 곧 入老와 還田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연령등급제는 田制 및 課와의 관련성이 큰 제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국가	丁	役	課(授田)
北齊	18~65세	20~59세	18~65세
北周	18~64세	18~59세	18~64세

<표-2> 北齊·北周 丁의 연령과 課役의 관계

이상 중고기 신라 연령등급제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신라 연령등급제의 연원을 西晉에서 찾은 것은 『춘락문서』의 연령등급제가 ‘小-次丁-丁-次丁-老’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기에는 次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연원·성격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사에서 이러한 연령등급제를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으므로 중국사에서 小-丁-老가 사용된 시기에 주목해보려 한다.

중국사에서 先秦 시대~秦의 연령 구분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睡虎地秦簡』에 신장을

57) 『隋書』 권24, 志19 食貨, “至河清三年定令 (중략) 男子十八以上 六十五已下爲丁 十六已上 十七已下爲中 六十六已上爲老 十五已下爲小 率以十八受田 輸租調 二十充兵 六十免力役 六十六退田 免租調 (중략) 後周太祖作相 創制六官 (중략) 凡人自十八以至六十有四 與輕癯者 皆賦之 (중략) 凡人自十八以至五十有九 皆任於役”.

58) 정덕기, 2021, 「삼국 신라 연령등급제의 연령과 속성」, 『동아시아고대학』 63, 483~484쪽.

59) 정덕기, 2021, 앞의 논문, 485~486쪽.

기준으로 노동을 시키는 기록이 보이며,⁶⁰⁾ 昭王이 15세 이상을 징병한 사례⁶¹⁾ 등을 볼 때 연령과 신장을 모두 고려하여 課役을 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²⁾ 여기에 20等 爵制 역시 課役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漢에도 이어진다. 연령 구분 체계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漢인데, 그 형태는 <표-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小		大			
未使	使	未傅大男	傅籍	皖老	免老
1~6세	7~14세	15~22세	23~55세	56~59세	60세~

<표-3> 漢의 연령구분 체계⁶³⁾

漢의 경우 호적에는 小와 大만 있으며 使·傅籍·免老 등의 課役 신분은 호적에 상응하는 명칭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⁶⁴⁾ 이는 小·丁·老 등의 課役 신분이 곧 호적 신분과 일치되어 그 자체로 課役의 의무를 나타내는 후대의 연령등급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漢의 제도를 연령구분 체계로 명명하였다.

未傅大男은 식량 운반과 같은 傅籍에 비해 가벼운 役에 징발되었으며, 皖老는 半役을 부담하였다.⁶⁵⁾ 그런데 未傅大男과 傅籍은 요역 제도에서는 부담이 달랐으나 算賦 제도에서는 같았다. 또 皖老는 요역의 경우 傅籍의 ½이었지만 算賦의 경우 57세부터는 면제되는 등 課·役에 대한 수취가 서로 분리되었다. 7~14세인 使가 요역은 면제되었으나 口賦는 부담한 것 역시 課·役의 분리를 보여준다.⁶⁶⁾

중고기 신라의 課役 수취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漢에서는 아직 丁이라는 호적 신분이 보이지 않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라의 15세는 正役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傅籍보다 가벼운 역을 진 漢의 15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役에 동원된 연령이 15세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漢의 제도를 중고기 신라 연령등급제의 연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중국의 삼국시대를 다룬 正史인 『三國志』에는 연령등급제 관련 기록이 없다. 하지만 『走馬樓吳簡』의 호적간에서는 호적 신분으로 여전히 小와 大가 다수를 차지하나, 처음으로 丁과 老가 출현한다.⁶⁷⁾ 『走馬樓吳簡』에서 次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次丁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郴州晉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郴州

60) 『睡虎地秦簡』「倉律」, “隸臣城旦高不盈六尺五寸 隸妾春高不盈六尺二寸 皆爲小 高五尺二寸 皆作之”.

61) 『史記』 권73, 白起王翦列傳13, “發年十五以上 悉詣長平 遮絕趙救及糧食”.

62) 박건주, 1994, 앞의 논문, 93쪽.

63) 徐暢, 2011, 앞의 논문, 257쪽.

64) 위와 같음.

65) 『張家山漢簡』「二年律令」 徭律, “皖老各半其爵徭 (중략) 節載粟 及發公大夫以下子 未傅年十五以上者”.

66) 漢의 算賦 제도는 인두세로 15~56세에게 120전의 算賦를 거두고, 7~14세에게 20전의 口賦를 거두었다(『漢書』 권1上, 高帝紀1上, “八月 初爲算賦【如淳曰『漢儀注』民年十五以上至五十六出賦錢人百二十爲一算 爲治庫兵車馬】” ; 『漢書』 권7, 昭帝紀7, “毋收四年 五年口賦【如淳曰『漢儀注』民年七歲至十四出 口賦錢 人二十三 二十錢以食天子 其三錢者 武帝加口錢以補車騎馬】”).

67) 凌文超, 2010, 앞의 논문, 41쪽.

『晉簡』의 연대는 太康 5년(284)~太安 2년(303)으로 次丁이 법제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小·丁·老가 보이지만 次丁은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 ‘六十一以上六十五以還老男’·‘十三以上十五以還小男’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西晉의 통일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孫吳 故地の 관리들이 전통적인 인식 하에 次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⁶⁸⁾

이상의 자료를 통해 삼국시대에 小·丁·老가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大가 丁·老로 분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小와 大의 구분은 신장이 課役 징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漢에서는 大人 免老는 算賦가 면제되고 小人 使는 口賦를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법은 그 자체로 課役의 부담을 나타낼 수 없다. 결국 課役 신분과 일치하는 호적 신분의 필요성으로 인해 大가 丁·老로 분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는 曹操가 算賦 제도를 폐지하고 시행한 戶調制가 그 배경으로 지적된다.⁶⁹⁾ 『走馬樓吳簡』에서는 여전히 口賦·算賦가 징수되고 있는데, 호적 신분으로 小와 大가 대다수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戶調制 시행과 함께 曹魏에서 小·丁·老가 성립하고 점차 孫吳로도 전파된 것이 아닐까 한다.

小·丁·老는 그 자체가 호적 신분이자 課役 신분이다. 曹魏의 호적 신분은 漢에 비해 하나 늘어났지만, 課役 신분은 상당히 간소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算賦 제도와 戶調制의 차이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漢의 인민지배의 특징은 소농민에 대한 개별인신적 지배로, 가호가 아닌 개별적인 가족 구성원을 지배단위로 하였다. 이러한 지배방식의 특징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두세인 算賦 제도이다.⁷⁰⁾ 曹魏에서는 1畝당 4升의 田租와 絹 2匹·綿 2斤의 戶調를 거두었는데,⁷¹⁾ 田租는 양 시기의 공통적인 세목이었다. 하지만 算賦를 대체한 戶調는 혼란기에 개인보다 파악하기 쉬운 戶를 단위로 거둔 세였다. 즉 戶調의 징수는 漢의 인두세가 戶當 과 세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⁷²⁾ 課의 측면에서 볼 때 曹魏 국가의 지배는 戶 안의 인신까지는 미치지 않았으며, 漢의 개별인신적 지배는 느슨해졌다.⁷³⁾ 이러한 배경에서 曹魏의 課役 신분은 漢보다 간소해져 小·丁·老만이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小·丁·老의 연원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이러한 연령등급제를 수용하였을까. 신라가 曹魏·孫吳와 교류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4세기 후반 前秦과 교류하였을 때도 중국에서는 이미 小·丁·老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라가 西晉 이래의 小·次丁·丁·次丁·老에서 次丁을 제외하고 수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고구려는 曹魏·孫吳 모두와 교류를 가졌다. 따라서 고구려가 曹魏·孫吳의 小·丁·老를 수용하고, 그것이 다시 신라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400년에 왜의 침입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한 고구려는 중앙에서는 눌지마립간의 즉위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방에는 군대를 주둔시키며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켰다.⁷⁴⁾ 이러한 정치적 관계는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68) 張榮強, 2017, 「“小”“大”之間 -戰國至西晉課役身分의演進-」, 『歷史研究』 2017-2, 6쪽.

69) 凌文超, 2010, 앞의 논문, 30~44쪽 ; 張榮強, 2017, 앞의 논문, 17~22쪽.

70) 西嶋定生 저·변인석 편역, 1994, 『중국고대사회경제사』, 한울아카데미, 155쪽.

71) 『三國志』 권1, 武帝紀1 所引 魏書載公令, “其收田租畝四升 戶出絹二匹綿 二斤而已 他不得擅興發”.

72) 김택민, 1998, 『中國土地經濟史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55쪽.

73) 西嶋定生 저·변인석 편역, 1994, 앞의 책, 195~196쪽.

마련인데, 실제로 신라의 幢主는 고구려의 영향이 상정되는 제도이다.⁷⁵⁾

다음으로 고구려와 중고기 신라의 課 수취 방식을 살펴보자. 『隋書』에 의하면 고구려는 人稅로 布5匹·穀5石을 거두었다고 하는데,⁷⁶⁾ 이는 戶 단위로 균액의 租調를 부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함안 성산산성 목간을 보면, 중고기 신라에서도 각 戶가 피 또는 보리 1석을 균액으로 납부한 양상이 확인되므로 고구려와 중고기 신라는 유사한 稅制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⁷⁷⁾ 『隋書』의 人稅라는 표현을 볼 때 그것은 인신에 대한 세라는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가호의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호주 1인에게만 부과된 것으로 개별인신적 지배는 관철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연령등급제 역시 세분화될 필요성이 낮았고, 小-丁-老의 연령등급제를 사용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 중고기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으로 15세를 成丁 연령으로 하는 小-丁-老의 연령등급제를 시행하였고, 그것은 戶 단위의 稅制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았다. 이후 신라는 여기에 追·助·除라는 연령등급을 추가하였으며 成丁 연령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춘락문서」의 연령등급제로 개편된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3. 연령등급제의 개편과 丁田制의 성립

신라는 건국 이래로 점진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5~6세기는 하나의 획기로 평가되고 있다. 저명한 우경의 실시 외에도 수리사업을 위시한 신라 농업의 발전기였다는 것이다.⁷⁸⁾ 그러나 7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삼국 상호 간의 전쟁과, 9년에 걸친 唐과의 전쟁으로 인해 成丁 연령을 높이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⁷⁹⁾ 成丁 연령이 15세로 유지되었다면, 「춘락문서」의 연령등급제가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문무왕대에는 전쟁 중에도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씩 시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왕 5년(665) 비단 한 필의 기준을 조정한 것⁸⁰⁾이나 4년 후 이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⁸¹⁾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⁸²⁾ 문무왕 유조에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이 풍족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게 되었다’⁸³⁾라고 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연령등급제의 개편 배경으로 문무왕 유조의 감세 이념에 주목하였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이는 감세를 위해 成丁 연령을 높이면 국가의 稅收는 줄어들 것이므로 追·助·除를 신설하여 稅收의 감소를 부분적으로 보충하였을 것으로 본 것이다.

74) 鄭雲龍, 1994,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5, 44쪽.

75)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317쪽.

76)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高麗.

77) 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207~214쪽.

78) 李基白,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285쪽.

79) 홍승우, 2011, 앞의 논문, 136쪽.

80)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5年.

81)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9年.

82) 김기홍, 1991, 앞의 책, 207쪽.

8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21年.

문무왕대의 정책 흐름을 볼 때 당시 신라의 成丁 연령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라가 成丁 연령을 20~21세로 상승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追·助·除의 추가와 연결지을 수는 없다. 가령 고려와 동시기의 宋에서는 丁·老의 연령만 각각 20, 60세로 규정하였다.⁸⁴⁾ 宋은 唐과 成丁·入老 연령이 거의 동일하였으나 ‘黃·小·中·丁·老’를 시행한 唐과 달리 丁·老만으로 국가를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20~21세라는 成丁 연령으로 인해 연령등급제가 세분화된 것은 아니며 成丁 연령의 상승은 연령등급제 세분화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고려는 丁·老의 연령만 규정하였으므로 연령구분의 측면에서 통일신라와 唐이 유사하고 고려와 宋이 유사하다. 宋에서 연령구분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IV장에서 다룰 것인데, 통일신라와 고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취의 중심이 인신에서 토지로 옮겨가면서 세분화된 연령 구분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연령등급제의 세분화는 인신 지배의 강화와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자료만 가지고는 이러한 이해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연령등급제 관련 사료가 많은 중국사의 사례를 참조해보려 한다.

중국사에서 연령등급제의 개편은 두 가지 양상이 있다. 첫째는 西晉·北魏⁸⁵⁾와 같이 연령등급제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기준 연령만 변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감세 조치와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東晉⁸⁶⁾·劉宋⁸⁷⁾에서는 西晉의 小·次丁·丁·次丁·老를 시행하였는데, 丁 아래의 次丁(13~15세)에 대한 수취가 각종 폐단을 낳자 연령등급제가 개편되었다. 하지만 연령등급제의 형태에는 변화가 없었고 丁 아래의 次丁과 丁의 연령만을 높였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감세 목적의 연령등급제 개편은 형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준 연령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상정하고 있는 신라의 연령등급제 개편은 기준 연령의 조정도 있지만, 형태 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관련하여 曹魏에서 西晉 연령등급제로의 변화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된다. 김춘추가 唐 태종에게 『晉書』를 받아왔다는 점도⁸⁸⁾ 신라가 西晉의 제도를 참고하였을 개연성을 높여준다.⁸⁹⁾ 西晉의 연령등급제 규정은 孫吳를 평정한 후 제정한 戶調之式에 나타나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또 戶調之式을 제정하였다. 丁男의 戶는 해마다 絹 3匹, 綿 3斤을 수납하고 (丁)女 및 次丁男이 戶主인 戶는 반을 수납한다. (중략) 남자 1인은 田 70畝를 占할 수 있고, 여자는 30畝이다. 그 외에 丁男은 田 50畝를 課하고, 丁女는 20畝, 次丁男은 반이며, (次丁)

84) 『宋史』 권174, 志127 食貨上2 賦稅, “諸州歲奏戶帳 具載其丁口 男夫二十爲丁 六十爲老”.

85) 북위의 연령등급제는 사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均田詔의 내용을 통해 추정되고 있다. 연구자별로 이견은 있지만 이 글에서는 小(?~11)-中(12~14)-丁(15~70)-老(71~)로 본 견해(백운목, 2012, 「北魏 均田制 하의 田種 別 民 受田對象의 受田資格과 丁中老小法에 대한 再檢討」, 『인문학논총』 28, 34쪽)를 따른다.

86) 『晉書』 권75, 列傳45 范汪 子寧, “今以十六爲全丁 則備成人之役矣 以十三爲半丁 所任非復童幼之事矣 豈可傷天理 違經典 困苦萬姓 乃至此乎 今宜修禮文 以二十爲全丁 十六至十九爲半丁 則人無夭折 生長滋繁矣 帝善之”.

87) 『宋書』 권42, 列傳2 王弘, “弘又上言 舊制 民年十三半役 十六全役 當以十三以上 能自營私及公故以充役 (중략) 至今逃竄求免 胎孕不育 乃避罪憲 實亦由茲 (중략) 十五至十六 宜爲半丁 十七爲全丁 從之”.

88)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德王 2年.

89) 정덕기, 2019, 앞의 논문, 24~25쪽.

女는 課하지 않는다. 남녀 16세에서 60세까지를 正丁으로 한다. 15세 이하 13세까지와 61세부터 65세까지를 次丁으로 한다. 12세 이하 66세 이상을 老小라 하여 不事한다.⁹⁰⁾

B의 연령등급제는 田制인 占田·課田制와 연동되고 있다. 점전은 限田의 의미로 남자 70무, 여자 30무의 한도에서 토지의 점유를 허용한 것이다. 과전은 丁男·丁女·次丁男에게 각각 50무·20무·25무를 課한 것이다. 그 稅額에 대해 B에는 戶調만 있고 田租는 없는데, 『晉故事』에 의하면 丁男의 경우 4斛이었다.⁹¹⁾ 田租는 戶 단위의 戶調와 달리 口 단위로 부과였으며, 丁女·次丁男은 丁男의 ½인 2斛이었다.⁹²⁾ 점전·과전제에는 아직 토지를 환수하는 규정은 없지만, 소농민을 대상으로 토지의 규제를 행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균전제의 선구로 생각된다.⁹³⁾

이러한 점전·과전제는 曹魏의 屯田制를 대체한 것이다. 둔전은 일반 농민을 지배하는 군현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田官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수확의 5·6할을 소작료로 취하였다. 둔전민은 일반 농민과 달리 호족 지주의 전객과 유사하였고, 둔전은 국가 자신이 호족적 대토지 경영을 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둔전을 통해 호족 지주에 대항하여 재정의 중요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일반 농민에 대한 지배가 전개되기는 어려웠다.⁹⁴⁾

고평릉의 변을 통해 曹魏의 정권을 잡은 사마씨는 咸熙 원년(264) 둔전을 폐지하고 군현에 편입시켰다. 그 목적은 전 백성을 군현제 지배에 두어 政役을 균등히 하려는 것이었다.⁹⁵⁾ 대략 20년 후 통일을 완수하고 새로운 田制가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稅制도 변화하여 田租가 인두세로 개편되었다. 曹魏대에 느슨해졌던 漢의 개별인신적 지배가 부활한 것이다.

이상 田制와 稅制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는데, 이 때 次丁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戶調는 액수의 차이는 있으나 曹魏와 동일한 세목이다. 田租의 경우 曹魏에서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연령과는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연령 구분이 세분화될 필요성도 낮았다. 하지만 西晉의 田租는 인두세였는데, 연령별로 노동 능력이 같을 수 없으므로 의무 경작 면적·세액도 달라야 했다. 그리하여 次丁男의 課는 丁男의 ½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령등급제가 세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감세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⁹⁶⁾

다음으로 (黃)-小-中-丁-老의 성립 계기를 살펴보자. 이는 연령구분이 세분화된 것은 아니지만 연령등급제 형태의 변화와 田制·稅制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서 주목된다.

C-1. 그 칙령은 농부에게 督課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를 가진 자는 보통의 해보다

90) 『晉書』 권26, 志16 食貨.

91) 『初學記』 卷27, 寶器部 9 所引 『晉故事』.

92) 김성한, 1998, 『중국토지제도사연구』, 신서원, 54쪽.

93) 堀敏一 저·김성한 역, 2005, 「균전제(均田制)와 조庸조제(租庸調制)의 전개」, 『세미나 수당오대史』, 서경문화사, 172쪽.

94) 堀敏一 저·김성한 역, 2005, 앞의 논문, 176쪽.

95) 『三國志』 권4, 三少帝紀4 陳留王奐 咸熙 元年, “是歲 罷屯田官以均政役 諸典農皆爲太守 都尉皆爲令長”; 『晉書』 권3, 帝紀3 武帝 泰始 2年 12月, “罷農官爲郡縣”.

96) 曹魏보다 西晉의 戶調가 액수가 더 크며, 西晉의 田租는 토지세는 아니지만 계산상으로 畝당 8升을 거둔 것이므로 畝당 4升을 거두던 曹魏보다 2배 무거워졌다(김택민, 1998, 앞의 책, 55쪽).

더 열심히 하고 소를 가지지 않은 자도 보통의 해보다 배나 노동하도록 한다. 一夫는 田 40畝를 경작해야 하고, 中男은 田 20畝를 경작해야 한다. 사람에게 남은 힘이 없게 하고, 땅에 남은 이로운이 없게 하라.⁹⁷⁾

C-2. 무릇 男夫는 15세 이상이면, 露田을 40畝 받는다. (중략) 무릇 백성의 연령이 課에 이르면 受田하고 老免에 이르면 還田한다. (중략) 무릇 처음으로 토지를 받는 자는 男夫 一人에 田 20畝를 지급하고, 桑 50樹, 棗 5株, 榆 3根을 심도록 부과한다.⁹⁸⁾

中은 C-1에 처음 보이는데, 이 太和 원년(477)의 조칙은 연령에 따라 생산량을 할당한 것이었다.⁹⁹⁾ 中男에게 夫의 ½을 할당한 것은 次丁男·丁男의 관계와 동일하므로 연령등급제의 세분화가 경작 의무의 차등적 할당과 관련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당시 北魏는 計口受田制를 실시하였는데, 이 제도에서는 연령의 구분이 불필요했다. 따라서 C-1은 太和 9년(485)에 실시되는 均田제의 과도기적 양상이며, 中의 출현은 均田제와 밀접히 관련된다.¹⁰⁰⁾

北魏에서 丁 위의 次丁이 사라지는 것은 均田제의 授田·還田 규정과 관련이 있다. C-2의 처음으로 토지를 받는 자는 中男(12세)으로 생각되는데,¹⁰¹⁾ 桑田 20무의 할당은 C-1에서 中男에게 20무를 할당한 것과 연결된다. 中男은 15세가 되면 다시 露田을 40무 받아 課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半課를 지는 丁 위의 次丁이 남아있다면 丁男은 해당 연령 때 露田의 절반을 반납하고, 入老 때 나머지를 반납하게 된다. 이런 복잡한 환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老 아래의 次丁은 사라지고, 入老 때 환수하도록 연령등급제가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¹⁰²⁾

西晉이 멸망하고 五胡의 시대가 되자 국가 권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호족의 호적에 붙어 호주로 받들고 비호를 받는 소농민이 늘어났다. 그에 따라 均田제 시행 이전의 北魏에서는 무려 50家, 30家가 호족인 宗主를 내세워 1戶를 이루고 있었고, 그러한 戶를 단위로 租調를 거두었다. 均田제는 이러한 호족 호주의 호를 해체하여 그 객이 되어 있던 소농민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고, 유망하고 있던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소농민 생산의 유지를 도모한 것이다. 그에 따라 稅制도 개편되어 夫婦를 단위로 租調를 부과하게 된다. 50家, 30家の 1戶에서 부부 한 쌍이 과세하게 되었으므로 인신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더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³⁾

한편 기존에 西魏 이래 黃-小-中-丁-老로의 변화는 丁의 기간이 줄어드는 수취의 감경조치로 본 견해가 있었다. 西魏에 주목한 것은 黃이라는 명칭이 西魏代에 처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課役 부담의 측면에서 黃은 小와 차이가 없으므로 ‘小-中-丁-老’와 ‘黃-小-中-

97) 『魏書』 권7上, 高祖紀7上 太和 元年 3月.

98) 『魏書』 권110, 食貨6.

99) 박한제, 2019, 『중국중세 호한체제의 사회적 전개』, 일조각, 45~46쪽.

100) 徐暢, 2011, 앞의 논문, 273쪽.

101) 백운목, 2007, 「北魏 均田制에 있어서 桑田의 民受田對象에 대한 再檢討」, 『역사와 경계』 64, 186쪽.

102) 徐暢, 2011, 앞의 논문, 283쪽.

103) 西嶋定生 저·변인석 편역, 1994, 앞의 책, 199~200쪽 ; 堀敏一 저·김성한 역, 2005, 앞의 논문, 174~203쪽.

丁-老'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 때문인지 西魏보다 후대인 北齊의 令文에도 黃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黃-小-中-丁-老'의 연원은 北魏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 등급	次丁/中	丁	次丁	丁의 課役 부담 기간
西晉	13~15세	16~60세	61~65세	45년+4년(次丁)=49년
東晉	16~19세	20~60세	61~65세	41년+4년(次丁)=45년
劉宋	15~16세	17~60세	61~65세	44년+3.5년(次丁)=47.5년
北魏	12~14세	15~70세		56년
西魏	10~17세	18~64세		47년
北齊	16~17세	18~65세		48년(役은 40년)
北周	?	18~64세		47년(役은 42년)
隋	11~17세	18~59세		42년
唐	16~20세	21~59세		39년

<표-4> 西晉~唐 시기 丁의 課役 부담 기간¹⁰⁴⁾

北魏의 丁은 15~70세로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 따라서 黃-小-中-丁-老의 시행 자체는 강제 조치가 아니다. 北魏를 제외한 다른 북조 국가의 경우도 丁의 기간은 남조 국가에 비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北齊·北周의 丁은 免役 후에도 正課는 여전히 부담하였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隋·唐代에는 丁의 기간이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黃-小-中-丁-老의 틀 안에서 기준 연령을 여러 차례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魏 이래 唐代까지 기준 연령이 여러 차례 변하였음에도 연령등급제의 형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균전제라는 田制 및 그와 결합된 稅制가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¹⁰⁵⁾

지금까지 연령등급제의 형태는 田制·稅制 개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점전·과전제나 균전제는 井田制를 모델로 하여 국가가 인민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토지 정책으로,¹⁰⁶⁾ 그 목적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는 것에 있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신라의 연령등급제 개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는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연령등급제를 개편하였겠지만, 중고기와 달리 형태와 명칭에서 변화를 주었다. 특히 동시기 唐의 연령등급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중국의 연령등급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고 보기 어렵다. 연령등급제와 田制·稅制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신라의 田制·稅制가 개편된 시기는 언제일까. 이를 명확히 알려줄 자료는 없지만

104) 徐暢, 2011, 앞의 논문, 282쪽 참조. 西晉·남조의 次丁은 丁의 1/2로 계산하였으며 북조의 中은 직접적으로 課役을 부담하지는 않았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隋와 唐은 기준 연령에 변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각각 최초의 기록인 開皇 2年令(582)과 武德 7年令(624)을 취하였다.

105) 남조의 여러 국가들은 西晉의 연령등급제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田制 및 稅制까지 동일하게 유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토지제도와 그에 입각한 수취제도가 없었다(박한제, 2015, 『대당제국과 그 유산-호한통합과 다민족국가의 형성-』, 세창출판사, 357쪽). 당시 稅制의 잦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령등급제의 형태가 변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북위 때 균전제라는 새로운 田制 및 稅制가 시행되었고, 연령등급제의 형태도 함께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6) 堀敏一, 1975, 『均田制の研究』, 東京: 岩波書房, 44~45쪽.

신문왕 7년(687)의 官僚田 지급¹⁰⁷⁾과 동왕 9년(689)의 祿邑 폐지·歲租 지급¹⁰⁸⁾ 및 성덕왕 21년(722)의 丁田 지급¹⁰⁹⁾에 주목할 수 있다. 먼저 녹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녹읍은 신라의 관인 급여제도로 특정 지역에 대한 수취권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녹읍에 대한 기존 연구는 수취 범위가 租庸調 모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租에만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에 대한 해명은 이 글의 논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녹읍 폐지를 인신 지배의 강화로 보는 견해¹¹⁰⁾가 있어 주목된다.

녹읍이 처음 지급된 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대략 신라 초기부터 존재하였다면 연고가 있는 지역, 혹은 전통적인 지배기반을 지녀왔던 지역에서의 수취를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¹¹¹⁾ 그런데 신라 중고기에는 주에 군주, 촌·성에는 당주·나두·도사 등의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나 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당주·나두 등의 통제력은 통일기의 태수·현령·소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¹¹²⁾ 이러한 상황에서는 녹읍주가 녹읍민을 사적으로 지배하기 용이하였을 것이다. 후대의 사료이지만 고려 태조의 禮山鎭 조서에는 녹읍주의 가신이 자의적 수탈을 행해도 관리가 보호해주는 현실을 지적한 내용이 있다.¹¹³⁾ 따라서 녹읍민들은 일반 농민에 비해 무거운 부담을 졌을 가능성이 높다.

녹읍 폐지의 목적은 불법적인 수탈을 겪던 녹읍민을 국가의 직접 지배하에 두는 데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신 지배 강화책은 둔전민들을 군현민으로 전환시켜 그 부담을 동일하게 하였던 西晉의 조치와 일견 흡사하다. 신라의 녹읍민들이 曹魏의 둔전민처럼 군현민과 다른 수취 계통에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의 직접 지배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녹읍 효과를 위해서는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가 필수적이었다. 국가의 지배력이 지방에 철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녹읍의 효과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강력히 지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왕 5년(685)에 9주 5소경의 지방제도를 완비한 것은 녹읍 효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¹⁴⁾

신문왕 7년에 신설된 관료전은 녹읍과는 계통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唐의 職田(職分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唐의 직전은 官人永業田과 달리 公田에 해당하는 것으로, 「촌락문서」 A촌의 內視令畝¹¹⁵⁾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시령답은 烟受有田·畝와 다른 범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唐代의 직전은 소작인에게 그것을 빌려주어 경작시키고 수확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소작인은 균전농민 중 희망자를 모르게 되어 있었지만

107)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神文王 7年 5月.

108)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神文王 9年 正月.

109)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21年 8月.

110) 姜晉哲, 1989, 「新羅의 祿邑에 대한 若干의 問題點」, 『韓國中世土地所有研究』, 一潮閣, 71~72쪽 ; 李喜寬, 1999, 『統一新羅土地制度研究』, 一潮閣, 85~86쪽 ; 전덕재, 2006, 앞의 책, 340쪽.

111) 노태돈, 1981, 「統一期 貴族의 經濟基盤」, 『한국사 3 : 고대-민족의 통일』, 국사편찬위원회, 155~161쪽.

112) 전덕재, 2006, 앞의 책, 338쪽.

113)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17年 5月.

114) 李喜寬, 1999, 앞의 책, 86쪽.

115) “合畝百二結二負四束【以其村官謨畝四結 內視令畝四結】 烟受有畝九十四結二負四束【以村主位畝十九結七十負】”(『촌락문서』 A촌).

실제로는 지방관이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¹¹⁶⁾ 요컨대 관료전은 국가의 개입 하에 佃戶制的 경영이 이루어진 토지로, 특정 지역의 수취권을 준 녹읍과는 성격이 다르다.

관료전 지급의 역사적 의미는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 분급제가 정비되었다는 것에서 들 수 있다. 율령제는 황제를 기점으로 계층적 서열을 구분 짓는 것이며 토지제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¹¹⁷⁾ 唐의 직전은 田令의 규정에 따라 품계를 나누어 지급되었다. 신라의 관료전 역시 문무 관료에게 차등적으로 나누어준 것을 볼 때 율령제적인 토지제도로 볼 수 있다.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제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장악하는 국가 관료기구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北魏의 경우에도 太和 5년(481) 민중에 접하는 주자사·군태수 이하의 지방관에게 공전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3년 후에는 중단되어 있던 관인의 봉록제를 부활시킨 바 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비로소 균전제가 반포되었다.¹¹⁸⁾ 신라가 관료전 지급·녹읍 폐지·歲租 지급을 통해 관인 급여제를 정비한 것 역시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신문왕대에는 이렇게 활발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녹읍 폐지 이후로는 별다른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종래의 특권을 잃게 된 귀족들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동왕 9년에 달구벌 천도가 무산된 것¹¹⁹⁾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¹²⁰⁾ 그 결과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제도의 성립은 후대로 미뤄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신문왕대의 정책적 흐름에서 볼 때 백성에 대한 토지 분급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 분급은 성덕왕 때의 丁田 지급을 통해 실현되었을 것이다. 丁田 지급의 의미에 대해 균전제의 실시로 보는 견해¹²¹⁾도 있으나, 그 실상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대개의 경우 새로운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농민이 가지고 있던 농토를 국가가 인정하여 수취의 확보를 기도하거나, 통일 전쟁 이래 폐허화 된 황무지를 분배하여 강제적 경작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¹²²⁾ 군사적 방비를 위해 북방개척지역의 토지를 나누어주었던 屯田의 성격을 지닌 토지로 보거나,¹²³⁾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일회적으로 황무지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²⁴⁾

丁田 지급 기사가 소략하여 그 내용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나, 특히 실제적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논지 전개에 한계는 있으나 토지의 실제적

116) 堀敏一 저·김성한 역, 2005, 앞의 논문, 198쪽 ; 위은숙, 2019, 「고려 전기 田令의 구성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72, 26~27쪽. 일본의 직전은 중앙관에게는 3위 이상의 고관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차이가 있지만, 경영 방식은 唐과 유사하였다.

117) 김기섭, 2012, 「高麗·唐·日本의 國家的 토지분급제와 토지법」, 『역사와 세계』 41, 188쪽.

118) 堀敏一 저·김성한 역, 2005, 앞의 논문, 178쪽.

119)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神文王 9年.

120) 李喜寬, 1999, 앞의 책, 226~227쪽.

121) 박시형, 1960, 앞의 책, 132~144쪽 ; 兼若逸之, 1979, 앞의 논문, 69쪽 ; 한준수, 2012, 『신라중대 율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178쪽.

122) 姜晉哲, 1965, 「韓國土地制度史上」, 『韓國文化史大系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1980,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學校出版部, 1~17쪽 ; 림건상, 1977, 「신라의 정전제에 대하여」, 『력사과학』 4, 27~29쪽.

123) 박찬홍, 2001, 앞의 논문, 76~82쪽.

124) 전덕재, 2006, 앞의 책, 272쪽.

지급 여부에 주목해보려 한다. 먼저 기존 신라 영역에 속하는 토지의 권리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北魏의 경우도 유망하던 농민이 향리로 돌아갈 때 토지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빈발하였는데, 명확히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위에 균전제를 시행하였다.¹²⁵⁾

하지만 기존 신라의 영역에도 전란으로 인한 미개간지는 상당하였을 것이다. 西晉의 점전·과전제 시행도 아직 전란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도처에 산재하던 황무지를 개간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¹²⁶⁾ 관련하여 문무왕 이래로 실시된 量田의 과정에서 無主地·陣田이 파악되었고, 그것에 대해 丁男을 주 대상으로 경작을 명령하는 課田을 실시한 것을 丁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²⁷⁾ 신라 정부에서 무주지나 황무지에 대한 경작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점유를 인정하였다면, 그것 역시 丁田 지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신라가 새로이 확보한 고구려·백제 토지의 귀속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는 기록은 없지만 기존 고구려·백제 백성들의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신라 정부가 새로 확보한 고구려·백제 토지의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만들어 둔전과 유사하게 전호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성덕왕대에 재분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 역시 새로 지급된 丁田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하여 경덕왕 14년(755) 웅천주의 向德은 효행으로 口分田 약간을 받았다.¹²⁸⁾ 이는 당 시에도 구분전을 줄 수 있는 田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⁹⁾ 또 구분전은 균전제의 地目이기 때문에 당시 신라에서 균전제가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¹³⁰⁾ 이 구분전에 대해서는 일반 농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던 당의 구분전과 다르게 포상으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6품 이하 관료의 미망인, 퇴역한 연로 군인 등에게 지급한 고려 전기의 구분전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¹³¹⁾ 하지만 지급 대상의 측면에서 향덕과 미망인·군인 등을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향덕이 포상으로서 일반적 地目인 구분전을 추가로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신라의 일반 농민에게는 구분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당시 신라 정부에게는 새로운 토지를 지급할 만한 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丁田 지급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지급 여력이 충분했다면 반복적인 授田과 還田 역시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때 새로 지급되는 丁田과 기존의 백성 보유지가 합쳐져 「촌락문서」의 烟受有田·畝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¹³²⁾

丁田은 그 명칭상 丁과의 관련성이 높지만, 丁에게만 경작 의무가 할당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西晉·北魏의 사례에서 이미 보았지만, 일본의 경우도 丁 이외에 中과 老 역시 課의 대상이었다. 단지 국가의 핵심적인 수취 대상이 丁이었기 때문에 丁田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것이다. 「촌락문서」에서 ‘受有田·畝’의 주체가 丁이 아니라 烟인 것도 丁만이 受田의 주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丁田 지급의 의미를 연령에 따라 경작의 의

125) 堀敏一 저·김성한 역, 2005, 앞의 논문, 196~197쪽.

126) 김택민, 1998, 앞의 책, 54쪽.

127) 김기홍, 1991, 앞의 책, 209~210쪽.

128) 『三國史記』 권48, 列傳8 向德.

129) 김기홍, 1991, 앞의 책, 210쪽.

130) 한준수, 2012, 앞의 책, 177쪽.

131) 姜晋哲, 1980, 앞의 책, 90~98쪽.

132) 김기홍, 1991, 앞의 책, 209쪽.

무를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때 稅制와 연령등급제도 개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성덕왕대에 丁田制가 실시된 배경은 무엇일까. 백성에 대한 토지 분급은 신문왕대 이래로 이어진 정책 기조인 인신 지배의 강화를 완성하는 조치이지만, 특히 성덕왕대에 災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¹³³⁾ 이렇게 재해가 계속되면서 유망하는 농민이 늘어났을 것이며, 이들이 대토지소유층에 예속되는 경우도 상정된다.¹³⁴⁾ 이는 자연히 조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을 것이다.

신라 정부는 유망하는 소농민을 장악하기 위해 토지에 긴박시켜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를 위해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는 새로운 토지를 지급하거나 개간 사업·사민 등을 통해 황무지·공유지에 대한 경작의 의무를 부과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⁵⁾

요컨대 신문왕 때의 관료전 지급에 이어 성덕왕대의 丁田 지급이 더해져 관인과 백성을 아우르는 율령제적 田制가 완비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唐의 균전제 역시 농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인, 상공인, 종교인, 천인 신분에 이르기까지 동일 신분 내의 균등소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¹³⁶⁾ 녹읍 폐지의 목적은 개별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배에 있었으며, 그것은 丁田制 시행을 통해 완성될 수 있었다. 그 결과 稅제도 개편되어 唐과 같이 개별 인신 단위로 균액의 租調를 부과하였고 연령등급제 역시 개편되었을 것이다. 다만 西晉에서도 調의 경우 戶調制로 거둔 것을 보면 調는 인두세로 수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춘락문서」에서 戶口의 수와 토지 면적이 대응되지 않는 점¹³⁷⁾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춘락문서」의 농민은 모두 동일한 白丁 농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춘락문서」의 촌민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연령등급뿐이며, 촌주 외에는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도 없다. 「춘락문서」의 농민 사이에 계층분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라면, 균전제가 시행되었더라도 그들의 토지 소유는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唐 전기에 실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 地稅를 징수한 사실도 참고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액이 동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均田의 支配’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세목이었다.¹³⁸⁾ 토지 소유가 획일화된 ‘균전 소농’과 같은 존재는 어디까지나 이념적인 것이며, 신라에서도 여러 가지 세목을 통해 인두세의 한계를 보완하려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烟受有田·畚’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烟이 받아가진 전답’으로, 국가로부터 소유

133) 『三國史記』 신라본기를 보면 성덕왕 4, 5, 6, 8, 13, 14, 15, 19년에 災異 관련 기사가 나타난다 (한준수, 2012, 앞의 책, 170쪽). 이 점은 尹善泰, 2005,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教 信仰結社」, 『新羅文化』 26, 120~121쪽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134) 北魏에서 균전제가 시행될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李安世는 ‘백성이 곤궁하고 굶주려 유랑하고 흩어졌으며, 豪右들의 占奪이 잦았다’고 설명하고 있다(『魏書』 권53, 列傳41 李孝伯 李沖).

135) 이경식, 2005, 앞의 책, 124쪽. 이보다 앞선 시기이기는 하지만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神文王 5年 3月조에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라 하여 주군의 백성들을 남원소경으로 사민한 사례가 보인다. 소경 이외에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유사한 방식으로 사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136) 渡邊信一郎, 2010, 「古代中國の身分制的土地所有」, 『중국고중세사연구』 24, 315쪽.

137) 旗田巍, 1972, 앞의 책, 423~457쪽.

138) 박근칠, 1997, 「唐 前期 地稅 징수와 靑苗簿 작성의 의미」, 『한성사학』 9, 43~45쪽.

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³⁹⁾ 하지만 신라 목간의 ‘受’는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곡물의 受納이나 축성 같은 임무·명령의 受領의 의미가 있다.¹⁴⁰⁾ 이는 의무의 할당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有田’이라는 표현은 秦簡에서 보이는데, 국가가 분급한 토지를 백성이 경작하는 상태 이상을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었다.¹⁴¹⁾ 따라서 ‘烟受有田·畝’도 국가가 烟에게 (경작) 의무를 할당한 전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국가적 토지분급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앞서 보았듯이 ‘烟受有田·畝’에는 기존의 백성 보유지 외에 새로이 지급되는 丁田이 포함되었는데, 후자는 소유보다는 점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사의 사례를 통해 연령등급제의 세분화는 율령제적인 토지제도 및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인두세의 시행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신라 역시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구체적인 시점을 丁田이 지급된 성덕왕 21년(722) 무렵으로 추정해보았다. 이로써 助와 除가 추가된 배경·시기는 명확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신라에서만 보이는 追가 추가된 이유는 아직 알기 어렵다. 또 追는 물론이고 助와 除 역시 次丁으로 표현되지 않는 탓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지고 있었는지도 해명되지 않았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追·助·除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촌락문서」에 보이는 追·助·除의 의미와 성격

이 글의 주된 관심은 「촌락문서」의 여러 내용 중 하나인 연령등급제이다. 따라서 문서와 관련된 방대한 연구 성과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령등급의 성격을 밝히기에 앞서, 글의 전체적인 논지와 「촌락문서」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Ⅲ장에서 신라의 연령등급제 개편을 개별인신적 稅制의 성립과 관련지었다. 따라서 문서에서 수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計烟의 기능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촌락문서」의 계연은 下中烟~中上烟에 1/6, 2/6, 3/6, 4/6, 5/6, 1의 가중치를 설정한 후 등급연의 수와 곱하여 합계를 낸 뒤에 다시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그 몫과 나머지를 표기한 것으로,¹⁴²⁾ 호등제와 관련이 있다. 문제는 계연을 통해 수취한 대상인데, 「촌락문서」에는 <그림-1>의 西魏 문서와 같이 計租, 計布의 구분은 보이지 않고 計烟만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신라에서는 호등제가 租調를 포함한 수취 전반에 관련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¹⁴³⁾ 논증 방법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하게 통일신라에서는 戶調制와 같은 稅制가 실시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¹⁴⁴⁾

「촌락문서」의 계연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주해온 烟은 3년간 호등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139) 이인철, 1996, 앞의 책, 230쪽.

140) 이용현, 2006, 『월성해자 발굴조사 보고서 II-고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71쪽.

141) 李成珪, 1984,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 一潮閣, 95~101쪽.

142) 이태진, 1979, 「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孔烟」, 『韓國史研究』 25, 46~47쪽.

143) 尹善泰, 2000, 앞의 논문, 1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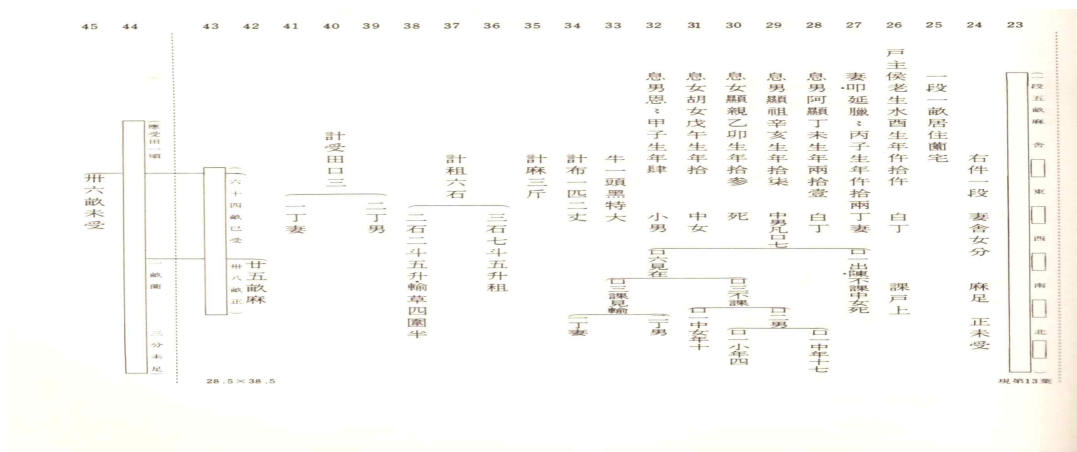
144) 전덕재, 2006, 앞의 책, 434쪽.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들은 문서 내에서 다른 단서 없이 ‘三年間中收坐內烟’ 혹은 ‘收坐內烟’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烟이 이주해온 경우 실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호등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계연과 호등에는 추기를 통한 수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외연은 문서의 작성 주기인 3년간 호등을 통해 징수되는 부문이 면제되었을 것이다.

관련하여 동시기 唐과 일본에서는 협향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향으로 이주한 경우 이동해온 거리에 따라 課役을 면제(復)하였다.¹⁴⁵⁾ 여기서의 사람은 개별인이 아닌 戶 전체를 의미한다.¹⁴⁶⁾ 課役이 면제되는 기간은 이동해온 거리가 1000리 이상인 경우 3년, 500리 이상이면 2년, 300리 이상이면 1년으로 서로 달랐다.¹⁴⁷⁾

「촌락문서」에서도 인구의 이동이 보이므로 신라에도 협향·관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⁴⁸⁾ 따라서 신라 역시 관향으로의 이주에는 혜택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唐·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주해온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烟에게 일괄적으로 3년씩 課役을 면제해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외연은 호등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수취 단위인 孔烟으로서는 편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課役 부담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촌락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등외연이 군역으로 생각되는 余子·法私에 징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시기 唐에서는 租調額이 호등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戶 내의 丁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호등제는 役 징발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¹⁵⁰⁾ 특히 唐에서 병사는 3년에 1번 선발하였다.¹⁵¹⁾ 따라서 만약 신라 호등제의 기능이 唐의 그것과 유사하였다면, 「촌락문서」의 등외연이 3년간 병사에 징발되지 않는 것은 자



<그림-1> 西魏 大統 13년 문서의 計布, 計租¹⁴⁹⁾

145) 『唐律疏議』 권4, 名例36-3에서 “詐復除者 謂課役俱免 (후략)”라 하여 復除를 사칭하여 課役을 모두 면제받는 경우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146) 『令義解』 권3, 賦役令10.

147) 仁井田陞, 1964, 『唐令拾遺』,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賦役令 15, “諸人居狹鄉 樂遷就寬鄉者 去本居千里外復三年 五百里外復二年 三百里外復一年 一遷之後 不復更移”.

148) 한준수, 2012, 앞의 책, 179쪽.

149) 池田溫, 1979, 『中國古代籍帳研究: 概觀·錄文』,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57쪽.

150) 박근칠, 1996, 「唐代 籍帳制의 運營과 收取制度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8~131쪽.

151) 『唐六典』 권5, 尙書兵部, “凡兵士隸衛 (중략) 凡三年一簡點”.

연스럽다. 반대로 문서 내에서 등외연이 租調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요컨대 「촌락문서」의 등외연은 호등이 없으나, 당시 신라의 租調額은 호등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租調를 부담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군역의 경우 호등이 없는 등외연은 후순위가 되어 3년간 그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 호등제의 기능이 唐과 유사했다면, 稅制 역시 唐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曹魏를 필두로 하여 주로 혼란기에 戶調制가 실시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촌락문서」에는 연령등급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연령은 없으므로 3년 후에 연령등급이 변동되는 대상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촌락문서」만으로는 다음 式年의 문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별도의 호적이 참고되었을 것이다.¹⁵²⁾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租庸調額은 호적류의 문서를 통해 파악되고, 거기에 計租·計調의 수치가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촌락문서」가 신라의 율령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가령 문서가 특수한 촌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면 이를 통해 신라의 제도를 추정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서의 촌이 특수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촌에만 적용되는 연령등급제가 별도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신라의 일반적인 촌에서는 18세를 丁으로 파악하였으나, 특수한 촌에서는 助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파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촌락문서」의 연령등급제는 신라의 율령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며, 이 점을 전제로 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단 小·丁·老는 중국·일본에서도 보이는 연령등급으로, 그 성격에 대한 이견도 적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워 기존에 논의가 분분하였던 追·助·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일본 養老令의 연령등급제에 보이는 耆는 중국에서는 연령등급의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없지만, 『禮記』에 의하면 60세를 의미한다.¹⁵³⁾ 『예기』와 養老令의 老·耆는 순서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지만, 耆라는 용어의 연원 자체는 『예기』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追·助·除 역시 경전의 용례에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문제는 小·丁·老·耆와 달리 追·助·除는 연령을 의미하는 용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비교적 수취와 관련된 용례에 자주 보이는 除의 경우 課役 제도에서의 ‘면제’라는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追·助 역시 課役 제도에서 해당 연령층의 역할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유념하여 사서·경전 등에서 수취와 관련된 追·助·除의 용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촌락문서」에서 烟과 인구를 파악하고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D-1. 사람은 합하여 125명인데, 이 중 예부터 있었던 사람과 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합하면 118명→117명이다. 丁은 31명→30명 【奴가 4명】, 助子는 5명, 追子는 2명, 小子는 2명, 3년 사이에 태어난 小子는 3명, 老公은 1명이다. 丁女는 45명 【婢가 3명】, 助女子는 4명, 追女子는 13명, 小女子는 6명, 3년 사이에 태어난 小女子는 3명, 除母는 1명, 老母는 2명이다.

D-2. 공연의 합은 15, 계연은 4, 여분은 2인데, 이 중 仲下烟이 1 【余子】, 下上烟이 2

152) 전덕재, 2006, 앞의 책, 224~225쪽.

153) 『禮記』 「曲禮」上, “人生十年曰幼 學 二十曰弱 冠 三十曰壯 有室 四十曰強 而仕 五十曰艾 服官政 六十曰耆 指使 七十曰老 而傳”.

【余子】，下仲烟이 5【모두 余子】，下下烟이 6이고【余자가 5，法私가 1】 3년 사이에 거두어 았힌 연이 1이다.

D-1에서 丁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助라는 점과 小의 성격을 고려할 때 子 계층의 연령은 助→追→小 순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除의 경우 대체로 老 아래의 연령등급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三疾者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老의 뒤에 붙은 公은 고연령자에 대한 존칭으로 생각된다. 三疾者는 고령층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존칭을 붙여 除公이라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除는 老와 유사한 고연령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⁴⁾ 양자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한편 D-2의 余子和 法私는 等外烟인 하나의 ‘三年間中收坐內烟’을 제외한 14개의 等級烟에서 징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余子는 법당 군단 중 餘甲幢과 같이 余라는 명칭을 가진 부대에, 法私는 법당 군단 자체에 징발된 것으로 보는 견해¹⁵⁵⁾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여갑당은 법당 소속의 일개 군호이므로 余子和 法私의 구분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며 余子는 餘丁으로서 正丁인 법당 군단의 法私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집단으로 보는 견해와¹⁵⁶⁾ 余子·法私는 법당 군단과는 무관하며 余子는 「촌락문서」의 ‘余分’의 설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분에 상당하는 力役負擔者’, 法私는 ‘신라의 국법에 기초하여 특히 왕실에 출사하여 잡역 등을 부담하는 역역 종사자’로 보는 견해¹⁵⁷⁾도 있다. 논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余子·法私가 연령상으로 丁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공통적이다.

위와 다른 관점에서 B촌의 當式年 인구수를 분석하여 余子·法私를 小子·追子和 관련지어 본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서는 余子が 『周禮』 小司徒條의 餘子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B촌에서 丁이나 小女子·追女子의 인구 비율은 다른 촌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小子·追子の 인구 비율이 유독 낮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인구 비율에 대해서는 余子·法私는 小子와 追子 중에서 징발하였고, 이들이 일시적으로 촌의 인구과약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다만 小子와 追子は 그 연령상 병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余子는 군사를 포함한 훈련을 통해 장래의 군역·부역 부담자를 양성하는 제도로 화랑과 관련되었다고 추정하였다.¹⁵⁸⁾

154) 浜中昇, 1986, 앞의 책, 53쪽.

155) 旗田巍, 1972, 앞의 책, 432~434쪽.

156) 武田幸男, 1984, 「中古新羅の軍事的基盤 -法幢軍團とその展開-」,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と農民』, 山川出版社, 250쪽.

157) 木村誠, 2006, 「統一期新羅村落支配の諸相」, 『人文學報』 368, 8~15쪽.

158) 明石一紀, 1975, 「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 『日本歴史』 322, 27~28쪽.

등급 촌	A	B	C	D
助子	7명	6명	2명	9명
追子	13명	2명	8명	8명
계	20명	8명	10명	17명
1烟당 평균	1.8	0.5	1.3	1.7

<표-5> 「촌락문서」 각 촌의 追子·助子の 수와 1烟당 평균

등급 촌	A	B	C	D	계
小·追·助	69명	41명	36명	56명	202명
丁·除·老	69명	77명	36명	53명	235명
계	138명	118명	72명	109명	437명

<표-6> 小·追·助 3계층과 丁·除·老 3계층의 합계인구¹⁵⁹⁾

<표-5>에서 追子の 인구수가 적은 것은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표-6>에서 다른 3촌의 인구 비율을 볼 때 B촌의 인구비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미성년계층에 대한 징발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助 역시 余子の ‘子’를 공유한다는 점이나, 小의 성격이 ‘不事’라는 점을 고려하면 余子は 追子와 助子를 대상으로 징발한 것이 아닐까 한다. 小子·追子와 달리 助子の 수는 다른 촌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니나 그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余子로 징발된 13인 중 助子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마도 烟別로 追子 혹은 助子가 余子로 징발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우선 追子와 余子の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 余子の 성격에 대해서는 『주례』의 餘子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하여 ‘부역을 일으킬 때 1인만을 징발하고 나머지(餘)는 羨으로 삼으며 大故가 있을 때 餘子를 징발한다’라고 하였다.¹⁶⁰⁾ 大故는 災寇, 즉 재해와 도적을 의미한다.¹⁶¹⁾ 따라서 餘子は 正卒이 아닌 羨卒로서 유사시에만 징발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餘子와 追는 어떻게 연결될까. 신라 당대의 자료나 『삼국사기』 등에서는 追가 수취와 관련된 용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고려사』·『세종실록』 등에 추가적인 징수를 의미하는 ‘追徵’의 용례가 있다. 예를 들어 『고려사』에는 지난해의 貢賦를 追徵하였다는 기록¹⁶²⁾이 있고 『세종실록』에도 부족한 식량¹⁶³⁾이나 사료¹⁶⁴⁾를 追徵하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용례

159) 浜中昇, 1986, 앞의 책, 53쪽.

160) 『周禮』「地官 小司徒」, “凡起徒役 毋過家一人 以其餘爲羨 唯田與追胥竭作 凡用衆庶 則掌其政教與其戒禁 聽其辭訟 施其賞罰 誅其犯命者 凡國之大事 致民 大故 致餘子”.

161) 『周禮』「地官 小司徒」 鄭玄註.

162) 『高麗史』 권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 “忠惠王後四年七月 追徵各道往年貢賦 餘美縣吏 不堪其苦 遂自刎”.

163) 『世宗實錄』 권28, 7年 6月 23日 辛酉, “教旨 中外掌錢穀官吏 辛丑年以前虧欠及辛丑年以後鼠損物色 竝勿追徵 京外國庫辛丑年以上分給未納豆米雜穀 各因受者未納 元數減三分之一 內資 內贍

를 고려하면 追는 丁에 대한 추가적, 보충적인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촌락문서」의 작성 당시 余子가 징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촌락문서」의 작성 연대¹⁶⁵⁾를 판단할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Ⅲ장에서 보았듯이 烟에게 경작 의무가 할당된 ‘烟受有田·畓’이라는 표현은 722년의 丁田 지급 이후로 성립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편 『삼국사기』 헌덕왕 7년(815)조에는 ‘서쪽 변경 州郡에 도적이 출몰하여 토벌하였다’¹⁶⁶⁾는 기사가 있다. 여기서의 서쪽 변경 주군은 百濟故地 일대로 생각된다.¹⁶⁷⁾ 그런데 「촌락문서」는 當縣·서원경 소속의 4개 촌에 대한 기록의 필체가 모두 같으므로 그 작성 주체는 서원경과 당현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웅천주 혹은 중앙정부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백제고지 일대에서 일어난 도적 진압을 위한 B촌에서의 징집은 이상하지 않다. B촌의 余子에는 815년 당시 도적 토벌을 위해 징집된 추가적인 병졸인 追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촌의 인구 파악에서 제외되어 B촌에서 특히 追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追의 시작 연령을 10세 전후로 보았으며, 小와 구분되는 특징에 대한 제시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이상에 의하면 追는 유사시에는 군역을 수행해야 했다. 유사시라 하더라도 10세를 전후한 연령이 군역을 담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追의 시작 연령은 통일 이전의 成丁 연령이었던 1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助의 의미에 대해 검토해겠다. 「촌락문서」의 표기 순서로 볼 때 助는 연령상 追와 丁 사이의 집단이다. 따라서 助 역시 追와 마찬가지로 余子와 같은 추가적 내지는 보충적인 병졸로 징발되었을 것이다. 助와 追를 모두 丁의 보충 집단으로 이해한 견해는 기존에 이미 제기된 바 있으며, 助라는 글자 자체에 이와 어울리는 ‘輔助’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追와 구분되는 助의 역할이 모호하게 되어 버린다.

助가 수취와 관련되어 쓰인 용례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은 『孟子』滕文公條에 나오는 殷·周의 收稅法인 ‘助法’이 있다. 여기서 助의 의미에 대해 맹자는 ‘藉’라고 했고,¹⁶⁸⁾ 『孟子集注』에는 빌린다(借)는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¹⁶⁹⁾ 옛날에 제후는 직접 경작하지 않고 백성

織婢役苦 分三番遞役 外方選上奴子 亦令放送”.

164) 『世宗實錄』 권28, 7년 8월 22日 戊子, “典廐署 禮賓寺爲羊猪料 於高陽縣 皆置農場 其種子口糧之費多 而所收反少 且其所收 皆以縣民輸之 如或虧欠 隨即追徵 此實他邑所無之事 而本縣獨受其弊 請除縣民 令兩司奴子輸轉”.

165) 「촌락문서」의 ‘烟受有田·畓’을 성덕왕 21년(722)의 丁田과 연관지은 견해(旗田巍, 1972, 앞의 책, 423쪽)가 제기된 이래, 작성연대를 주로 755년이나 815년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문서의 ‘壹月’ 표현과 정창원 입고 과정에 주목한 견해에서 695년설을 제기하며, 755년에는 신라에서 年 대신 載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촌락문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尹善泰, 2000, 앞의 논문, 21쪽). 따라서 현재는 695년설과 815년설이 주로 대립하고 있는데, 서체(尹善泰, 2017, 「新羅村落文書 중 ‘妻’의 書體 -문서의 작성연대와 관련하여-」, 『목간과 문자』 18, 79쪽)·이두 표기(박남수, 2021, 「「신라촌락문서」의 인구통계와 그 작성 시기」, 『신라사학보』 52, 171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다.

166)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7년 8월.

167) 武田幸男, 1976, 「新羅の村落支配 -正倉院所藏文書の追記をめぐって-」, 『朝鮮學報』 81, 249쪽.

168) 『孟子』, 「滕文公章句上」,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 徹也 助者 藉也”.

169) 『孟子集注』, 「滕文公章句上」, “藉 借也”.

의 힘을 빌렸으므로 그 田地를 藉田이라 했고, 이 藉田의 경작을 藉라고 하였다.¹⁷⁰⁾ 즉 助는 단순히 ‘돕다’라는 의미만 가지지 않고, ‘경작’과 연결되는 용례가 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빌린다는 의미는 아니며 노동력을 빌린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助를 ‘돕다’라는 의미로만 볼 경우 해당 연령층이 돕는 대상은 무엇인지, 국가에 대해 어떤 부담을 지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노동력을 빌리다’라는 의미로 볼 경우 助의 연령대에 처음으로 경작의 의무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작의 의무에 따라 특정한 稅額 역시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助의 의미가 이상과 같다면, 追에게는 경작의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追는 유사시에 병졸로 징발되는 것 외에 평시에는 課役의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助는 평시에도 丁보다는 가벼운 수준의 課役을 부담했을 것이며 이것이 追와 助가 구분되는 지점이다. 助는 次丁일 수도 있으나 일본에서 中이 老의 半課를 부담한 사례를 고려할 때 助의 부담이 除 혹은 老보다는 적었을 수도 있다. 助의 정확한 부담액은 추후의 과제이다.

助는 追와 마찬가지로 유사시에 余子로 징발될 수 있다. B촌의 경우 징발 당시에 助子는 없고 追子만이 있는 烟이 많았기 때문에 追가 다수 징발되었을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助가 다른 연령등급과 구분되는 특징은 경작 의무의 첫 할당이며, 유사시에 余子로 징발되는 것이 아니다.

助의 연령대 추정을 위해 먼저 「촌락문서」 단계의 成丁 연령을 확정해보려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촌락문서」 단계의 成丁 연령은 20~21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成丁 연령을 20세로 본 경우 『소품방』·『예기』 등이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신라에서 이들 서적의 연령 관련 명칭을 사용한 것도 아닌 만큼, 타국의 율령보다 우선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동시기 唐과 일본의 예에 따라 21세로 본다. 成丁 연령이 21세라면 除는 18세~20세의 3년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北魏나 唐에서 中이 受田하는 연령은 成丁 연령과 3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調로 납부할 桑이 열매를 맺는데 3년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¹⁷¹⁾ 그러한 사정은 신라에서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除는 사서나 율령 조항 등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復除’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令義解』 職員令에서도 復을 復除로 설명한다. 復除는 최초에는 役의 免除만을 의미했으나, 중국 사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비단 役의 免除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며 課役의 면제 모두에 쓰이고 있다.¹⁷²⁾ 그리고 II장에서 보았듯이 연로한 丁이 入老 이전에 免役된 경우에도 여전히 丁으로서 正課를 부담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役만 면제되는 집단이 연령등급으로 성립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除를 役만 면제되는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除라는 명칭은 신라에서만 보이나, 노년층을 次丁과 免課役 집단으로 세분화한 사례는 중국과 일본에도 있다. 따라서 除는 신라에만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며, 신라의 除와 老 역시 次丁과 免課役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次丁과 같이 課役이 모두 부분적으로 감면된 집단일 가능성도 있지만 부분적 감면의 의미로 復除가 사용된 용례를 찾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촌락문서」의 除는 課役이 모두 면제되는 최고령층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70) 楊伯峻, 1980, 『孟子譯注』, 中華書局, 144~145쪽.

171) 백운목, 2007, 앞의 논문, 185쪽.

172) 박건주, 1994, 앞의 논문, 121쪽.

한다. 앞서 보았듯이 「촌락문서」에서 연령등급의 기재 순서는 子 집단의 경우 助→追→小의 순서로 적고 있으며 公 집단은 除→老 순서이다. 이는 수취와의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보기도 하지만 단순히 연령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적었다고 볼 수도 있다.¹⁷³⁾ 수취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次丁인 除가 老보다 앞에 기재된 것이라면, 除가 ‘不事’인 小子보다 뒤에 적히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美濃國 호적에서는 丁 바로 위의 연령등급인 次丁이 丁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次丁에 대한 수취가 확실히 이루어진 일본과 달리 신라에서는 除에 대한 수취가 사라지고 있었으며, 이후 除는 老에 흡수되어 唐의 黃-小-中-丁-老로 개편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⁷⁴⁾ 하지만 이 경우 신라에서 수취가 확실히 행해지던 助·追가 中으로 합쳐질 만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次丁인 신라의 老가 일본과 달리 小子보다도 뒤에 기재된 것은 그들을 子·公으로 따로 분류한 「촌락문서」의 기재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촌락문서」의 기재 순서만으로 수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표-7>에서 「촌락문서」의 인구수를 보면 남녀 모두 除의 수가 老보다 적다. 老가 최고령층이라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통일기의 전쟁으로 젊은 남성들이 많이 희생된 결과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⁷⁵⁾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았을 여성도 老가 더 많기 때문에 따르기 어렵다. 단순히 除가 老보다 고연령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除의 수가 더 적은 것일 수도 있다.¹⁷⁶⁾

II장에서 통일 이전의 신라에는 최고령층으로 老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았는데, 통일 이후의 老는 기존의 免課役 집단에서 次丁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일본에서는 중국과 달리 老가 次丁인 점¹⁷⁷⁾을 볼 때 신라와 일본의 교류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신라의 老가 次丁이라면, 그 연령은 61~65세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일본에서 노년층을 次丁과 免課役 집단으로 세분한 경우, 丁 위의 次丁의 연령은 모두 61~65세였다. 丁 위의 次丁은 丁 아래의 次丁에 비해 감면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에 시기와 국가의 편차가 존재함에도 그 연령이 변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신라의 老 역시 61~65세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除의 연령은 66세 이상이 될 것이다.

173) 浜中昇, 1986, 앞의 책, 53~56쪽.

174) 尹善泰, 2000, 앞의 논문, 167쪽.

175) 이현숙, 2009, 앞의 논문, 34쪽.

176) 丁 위의 次丁이 대략 5년 정도의 기간에만 해당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次丁인 除보다 老의 연령 범위가 훨씬 넓었기 때문에 老의 수가 더 많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촌락문서」 상에서 3세를 넘긴 아이의 평균수명이 50세 전후였다는 견해(兼若逸之, 1980, 「新羅『均田成冊』에서推定되는 平均壽命」, 『한국사연구』 30, 32쪽)를 참고하면 老의 연령 범위가 더 넓다는 점만으로 그 수가 더 많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177) 『令義解』 권2, 戶令8, “凡老殘 並爲次丁”.

등급 \ 촌	A	B	C	D	계	%
除公	1명	-	-	-	1명	0.2%
除母	1명	1명	-	-	2명	0.5%
老公	-	2명	-	2명	4명	0.9%
老母	1명	2명	1명	-	4명	0.9%

<표-7> 「촌락문서」 除·老의 인구 비율¹⁷⁸⁾

신라에서 연령등급제를 개편할 때 次丁과 유사한 집단인 助가 있음에도 예비적인 군졸의 성격을 가지는 追까지 두어 미성년층을 세분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신라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다. 신라와 일본이 노년층을 세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唐과의 인구 규모 차이를 지적한 견해가 있다.¹⁷⁹⁾ 하지만 미성년층의 인구 격차가 신라만의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하여 신라의 통일 전쟁 과정에서 사다함·관창 등 대략 15~16세의 화랑들이¹⁸⁰⁾ 큰 역할을 수행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통일 전쟁기의 경험으로 인해 신라에서는 해당 연령층을 유사시에는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잔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화랑을 예비적인 병졸로 이해하기도 하는데,¹⁸¹⁾ 앞서 追를 비슷한 성격으로 보았다. 「촌락문서」의 촌민들이 화랑 그 자체로 선발된 것은 아니지만, 成丁 연령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5세부터 예비적인 병졸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화랑제도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新羅	小		追	助	丁	老	除
	1~14세		15~17세	18~20세	21~60세	61~65세	66세~
唐	黃	小	中		丁	老	
	1~3세	4~15세	16~20세		21~59세	60세~	
日本	黃	少	中		丁	老	耆
	1~3세	4~16세	17~20세		21~60세	61~65세	66세~

<표-8> 신라·당·일본의 연령등급제 비교

이상 신라에만 보이는 명칭인 追·助·除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각 연령층의 부담에 대해 추정해보았다. 그런데 次丁男은 半丁이라는 의미 그대로 丁男의 半額을 부담한 것과 달리 次丁女는 그렇지 않았다. 半丁이라는 의미가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즉 연령등급의 명칭은 남성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追·助·除의 의미를 통해 여성의 부담까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三國史記』 지은전에 의하면, 30세 정도였던 지은의 효행에 왕이 征役을 復除해주었다고 한다.¹⁸²⁾ 따라서 신라에서는 丁女가 특정한 課役을 부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次丁女의 사례를 볼 때 丁女 외의 연령대는 課役의 부담이 없었을 가능성이

178) 旗田巍, 1972, 앞의 책, 437쪽.

179) 이현숙, 2009, 앞의 논문, 16쪽.

180) 三品彰英 저·이원호 역, 1995, 『新羅花郎의 研究』, 集文堂, 49쪽.

181) 이기백, 1999, 『한국사신론』, 일조각, 72쪽.

182) 『三國史記』 권48, 列傳8 知恩, “大王聞之 亦賜租五百石家一區 復除征役”. 여기서의 復除도 役에만 해당한다거나 부분적인 면제로 보기는 어렵다.

높다.

신라의 연령등급제는 722년의 丁田 지급을 계기로 개편되었지만, 815년까지 田制나 稅制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현상이 『춘락문서』에도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려사』를 보면 丁과 老의 표현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마저도 연령등급제에 의거한 戶口 파악이 아닌, 役의 징발 대상 연령을 규정한 정도로 생각된다.¹⁸³⁾ 課와 연결되어 있던 이전의 연령등급제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면 고려시대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唐·宋 교체기에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일어나므로 참고할 수 있다.

唐은 호적 제도의 문란·안사의 난 등을 계기로 양세법을 시행했고, 이후 연령등급제가 사라진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배경은 양세법의 ‘丁中에 관계없이 빈부로 차별한다’라는 표현에 단적으로 드러난다.¹⁸⁴⁾ 이는 인두세인 조용조제에서 재산세로의 전환이며, 더 이상 課의 징수에서 연령이 중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課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던 연령등급제의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양세법 시행 이후에도 丁男의 파악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요역을 부담시켰다는 점¹⁸⁵⁾에서도 연령등급제가 役보다는 課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양세법 하에서는 합리적인 수취를 위해 이전과 달리 토지의 비척도 등이 고려된다는 점¹⁸⁶⁾에도 주목할 수 있다.

이상 주로 국가의 지배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稅制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당의 뒤를 이은 송이 국가 지배력을 회복했음에도 丁, 老로만 연령을 구분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송에서 人丁 과세를 부활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여 토지를 근거로 한 稅制의 성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당·송 변혁기에는 화북 지방의 이년삼모작, 강남 지역의 이모작 발달 등으로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¹⁸⁷⁾

지금까지 중국사를 중심으로 연령등급제가 형해화된 시기와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사에서 그 시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이다. 그러면 고려에서 이와 유사한 변화를 찾을 수 있을까. 고려에서는 1/10세를 시행하였으며,¹⁸⁸⁾ 토지의 비척도를 고려하여 田租를 수취하는 등¹⁸⁹⁾ 신라에 비해 수취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또 고려 이전에 궁예가 舊制를 따르지 않고 1경의 토지에서 6석의 田租를 거두었다고도 한다.¹⁹⁰⁾ 여기서의 舊制는 신라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⁹¹⁾ 따라서 신라 말에 이미 고려와 유사한 稅制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신라 하대에 이르면 정실인사가 행해지면서 녹읍주와 지방관의 사적인 관계가 강화되고, 농민층에 대한 과도한 수취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¹⁹²⁾ 그에 따른 농민층의 도산과 빈번

183) 尹善泰, 2000, 앞의 논문, 168쪽.

184) 『舊唐書』 권118, 列傳68 楊炎, “炎因奏對 懇言其弊 乃請作兩稅法 以一其名 曰 凡百役之費 一錢之斂 先度其數而賦於人 量出以制入 戶無主客 以見居爲簿 人無丁中 以貧富爲差”.

185) 布目潮風·栗原益男 외 저·임대희 역, 2001, 『중국의 역사』 수당오대편, 해안, 258쪽.

186) 박근칠, 1996, 앞의 논문, 159~169쪽.

187) 전덕재, 2006, 앞의 책, 278~279쪽.

188)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禡王 14年 7月.

189)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成宗 11年 判.

190)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租稅.

191) 김기홍, 1991, 앞의 책, 182쪽.

한 농민 항쟁까지 더해지면서 신라의 국가 지배력은 더욱 약화되었을 것이다. 課丁에 기반하여 운영되던 丁田制와 그를 기반으로 한 인두세는 붕괴되어 신라 정부는 새로운 稅制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존에 통일신라를 중세로 바라본 논자들은 고려의 田租 징수 방식과 「촌락문서」에서 결부제를 통해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촌락문서」 단계에 이미 고려처럼 田租를 토지 면적에 근거하여 징수했다고 보았다.¹⁹³⁾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도 토지 기준의 과세를 하지 않은 시기도 있다는 반론¹⁹⁴⁾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통일신라와 고려의 사회적 성격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연령등급제가 크게 다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815년에 작성된 「촌락문서」에도 여전히 6등급의 연령등급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의 田租 수취 방식은 통일신라 전시기에 적용할 수 없으며, 815년 이후의 현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신라 정부의 인신에 대한 지배가 후퇴한 것과 별개로 특히 나말여초에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견해 역시 주목된다.¹⁹⁵⁾ 아울러 고려의 전시과에서는 宋과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에 대한 토지분급이 보이지 않는데, 이 역시 통일신라·唐 전기와의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변동의 결과로 「촌락문서」에 보이는 6등급의 연령등급제는 형제화되어 고려시대에는 役의 징발 대상을 규정하는 丁과 老의 구분만이 남게 되었다.

5. 맺음말

신라의 연령등급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변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成丁 연령에 대한 이견이 대표적으로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따라 15~16세로 보는 견해와 20~21세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그러나 신라 전 시기에 成丁 연령이 하나로 고정되었을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특히 『삼국사기』의 15세는 상고기의 기록이다. 따라서 상고기의 成丁 연령이 「촌락문서」 단계에는 20~21세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촌락문서」의 연령등급제는 개편의 결과로 생각된다.

신라사에서 연령등급제 개편의 시기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연령대의 추정 이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 한국사는 물론, 비교적 관련 사료가 많은 중국사의 사례를 참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등급제 개편을 수취의 감경 조치로 보았으나, 기존 연령만을 조정할 경우와 제도의 형태 자체가 변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상정한 신라의 연령등급제 개편은 成丁 연령의 조정도 있지만, 형태의 변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던 西晉과 北魏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령등급제 형태의 변화는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田制·稅

192) 전덕재, 2006, 앞의 책, 376~378쪽.

193) 김기홍, 1991, 앞의 책, 171쪽 ; 李喜寬, 1999, 앞의 책, 171~175쪽.

194) 전덕재, 2006, 앞의 책, 261쪽.

195) 위은숙, 1985, 「나말여초 농업생산력 발전과 그 주도세력」, 『역사와 세계』 9, 13~14쪽.

제의 개편과 연동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나 있던 농민들을 직접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한 율령제적 田制 및 인두세와 관련이 깊었다. 이 글에서 신라의 연령등급제가 개편된 배경을 신문왕 때의 관료전 지급·녹읍 폐지에서부터 이어지는 성덕왕 때의 丁田 지급으로 보고, 그 의미를 인두세의 시행에서 찾은 것 역시 이에 근거한다.

아울러 신라에만 보이는 명칭인 追·助·除의 의미와 성격이 문제된다. 기존에는 대체로 사전적인 의미에만 의지하여 난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용례가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경향에서 나아가 수취와 관련하여 追·助·除가 사용된 용례를 제시해보았다.

「춘락문서」의 追子는 余子에 다수 징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余子는 『주례』의 餘子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사시에만 징발되는 추가적·보충적인 병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후대의 문헌에서는 追徵이라는 용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追의 ‘추가적’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追는 유사시에 추가적인 병졸로 편성되는 연령대로 이해할 수 있다.

助子 역시 유사시에는 余子에 징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助에 그와 어울리는 보조의 의미가 있으나 追와의 차이점이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助는 ‘(노동력을) 빌려 경작하다’라는 용례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助는 유사시에 군사로 징발되는 것 외에 경작의 의무를 처음으로 할당받아 평시에도 丁보다 경감된 課役을 부담하는 연령대로 생각된다. 助는 중국·일본사의 丁 아래의 次丁과 유사한 집단이다. 丁 위의 次丁과의 부담액 비교는 추후의 과제이다.

除는 課役을 모두 면제받는 최고령 집단이며 중고기 신라의 老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 일본 養老令에서도 최고령층인 耆老가 있고 그 아래의 老는 次丁인데, 「춘락문서」의 老는 養老令의 老와 성격이 동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와 일본의 교류를 상정해볼 수 있다.

대략 中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追와 助를 세분화한 것은 신라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다. 기존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관련하여 통일 이전의 화랑은 대략 15~16세 정도의 연령으로 예비적인 병졸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들이 통일 전쟁 과정에서 큰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해당 연령층을 예비적인 병졸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追의 의미와도 통하는 것으로 용례 분석을 통해 신라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연령구분법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 해명해보았다.

한국사에서는 신라 이후로 「춘락문서」처럼 세분화된 연령등급제를 시행한 국가가 없다. 고려는 丁과 老의 연령만 규정하였는데, 課役 모두와 결합되었던 이전의 연령등급제와 달리 役에만 대응된다. 나말여초에는 빈번한 농민항쟁으로 인해 국가지배력이 약화되는 한편 농업생산력이 발달하여 田租가 인두세에서 토지세로 전환된다. 수취의 중심이 토지로 옮겨가면서 연령등급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사의 당송교체기나 일본의 9~10세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동아시아 3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에 통일신라를 중세로 바라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그 주된 논지는 통일신라부터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田租를 부과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춘락문서」에서 결부제로 토지의 면적을 정교히 파악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唐 전기에는 인두세를 중심으로 稅制가 짜여져 있었음에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地稅 역시 징수

되었다. 따라서 「촌락문서」 단계에서 결부수를 기준으로 田租를 수취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기왕의 시대구분론에 관한 논의에서 연령등급제는 대체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연령등급제와 수취제도의 관련성에 주목하지 않고 成丁 연령의 비교 등 법제사적인 관점 위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일본사에서의 연령등급제와 수취제도의 관련성을 볼 때 6등급의 연령등급제가 시행되던 「촌락문서」 단계에서는 신라 역시 인두세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점이 연령등급제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의 전개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수취제도는 인신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는 점은 동일하나, 戶 단위의 稅制에서 인두세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戶 단위의 稅制-개별 인신적인 稅制-토지 중심의 稅制’의 순으로 계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수취에서 인신과 토지의 비중을 논한 기준은 田租의 수취 방식이다. 수취에는 田租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田租으로 인신의 비중 변화를 논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취제도가 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유일한 요인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려 한다.

윤준혁, 「신라의 연령등급제 운영방식과 그 의미 - 田制·稅制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에 관한 토론문

윤선태(동국대)

1. 그간 신라 통일기의 사회경제사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문을 접하고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 격려의 말씀부터 올리고 싶다. 또 그에 걸맞게 의미있는 비평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읽었다. 발표문 중에서 특히 “중국사에서 감세 목적의 연령등급제 개편은 제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준 연령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령등급제의 형태 자체가 변하는 경우는 기준 연령만을 조정한 경우와 구분하여야 한다”는 언급은 저의 지난 글을 반추하고 반성하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신라 통일기의 사회경제사 자료는 한국 고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은 편이지만, 관련 역사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은 되지 않아 일찍부터 중국 일본 등 고대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연구 방법이 애용되어 왔고, 상당히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발표문도 마찬가지로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발표문은 중국의 연령등급제의 변화와 그 성립 배경에 관한 성과들을 잘 정리 소개해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사의 연구 성과들을 신라사의 관련 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실증이 부족하고, 논리적인 면에서도 거칠어서 상당히 의외의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신라사의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라사는 파편적인 자료여서 이를 그 틀에 적용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가 부족하지만 신라의 연령등급제 역시 그간 자료 분석과 관련 연구 성과들이 쌓여 큰 틀이 세워져 있다. 그러한 틀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 틀이 어떠한 자료적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그 토대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야 논리 전개의 출발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발표문은 그러한 점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중국의 연령등급제에 대한 검토는 상세하게 이루어진 반면, 그것을 수용 변용했던 신라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경험을 했던 고대 일본에 대해서는 자료가 풍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 천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발표문의 2장에서는 통일 이전의 자료를 통해 연령등급제의 최초 형태를 밝히려 하였다. 우선 관련 자료를 통해 “중고기 신라에 小·丁·老가 존재하였다”고 추론하였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존에 ‘少年 가실’과 ‘설씨녀의 아버지’를 ‘次丁’으로 이해하려는 논의를 비판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丁에 해당하며 次丁과는 관계가 없다고 논증하였다. 논평자 역시 이 논증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에 기초하여 “중고기 신라에서 次丁을 확인할 근거는 없으며, 율령 반포 당시 15세를 成丁으로 하는 小·丁·老의 연령등급제가 성립하여 나·당 전쟁

의 종료 시점까지는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추론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왜냐하면 현재 전해지는 문헌자료나 금석문 등의 1차 사료 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모집단으로 해서 중고기 신라에 차정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발표자도 언급하였지만 중고기에는 단지 小·丁·老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발표자의 실수는 기존 논의에서 ‘少年 가실’이나 ‘설씨녀 아버지’를 차정으로 추론하려고 한 공색한 점만 보고, 왜 그런 노력을 하였을까라는 이면의 뭔가에는 주의하지 않은 데에 있다. 그 첫 번째는 발표자도 알고 있듯이 「신라촌락문서」의 정·차정제의 변형 형태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 고대 일본의 「미농국호적」이다. 고대 일본에서는 정·차정의 제도가 ‘아스카키요미하라료’ 시기, 즉 7세기 후반에 이미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 제도의 연원을 해당 시기 신라와의 지적 교류와 촌락문서의 내용과 연관하여 신라에서 찾고 있다. 그때 가장 주목했던 시기는 ‘이방부격’이나 ‘울령격식’ 등을 언급한 유조 등 울령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때이다. 더욱이 「촌락문서」의 작성 시기를 695년으로 볼 수 있다면 신라에서 통일 전에 이미 정·차정제가 성립되어 있었고, 통일전쟁을 거치며 「촌락문서」와 같은 변형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을 여지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 발표자의 문제는 이러한 틀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거의 다루지 않고 촌락문서의 제도적 틀이 성립한 계기를 성덕왕대의 정전제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조차도 정전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검토한 성과들도 너무 쉽게 혹평하고 있다.

3. 이영훈은 촌락문서의 연수유답을 성덕왕대의 丁田制로 연결시키는 기존의 논의를 비판하고, 고려시대 ‘丁(田丁)’의 연원으로 이해하고 있다(『한국경제사 I』, 일조각). 논평자는 이 견해가 옳다는 의미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발표자처럼 성덕왕대의 丁田制에 입각해 촌락문서의 제도적 틀이 성립하였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전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놓치지 말고 보다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기존의 성과 중에도 경덕왕대 향덕에게 지급된 ‘구분전’에 관한 강진철의 견해는 단 몇 줄로 부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향덕의 아버지는 ‘字’를 받았는데, 지방인으로는 유일한 사례이다. 그리고 『동사강목』이나 「나말여초의 지방학교」 연구 등에서 이미 주목하였지만, 『삼국유사』에서 향덕이 ‘舍知’의 관등이 확인되며, 그 아버지 반길의 묘비를 웅천주 조교인 한서의가 찬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공주). 이러한 신라의 구분전 운용 사례 등으로 볼 때, 성덕왕대 ‘百姓’에게 지급된 정전제는 신문왕대의 관료전을 보완하는 지방의 ‘長吏百姓’, 즉 촌주층과의 연관성 등 매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논문으로 구성되어야 할 사안인데, 아무런 실증도 없이 중국사의 연령등급제 성립과정 등과 연결하여 성덕왕대의 정전제를 촌락문서의 연령등급제 성립의 배경으로 언급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고대 일본의 경우 8세기초 다이호료 이후 ‘반전수수제’가 실시되었고, 그로 인해 「서해도호적」과 같은 호적기재양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연령등급제나 수취체계는 변하지 않았다. 성덕왕의 정전제는 왜 이와는 다른 것인가? 그것을 과연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4. 발표자는 촌락문서의 B촌의 여자, 범사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군역으로 이해하고 이

촌이 다른 촌에 비해 追子の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주목한 기존의 견해를 추자, 조자, 정의 나이를 추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많은 실증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첫째로 여자와 법사를 군역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적된 자들이 군역을 나갔을 때 호적이나 계장에서 제외되는가라는 점을 실증해야 한다. 둘째 군역은 가호 내 정의 수를 고려할 정도 수취에 많은 배려가 수반된다. 그런데 정도 아닌 그것도 중남(조자)도 아닌 추자를 군역에 충당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한 제도가 성립할 수 있는가?

한편 발표자는 제공과 노공과 관련하여 기존과 달리 제공을 老로 보고, 노공을 오히려 노정(차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공 제모의 숫자가 노공 노모보다 적은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695년에 입각해 통일전쟁기라는 점을 고려한 견해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논평자는 이 견해가 타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령등급이 순서상 차정을 노보다도 뒤에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발표문에는 전혀 없다.

5. 논평자가 발표자라면 발표문에서 제일 확실한 중국 연령등급제의 분석만으로 논문을 구성할 것이다. 나머지 언급된 부분들은 별도의 논문으로 실증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중국사의 연령등급만을 소개한다면 이는 기존 연구 성과의 정리일 수도 있지만, 중국사의 연령등급제를 정리 소개하면서 기존 신라 연령등급제 연구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것을 새롭게 검토해나갈 수 있는 연구 전망의 기초로 제시한다면 학계에 큰 도움을 주는 논문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는 논평자의 주제를 넘은 발언이지만, 중국사의 연령등급제에 대한 발표자의 분석이 너무 좋아서 분에 아닌 논평을 추가해보았다.

유득공의 화이관과 역사 서술 - 사군지를 중심으로 -

장병진(연세대)

1. 머리말
2. 유득공의 『사군지』 저술 배경
3. 유득공의 역사 인식과 『사군지』
4. 맺음말

1. 머리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조선학운동에서는 한국 역사,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 후기의 ‘실학’에 주목하였다.¹⁾ 또 다른 차원에서 한국사의 내적 발전 과정에 주목하고, 중세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고 근대로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논의 속에서도 ‘실학자’들의 경제론에 주목하였다.²⁾ ‘실학자’들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도 역사 인식과 방법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³⁾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국내외 정세의 격변 속에서 북방의 영토, 고대 역사에 관심이 높아졌다. 국가의 존폐를 우려할 정도의 큰 전란을 연달아 경험했으며, 중원에서는 명이 멸망하고 청이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특히 天下의 중심이자 中華를 상징했던 명이 멸망하고, 오랑캐로 여겨온 여진족의 청을 사대해야 하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응해야 했다. 여기에 더해 18세기 초에는 백두산정계비 설치를 두고 청과 북방의 국경을 확정해야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학적 배경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 나름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고심했다.⁴⁾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단군과 기자,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어지는 고대 북방의 역사에 주목하는 일련의 흐름이 등장했다.⁵⁾ 이 글에서 주목하려는 柳得恭의 역사, 지리에 관한 관심과 저술도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유득공의 생애와 사상, 저술에 관한 연

1) 鄭寅普, 1929, 「星湖僊說 序」; 1934, 「唯一한 政治家 丁茶山先生 敍論」(『동아일보』 1934년 9월 10일~15일 연재); 1983, 『詹園鄭寅普全集 2』, 연세대학교 출판부.

2) 金容燮, 1976, 「朝鮮後期の 社會變動과 實學」, 『東方學志』 17.

3) 黃元九, 1970, 「實學派의 史學理論」, 『延世論叢』 7; 1976, 『韓國의 歷史認識 下』(李佑成·姜萬吉編), 創作과批評社.

4) 왜란 이후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역사 서술의 전반적인 흐름은 한영우, 2002, 「조선 시대의 역사서술」,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159~224쪽에 자세하다.

5)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이 참고된다.

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역사학 분야에서는 발해사를 ‘한국사’의 범주에서 정리하여 ‘남북국’의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사상사뿐만 아니라, 고대사, 사학사 연구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그의 저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그 결과가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도 하였다.⁶⁾

한편 유득공의 역사 인식은 그의 저술 전반에 녹아있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인 면면은 『三韓詩紀』, 『二十一都懷古詩』, 『渤海考』, 『四郡志』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그의 시문에 관한 관심 속에서 『이십일도회고시』와 발해사 서술과 남북국 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발해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반면 『사군지』에 대해서는 유득공의 역사 서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 속에서 간간히 논의된 바 있지만,⁷⁾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다행히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유득공의 『사군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사군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⁸⁾ 다만 『사군지』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 논의가 집중된 측면이 있었고, 유득공이 『사군지』를 저술한 배경에 대한 분석은 다소 소홀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유득공이 『사군지』를 저술한 근본적인 목적을 밝혀보고, 아울러 그의 역사 인식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득공의 『사군지』 저술 배경

1. 생애와 학문

유득공의 저술 활동과 그 안에 담긴 역사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년기 이래의 그의 수학 과정과 교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득공은 1748년 11월 5일(음) 아버지 柳瑋

6) 2021년 5월 7일 진단학회에서 <제49회 韓國古典研究 심포지엄: 沔齋 著述의 종합적 검토>를 개최하였다. 당시 5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발표된 논고는 『진단학보』 제136호(2021년 6월 발행)에 수록되었다. 수록된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今聲’과 ‘生趣’의 관점에서 본 유득공 시의 제재와 문예미」(신익철), 「18세기 백담동인과 청조문사 교유의 공감정서 -유득공의 백담청연시절 시를 중심으로-」(이철희), 「유득공의 검서관 활동과 고증학적 면모」(손혜리), 「18세기 ‘풍속’의 발견 -유득공의 풍속 관련 기록의 내용과 그 성격-」(정환국), 「18세기 古代史 研究의 談論과 柳得恭」(허태웅).

7) 정진현, 1998, 『실학자 유득공의 고대사 인식』, 신서원.

8) 2021년 11월 19일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가 공동으로 <『사군지』의 학술적 가치와 고대사 인식>을 개최하였다. 당시 기조 발표를 제외하고, 총 6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8세기 후반 역사지리에 대한 인식과 유득공의 『사군지』」(김현정), 「『사군지』와 『해동역사』의 ‘사군’ 비교연구」(고현아), 「『사군지』 「건치연혁」조에 나타난 한사군 위치 비정의 특징」(김성현), 「『사군지』 「사실」조를 통해 본 유득공의 삼국 인식」(김경화), 「『명환』·「인물」조에 나타난 『사군지』의 특징과 의미」(박미선), 「『사군지』에 수록된 「토산」조의 이해」(윤성재). 이중 김현정, 김성현, 김경화의 논문은 수정을 거쳐 『역사와 현실』 제124호(2022년 6월 발행)에 우선 수록되었다. 필자는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석하는 기회를 누렸으며, 본 발표 역시 당시 논의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과 어머니 南陽 洪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증조부 柳三益과 외조부 洪以錫이 서자였기 때문에 유득공 역시 서얼 신분이었다. 물론 출사에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는 시기를 겪었다고 하지만,⁹⁾ 유득공 개인은 정조에게 중용되어 정3품의 通政大夫에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신분에 따른 한계나 차별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¹⁰⁾

유득공의 아버지는 그가 불과 5세일 때 세상을 떠났다.¹¹⁾ 이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잠시 南陽 白谷(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외가에서 생활하기도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무반 가문이었던 친정의 분위기가 아들의 글공부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본격적으로 학문의 길에 들어섰을 때는 아마도 친가의 학문적 분위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그는 숙부들과 함께 조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을 글로 남기기도 했다.¹²⁾ 특히 성년이 되어 朴趾源 등 白塔同人들과 교유할 때도 숙부 柳璉(柳琴)이 함께 했다.

유득공의 가문은 文化 柳氏로 그의 8대조가 광해군의 장인인 柳自新이다. 본래 北人으로 인조반정 이후 가문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6대조 柳鼎立은 大北派의 잘못을 비판하고, 인목대비의 폐위에 반대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조반정 이후에도 벼슬을 이어가며 가문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¹³⁾ 유득공의 선대를 거슬러 가문의 黨色을 살핀다면, 북인 중에도 小北系의 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정립의 증손이자, 유득공의 증조부인 유삼익은 李廷燮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정섭의 사위였던 徐命膺의 가문과도 밀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득공의 조부 柳漢相은 이정섭의 문하에서 서명응과 동문수학했고, 李匡師와도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고 전해진다. 유득공의 가문은 증조부 유삼익 이래로 少論 가문과 교분이 특히 두터웠고, 그 인연은 유득공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유득공의 학문적 기반을 굳이 따져 본다면, ‘소북·소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북방의 역사, 지리에 보인 관심은 소북, 소론으로 이어진 가문의 학적 배경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¹⁴⁾ 물론 그의 역사 인식을 소북, 소론이라는 틀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는 성년이 되어 백담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박지원, 洪大容, 李德懋, 朴齊家 등 이른바 ‘北學派’ 학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과의 교유는 그의 관직, 연행 활동을 포함하여 말년까지 이어졌다. 유득공을 ‘연암일파’, 혹은 ‘북학파’로 부르기도 하는 이유이다. 그 역시 당시 경사의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북학’이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북학’의 논의는 老論 洛論系 학풍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노론 출신 외에도 소론과 南人을 아우르고 있었다. 유득공과도 밀접했던 소론 서명응이 박제가의 『北學議』에 서문을 썼고, 유득공도 남인 韓致瀾의 『海東繹史』에 서문을 쓰기도

9) 宋基豪, 1993, 「柳得恭」, 『韓國史市民講座』 12, 一潮閣, 137쪽 ; 정진현, 2007, 「영재 유득공의 역사 의식」, 『大東漢文學』 27, 82쪽.

10) 김운조, 2013, 『실학의 학풍을 꽃 피운 전문적 저술가 유득공』, 민속원, 21쪽.

11) 이하 유득공의 생애와 관련한 서술은 宋基豪, 1993, 앞 논문과 정진현, 1998, 앞 책을 주로 참조하여 서술한 것이다.

12) 柳得恭, 『泠齋集』, 卷15 「義雞說」.

13) 김영진, 2007,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年譜」, 『大東漢文學』 27, 9쪽.

14)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고대사 연구와 중화주의 변용」, 『역사학보』 202, 75~76쪽.

했다. 당색을 넘나드는 활발한 인적 교유는 독창적인 사상, 저술의 토대가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유득공의 역사 인식은 이러한 당대의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유득공의 역사 서술

유득공은 많은 저술을 남겼다. 『삼한시기』, 『이십일도회고시』, 『挹婁旅筆』, 『발해고』, 『京都雜誌』, 『사군지』, 『熱河紀行詩註』, 『燕臺再遊錄』, 『古芸堂筆記』 등 일상과 燕行의 경험을 반영한 시문, 우리나라 세시풍속에 관한 기록,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있다. 그 중에서 그의 역사 인식을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저술로는 『삼한시기』(1774년), 『이십일도회고시』(1778년)와 『발해고』(1784년), 『사군지』(1801년¹⁵⁾)를 꼽을 수 있다.

유득공의 문집인 『泠齋集』 권7에는 「東詩萌序」가 실려있는데, 비교적 최근 발견된 『삼한시기』의 서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삼한시기』는 통일신라 이전의 시문을 추적해 정리한 책이라고 하지만, 그 서문에는 이미 역사에 관한 그의 관심과 특유의 역사 인식이 엿보인다.¹⁶⁾

옛날 檀君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人文이 밝지 못하였는데, 箕子가 우리나라에 봉해지고 나서 여덟 가지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周나라에 조회를 갔다가 언덕의 보리를 보고 상심하여 노래를 읊조렸는데, 처량하고 구슬퍼 國風의 지류이자 우리나라 시의 鼻祖가 되었다. 그 뒤 衛滿이 우리나라를 습격해서 武力만을 높이자 마한은 남으로 달아나 지리멸렬해져서 이름이 들리지 않았고, 四郡과 二府는 잘려서 중국 땅으로 되었다. 조선 열수가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문화적인 교화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漢나라가 배치한 관리들이 文翁 같은 적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일까?¹⁷⁾

유득공은 자국 역사의 출발을 단군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기사를 통해 비로소 문명 교화를 이루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한은 箕準이 남쪽으로 달아난 곳이라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고, 반면에 사군 이부에 대해서는 중국에 내속하게 되어 교화의 기회를 맞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유득공은 사군 이부설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한 인물이지만,¹⁸⁾ 당시에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진행하지 않은 단계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마한과 사군에 대한 그의 인식은 『발해고』, 『사군지』 등 그의 본격적인 역사 저술과 상통하는 면이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

15) 『사군지』는 1801년 연행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집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현정, 2022, 「18세기 후반 역사지리 인식과 유득공의 『사군지』」, 『역사와 현실』 124, 66쪽).

16) 『삼한시기』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김운조, 2013, 앞 책, 116~138쪽 참조.

17) 柳得恭, 「三韓詩紀序」; 김운조, 2013, 위 책, 118쪽에서 재인용.

18) 유득공은 平那라는 군명이 중국 사서에 확인되지 않고, 漢代에는 도독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二府를 부정하였다. 아울러 4군에서 2부로 이어졌다는 혼란은 4군의 통폐합으로 2군이 존속하고, 동부도위의 설치, 漢末의 平州 설치와 唐의 안동도호부 설치 및 도독부로의 개명 등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면서 4군이 2군으로 다시 3군으로 전개되었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치운의 『해동역사』로 이어졌다(오영찬, 2012, 「조선 후기 고대사 연구와 漢四郡」, 『역사와 담론』 64, 14~15쪽).

고자 한다.

서문에는 25세 때인 1772년 무렵부터 나라의 역사, 야사를 두루 살폈다고 했는데,¹⁹⁾ 유득공이 일찍부터 역사를 궁구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의 역사 인식을 엿보게 하는 또 다른 저술로 『이십일도회고시』를 들 수 있다. 『이십일도회고시』는 단군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21개 국가의 도읍을 시제로 한 시문집이다. 여기에는 시문 외에도 内外의 典籍을 망라하여 해당 국가, 도읍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직접적인 역사 서술은 아니지만, 시제로 삼은 국가, 도읍의 목록은 유득공이 추구하던 역사 체계의 전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십일도회고시』는 『東國地誌』를 저본으로 삼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²⁰⁾ 이는 韓百謙의 『東國地理誌』의 약칭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²¹⁾ 그런데 한백겸이 단군조선을 설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유득공의 시제에는 단군조선이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한백겸이 고구려에 발해를 부기한 것과 달리 발해라는 시제를 확인되지 않는다. 시제에 포함된 貌이 한백겸의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는 유득공이 『동국지리지』 외에 다른 전적들을 섭렵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되지만,²²⁾ 『이십일도회고시』의 저본이 되었다는 『동국지리지』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와 별개의 책일 가능성도 있다.²³⁾

이상 『삼한시기』와 『이십일도회고시』는 유득공의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헌 집성과 고증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높은 역량을 보여준다. 그가 검서관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데는 이와 같은 역량으로 두각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한편 유득공의 직접적인 역사 서술로는 『발해고』와 『사군지』를 꼽을 수 있다.

그 가운데는 世紀도 있고, 列傳도 있으며, 天文, 地理, 禮樂, 兵刑, 輿服, 藝文에 대해 각각의 志가 있어서 저절로 역사서가 되었는데, 이를 이름하여 『해동역사』라 하였다. 내가 생각은 있었으나 미처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하루아침에 얻으니, 그 역시 시원스러운 일이 아닌가.²⁴⁾

유득공은 ‘자국’(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완성된 체제의 역사서 편찬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가 쓴 『해동역사』 서문에는 『해동역사』를 저술

19) “임진년(1772)에 마침 한가롭게 지내게 되어, 나라의 역사책을 펼쳐 숨은 광채를 드러내고 야사를 두루 살펴 하잘 것 없는 것도 찾아내었다.”(柳得恭, 「三韓詩紀 序」; 김윤조, 2013, 위 책, 121쪽에서 재인용).

20) 서문에는 『동국지리지』를 열람하다가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柳得恭, 「二十一都懷古詩 序」).

21) 宋竊鎬, 1979, 「柳得恭의 二十一都懷古詩 研究」,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7쪽

22) 정진현은 단군조선의 설정은 한백겸이 소홀히 한 바를 유득공이 분명히 한 것이며, 발해의 언급이 없는 것을 아직 유득공의 발해 인식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정진현, 1998, 앞 책, 124~125쪽).

23) 이민홍 옮김, 2008, 『유득공의 二十一都懷古詩』, 국학자료원, 14쪽. 이민홍은 규장각에 소장된 편자 미상의 『동국지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로 단정하기는 무리라고 보았다. 실제 규장각에 소장된 『東國地誌』(經古951-D717)는 숙종 연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군 이래의 역대 왕조의 건국 사실과 역대 도읍지를 소개한 구성은 『이십일도회고시』와 중복되는 면이 적지 않아 유의 된다.

24) 柳得恭, 「海東譯史 序」, “有世紀焉 有列傳焉 天文地理禮樂兵刑輿服藝文 各有其志 則居然而史矣 名之曰海東譯史 余所有意而未遂者 一朝焉獲之 不亦快哉”.

한 한치윤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묻어난다. 그가 생각한 완성된 체제의 역사서는 ‘세기’와 ‘열전’, ‘지’를 갖춘 사서였다. 실제로 그가 이와 같은 구상을 하고 있었음은 직접 쓴 『발해고』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내각에 소속된 관리로, 비밀스런 책을 꽤 많이 읽었으므로 발해에 관한 일을 차례로 편찬하여, 군고, 신고, 지리고, 직관고, 의장고, 물산고, 국어고, 국서고, 속국고 등 아홉 가지를 만들었다. 이것을 세가, 전, 지라고 하지 않고, 考라고 말한 것은 아직 역사 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사관으로 감히 자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⁵⁾

유득공은 『발해고』를 처음 완성했을 당시 사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스스로 평하면서 ‘고’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었다.²⁶⁾ 그런데 『사군지』를 저술한 후에는 스스로 ‘지’라는 제목을 붙였다.

마침내 (연행에서) 돌아와 역대 사서의 지를 모아 어렵듯하게나마 알 듯한 것을 가지고 엮어서, 한사군의 지를 만들었다. 나 자신은 아마도 옳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나라와의 간격이 천여 년이 되니, 어느 누가 믿어주겠는가? 믿어주지 않는대도 나는 나의 학설을 지킬 뿐이다.²⁷⁾

최근 논의에서 지적된 것처럼 유득공은 『발해고』를 저술할 때의 태도와 달리, 『사군지』에서는 자신의 저술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완의 ‘史’였던 발해‘考’와 달리, 그 자체로 ‘史’의 일부가 되는 사군‘志’로 이름한 것에서 알 수 있다.²⁸⁾ 통사의 서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사군의 개별 역사서라는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사군의 ‘史’라고 직접 이름 붙이지 않은 것은 사군이 한나라를 구성하는 군현에 불과했기 때문에 독립된 사서로서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²⁹⁾

한편 유득공이 실질적인 역사서로서 가장 먼저 『사군지』를 완성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자신이 구상한 통사 체계 속에서 한사군의 역사를 온전히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3. 유득공의 역사 인식과 『사군지』

25) 柳得恭, 『冷齋集』, 卷7 「渤海考 序」 “余在內閣 頗讀中秘書 遂撰次渤海事 爲君臣地理職官儀章物產國語國書屬國九考 不曰世家傳志 而曰考者 未成史也 亦不敢以史自居云”.

26) 송기호, 1993, 앞 논문, 146쪽.

27) 柳得恭, 「四郡志 序」, “遂歸而取歷代之志 吾腦中之 悅乎其有可會者經緯之 而爲漢四之志 自以爲庶乎其是矣 而去漢千有餘年人 孰信之哉 不信 吾且守吾說而已”(김현정, 2022, 앞 논문, 66~67쪽에서 재인용).

28) 김현정, 2022, 위 논문, 71쪽.

29) 유득공이 해동역사의 서문에서 한사군은 중국에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낙랑태수가 사관을 둘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조선 후기 정통론의 전개

명청 교체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천하 문명의 중심으로 여겨온 명이 멸망하고, 오랑캐로 여겨온 청이 중원을 차지한 현실은 조선의 자기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명의 멸망으로 사실상 중국의 正統이 끊어진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그 대신 ‘小中華’였던 조선이 실제로 ‘中華’가 되었다고 보았다.³⁰⁾ 본래 중화란 종족적, 지역적, 문화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조선이 중화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종족적, 지역적 의미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문화적인 측면의 강조, 즉 箕子가 교화한 이래로 독자적으로 문명을 이루고 이어왔다는 인식이 조선 지식인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이에 맞춰 자국사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조선 중화주의 인식 속에서 종족적, 지역적 구분의 華夷觀에서 벗어나 문화를 기준으로 한 화이관이 자리 잡게 되면서, 역사 서술에서도 정통론을 수용하여 주체적으로 자국사의 계통을 세우려는 시도가 이어졌다.³¹⁾ 정통론은 본래 華와 夷로 구성된 天下 공간에서 天命을 받은 天子가 통치하는 世가 일관됨을 논하는 개념이다. 즉 천하 공간에서 분열과 통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각 왕조의 계승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논의였다.³²⁾

조선 후기 정통론에 입각한 역사 서술은 綱目體 사서의 편찬으로 구체화되었다. 강목체는 朱子の 『自治通鑑綱目』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을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하되, 동시대에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큰 줄거리를 세우고(綱), 다른 나라의 사실은 작은 글자로 적는(目) 형식을 말한다. 여기서 강을 승계하는 줄거리가 곧 정통이 된다.³³⁾ 강목체 사서로는 17세기 후반의 저술로 俞樾의 『麗史提綱』과 洪汝河의 『彙纂麗史』, 『東國通鑑提綱』이 있으며, 18세기 초 林象德의 『東史會綱』, 18세기 중후반 安鼎福의 『東史綱目』을 거쳐 19세기 李源益의 『東史約』으로 이어진다.³⁴⁾ 역사 서술에서 정통론의 확립은 강목체 서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許穆이나 洪萬宗, 李瀼, 李種徽 등도 나름의 논리에 따라 자국사를 계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조선 후기 자국사를 정통론의 계통적으로 파악한 논의는 크게 두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마한(삼한)정통론에 바탕을 두고 일원적 계보로 인식한 논의로써, 홍만중, 이익, 안정복을 거쳐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삼한)→삼국(무통)→(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립하였다.³⁵⁾ 한편 자국사의 계통을 남북의 이원적 계보로 인식한 논의도 제시되었는데, 한백겸이 『동국지리지』를 통해 제시한 계보이다. 한백겸은 기자와 마한의 계승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백제, 신라, 가야가 삼한을 계승한 것과 달리 고구려는 삼한과 무관하다고 파악했다. 고구려는 삼한과 구분되는 한사군의 영역을 차지했다고 파악했는데, 기존의 이해와 달리 남북의 이원적 체계를 제시한 것이었다.³⁶⁾

30)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7쪽. 한영우, 2002, 「조선후기 시대의 역사서술」,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166~168쪽.

31) 鄭昌烈, 2006, 「실학의 세계관과 역사인식」, 『한국실학사상연구 1 - 철학·역사학편-』, 해안, 286쪽.

32) 鄭昌烈, 2006, 위 논문, 276~277쪽.

33) 黃元九, 1970, 앞 논문 ; 1976, 앞 책, 395쪽.

34) 趙誠乙, 2004, 「朝鮮後期 歷史學의 發達」, 『朝鮮後期史學史研究』, 한울, 15~18쪽.

35) 趙誠乙, 2004, 위 논문, 25~26쪽.

36) 허태웅, 2010, 「조선후기 ‘南北國論’ 형성의 논리적 과정 검토」, 『東方學志』 152, 142~143쪽.

단군조선→기자조선 →위만조선→사군 이부→고구려→(발해) →(통일)신라-고려
→마한(삼한)→백제, 신라, 가야

자국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은 허목의 『東事』에서도 확인된다. 大國의 世家와 거기에 부용된 小國의 列傳을 구분한 체제는 ‘단군→기자→위만→삼국’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계보로 보이기도 하지만,³⁷⁾ 종족적 측면에서 ‘단군→부여→고구려·백제’로 이어지는 단군의 혈통과 ‘기자→마한’으로 이어진 기자의 혈통으로 구분하는 독특한 논리를 제시하였다.³⁸⁾ 한편 이종휘는 『東史』에서 ‘단군-기자-마한’으로 이어지는 마한정통론을 인정하면서도 삼국 가운데 북방에서 기자의 영토와 문화를 계승한 고구려를 중심에 둔 인식을 보여주었다.³⁹⁾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주목되는 것은 ‘중국’ 중심의 정통론에서 벗어나 자국사의 정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족적, 지역적 화이관을 극복하고 문화를 기준으로 한 화이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화임을 자부하고, 자국사의 정통을 확립하려는 논의 속에서 단군의 혈통, 기자 영토의 회복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화주의’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사유 체계를 확립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⁴⁰⁾

2. 유득공의 정통론과 화이관

조선 후기 전통적 화이관이 변모하고, 자국사의 정통을 확인하려는 흐름 속에서 유득공 역시 자기 나름의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옛날에 高氏가 북쪽에 자리를 잡았으니 고구려이고, 扶餘氏가 서남쪽에 자리를 잡았으니 백제이며, 朴·昔·金氏가 동남쪽에 자리를 잡았으니 신라다. 이를 삼국이라 부른다. 당연히 ‘三國史’가 있어야 하고, 고려가 편찬한 것은 옳은 일이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함에, 김씨는 남쪽을 차지했고 大氏는 북쪽을 차지했으니 발해다. 이를 南北國이라 부른다. 당연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하는데 고려는 이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저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인데, 동으로 넓히고, 서로 넓히며 북으로 넓혀서 더 크게 만들었을 뿐이다.⁴¹⁾

37) 허태웅, 2010, 위 논문, 147쪽.

38) 韓永愚, 1985,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韓國學報』 40 ; 1989, 『朝鮮後期史學史研究』, 一志社, 114~115쪽.

39) 『동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三國本紀’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 편목을 통해 볼 때 삼국 가운데 고구려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김영삼·정재훈의 글에서는 『동사』가 ‘단군-기자-위만-고구려-발해’, ‘단군-기자-삼한-신라-백제’의 이원적 계통을 설정하고 있다고 파악했다(金英心·鄭在薰, 2000, 「朝鮮後期 正統論의 受容과 그 變化 -修山 李種徽의 『東史』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26, 191~193쪽).

40) 허태웅은 18세기 후반의 북방영토의식을 민족의식의 소산이 아니라, 중화계승의식의 소산이라고 보았다(허태웅, 2009, 앞 책, 232~233쪽).

41) 柳得恭, 『冷齋集』, 卷7 「渤海考 序」. “昔者高氏居于北曰高句麗 扶餘氏居于西南曰百濟 朴昔金氏居于東南曰新羅 是謂三國 宜其有三國史 而高麗修之是矣 扶餘氏亡高氏亡 金氏有其南 大氏有其北

유득공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 정통론을 부정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신라와 함께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다고 보면서 고려가 남북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유득공은 기자의 강역과 제도를 계승한 고구려에 주목하고, 고구려를 직접 계승한 발해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발해고』를 저술했다.⁴²⁾

이럴 때 고려를 위하여 계책을 세우는 자는 마땅히 시급히 발해사를 편찬한 다음 이것을 가지고 여진을 책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 발해의 땅을 돌려주지 않는가? 발해 땅은 바로 고구려 땅이다”하고는 장군 한 사람을 보내어 수복했으면 토문강 이북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발해사에 관한 책을 가지고 거란을 책망하기를, “어찌 우리의 발해 땅을 돌려주지 않는가? 발해 땅은 고구려의 땅이다” 하고는 장군 한 사람을 보내어 수복했으면 압록강 서쪽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이 누구의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진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고, 거란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다. 고려가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이를 탄식할 수 있겠는가.⁴³⁾

유득공이 발해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목적에는, 비록 관념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북방 고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⁴⁴⁾ 고려가 발해 영토를 상실함으로써 약자가 되었다는 한탄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한편 자국사 흐름의 북방적 전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해를 자국사의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다. 특히 기자를 존숭하는 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마한정통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적하는 새로운 논리를 계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종휘는 고구려가 기자를 영토적인 측면에서 계승했다는 인식을 넘어서 기자의 문물과 예악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⁴⁵⁾

유득공은 발해를 자국사에 편입시키고, 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북방 중심의 계보를 강조하려는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발해고』를 수정했다.⁴⁶⁾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사군지』의 저술 역시 비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曰渤海 是謂南北國 宜其有南北國史 而高麗不修之非矣 夫大氏何人也 乃高句麗之人也 其所有之地何地也 乃高句麗之地也 而斥其東斥其西斥其北而大之耳”.

42) 유득공 지음·김종복 옮김, 2018, 『정본 발해고』, 책과함께, 19쪽.

43) 柳得恭, 『泠齋集』, 卷7 「渤海考 序」. “當是時 爲高麗計者 宜急修渤海史 執而責諸女眞曰何不歸我渤海之地 渤海之地 乃高句麗之地也 使一將軍往收之 土門以北可有也 執而責諸契丹曰何不歸我渤海之地 渤海之地 乃高句麗之地也 使一將軍往收之 鴨綠以西可有也 竟不修渤海史 使土門以北鴨綠以西 不知爲誰氏之地 欲責女眞而無其辭 欲責契丹而無其辭 高麗遂爲弱國者 未得渤海之地故也”.

44) 이러한 인식은 임상덕, 이종휘 등 소론계에서 확인되는 북방 고토의 회복 의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득공 가문이 소론계 집안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유득공이 『修山集』 서문을 작성한 洪良浩나 이종휘의 아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했던 사실을 고려하면(허태웅, 2010, 앞 논문, 154~155쪽), 이종휘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45) 허태웅, 2010, 위 논문, 149~150쪽.

46) 유득공 지음·김종복 옮김, 2018, 앞 책, 21쪽.

생각하건대, 우리 동쪽 땅은 청주의 변방으로, 우공의 우이이고, 은주 때에는 호족의 이웃이었다. 기성이 와서 살았는데 무왕이 곧 그를 봉하니 마치 태백의 구오와 같다. 상서전에서 말하기를, “해동의 제이는 구려, 부여, 駙貊의 무리이다. 무왕이 상(나라)을 이기고 모두 통하여 다스렸다.”라 하였다. 駙은 韓이니, 조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때부터 내복한 까닭이다. 수백 년이 지나 연에게 격파되어 그 서쪽 땅을 잃었다. 진이 연의 옛 경계를 살피니, 대개 패수를 지나 동쪽이다. 한나라 초에 위만이 소유하였으며 무제가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여 평정하였다. 사군을 둔 것은 삼대의 옛 강역을 수복한 것이다. 소제가 진번을 현도에 합하고, 임둔을 낙랑에 합했으며 후한 건안 중에 또 대방군을 세웠다. 위나라를 지나 진나라에 이르러 혹 평주에 종속되었고, 혹은 유주에 합해졌는데 일찍이 관리를 둔 적이 없었다. 영가의 때에 중원이 소멸하니 고구려가 비로소 현도를 얻고 또 낙랑을 함락시켰다. 백제는 그 남쪽 경계인 대방의 땅을 빼앗았고 신라는 고개와 연안으로부터 그 동부 칠현의 땅을 개통하였다. 모든 역사를 두루 살피건대, 사군이 합쳐져 이군이 되고, 이군이 늘어서 삼군이 되었고 삼군이 변하여 삼국의 대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으로부터 이후 고씨를 계승하여 낙랑과 현도 두 군을 차지한 것은 발해 대씨였다. 五季 이래로부터 낙랑은 고려에 속하고 현도는 여진에게 잃었다.⁴⁷⁾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사군지』 ‘事實’조에는 유득공이 어떤 논리로 자국사를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유득공은 기왕에 북방의 계보를 설정했던 논의들과 비교할 때, 매우 독창적인 이해를 마련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의 기원을 한사군과 연결해 이해한 점은 주목된다. 사군 이부설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군이 이군으로, 그리고 다시 삼군으로 변화된 이후에 삼국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그가 마한(삼한)정통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앞서 본 『삼한시기』의 서문에서 기준이 마한으로 남천한 후에 “지리멸렬해져서 이름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한사군의 시기를 단순히 외국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삼대의 강역을 수복’했다고 파악함으로써 위만에게 잃었던 영토와 문명을 회복한 시기로 설정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국사의 흐름을 북방의 ‘고구려-발해’를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기왕의 논의에서 기자와 고구려를 잇는 시간적 간극, 혹은 마한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데서 나타나는 지역적 불일치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나름의 대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유득공은 기자가 周에 內服해 있다고 보았고,⁴⁸⁾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삼대의 옛 강역을 회복했다고 했다. 그리고 영가의 난으로 西晉이 멸망한 이후에 삼군이 삼국으로 이어졌다고

47) 柳得恭, 『四郡志』 事實 “按我東之地 爲靑州邊裔 禹貢嶠夷 殷周之際 弧竹之隣也 箕聖來居 而武王就封之 猶太伯之勾吳也 尙書傳曰 海東諸夷 駙驪扶餘駙貊之屬 武王克商 皆通道焉 駙者韓也 其不言朝鮮者 自是內服故也 歷周幾百年 爲燕所破 失其西地 秦按燕故其界 蓋過溟而東矣 漢初爲衛滿所有 武帝興師擊定 置四郡者 收復三代舊疆也 昭帝並眞番於玄菟 並臨屯於樂浪 後漢建安中 又立帶方郡 歷魏至晉 或隸平州或並幽州 未嘗不置吏 永嘉之世 中原淪喪 高句麗始得玄菟 又陷樂浪 百濟掠其南界帶方之地 新羅自嶺沿穿其東部七縣之地 歷考諸史 可見四郡合爲二郡 二郡增爲三郡 三郡變爲三國之大略也 自唐以後 繼高氏 而跨據樂浪玄菟二郡者 渤海大氏 自五季以來 樂浪屬於高麗 玄菟失之女眞矣”

48) 유득공은 『삼한시기』의 서문에서도 기자가 周의 조회에 참여했음을 언급했는데, 그가 기자를 무왕의 신하였다고 보았는지, 신하는 아니었다고 보았는지는 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았다. 이는 명이 멸망하고, 漢族이 아닌 여진족의 청이 중원을 지배하면서 조선이 유일한 중화로 남은 현실을 고대로 소급하여 투영함으로써 조선 중화주의의 논리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사군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득공 특유의 역사 인식을 알아보았다. 특히 세세한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저술한 목적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실학자’들의 역사 서술은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자국사를 중시하였고, 방대한 자료 수집과 문헌 고증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그들의 고대사 인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한국사의 시·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과 맞물려 북방故土에 관한 관심과 회복 의지는 ‘실학’이라는 이름 아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 글은 유득공의 정통론, 화이관을 드러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실학’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하여 당시 저술의 내용만을 가져다 한국사의 자주성,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자칫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유득공의 저술에 대해서도 저술 의도와 논리를 올바르게 이해한 토대 위에서 그 의의와 한계를 궁구할 필요가 있다.

장병진, 「유득공의 화이관과 역사 서술 - 사군지를 중심으로 -」에 관한 토론문

김경화(인하대)

본 논문은 『사군지』를 통해 유득공이 역사서술, 특히 고대사에 대한 어떠한 역사인식을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이미 작년에 두 차례나 유득공 또는 『사군지』 관련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다방면으로 유득공을 살펴볼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득공의 역사인식, 특히 그 배경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때문에 유득공의 『사군지』 저술 배경을 살펴려는 발표자의 논문은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1. ‘Ⅱ-1. 생애와 학문’에서 유득공의 학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발표자는 유득공이 ‘소북-소론’의 학문적 기반을 가지면서도, 북학파의 ‘노론-낙론’적 학풍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토론자도 유득공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진 바가 있다. 하지만 고대사 연구자인 관계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북-소론’이 가지는 역사인식과 그 반대편인 ‘노론-낙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이 각각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유득공의 『사군지』 서술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2. ‘Ⅱ-2. 유득공의 역사서술’에서 발표자는 “마한은 기준이 남쪽으로 달아난 ... 사군 이부에 대해서는 중국에 내속하게 되어 교화의 기회를 맞았다는 인식을 보였다(P. 5)”고 하여 유득공이 四郡을 한국사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는 『사군지』를 ‘史’가 아닌 ‘志’로 명명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유득공이 사군에 대해 어떠한 역사인식을 가졌는지는 『사군지』 저술배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된다. 그리고 유득공이 ‘사군’을 우리 역사의 판도에 넣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표자의 의견도 일견 수긍이 간다.

다만 『사군지』 사실조에 “모든 역사를 두루 살펴건대, 四郡이 합쳐져 二郡이 되고, 二郡이 늘어서 三郡이 되었고 三郡이 변하여 三國이 된 대략을 알 수 있다”고 하여 한사군이 현도/낙랑의 2군이 되었다가, 다시 대방군이 더해져 3군이 되고, 3군 즉 현도, 낙랑, 대방이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이른바 3국가 성립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4군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어떤 계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유득공이 『사군지』를 저술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3. ‘Ⅲ-1. 조선 후기 정통론의 전개’에서 발표자는 정통론을 두 가지 흐름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홍만중, 이익, 안정복의 ‘마한정통론’과 한백겸, 허목, 이종휘로 이어지는 ‘이원적 계보’로 파악하였다. 물론 토론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정통론과 ‘이원적 계보’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한백겸의 ‘南自南, 北自北’이라는 이원적 역사인식이 이후의 정통론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로써 두 가지 흐름, 이른바 기자조선의 문화적 계승자인 마한을 정통으로 보는 이익, 안정복과 마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지리적 계승자로서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존재를 강조한 이종휘로 나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4. ‘Ⅲ-1. 조선 후기 정통론의 전개’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화임을 자부하고, 자국사의 정통을 확립하려는 논의 속에서 단군의 혈통, 기자 영토의 회복을 강조... 이런 모습은 중화주의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사유체계를 확립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P. 9)”고 있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5. ‘Ⅲ-2. 유득공의 정통론과 화이관’에서 발표자는 “기자에 대한 존숭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한정통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적하는 새로운 논리를 계발해야 했다(P. 10)”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유득공이 기자조선을 부정하고 마한정통론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일례로 『사군지』에서는 기자조선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토론자가 아는 한 유득공의 다른 저서도 사정이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오히려 『사군지』 「事實」 조 첫 도입 부분을 보면 “생각하건대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후 손자 준이 위만에게 깨져 남쪽의 韓地로 달아났다. (위)만은 거둬 조선을 국호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자조선의 중화적 전통이 그 후손인 준이 韓地로 내려옴에 따라 함께 전해져 왔고, 그것이 삼한을 거쳐 삼국으로 계승되었다고 본 것이다. 즉 유득공은 그 당시 조선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자조선의 존재를 통해 우리 역사의 시원이 오래되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았음을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혹시 토론자가 모르는 유득공이 기자조선 내지 마한정통론을 부정하고자 한 예가 있는지 궁금하다.

6. ‘Ⅲ-2. 유득공의 정통론과 화이관’에서 “삼대의 강역을 수복”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토론자도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7.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머리말에서 제시하였듯이 본 논문은 『사군지』 저술 배경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 참여한 <사군지의 학술적 가치와 고대사의 인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에게 계속 지적된 사항이었고,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끝은 맺었다.

아직 논문이 완성되지 않아서 발표자가 앞으로 더 보충하리라 생각되지만 역시 본 논문의 핵심은 당시 유득공을 비롯한 조선 후기의 학자들이 역사지리 연구에 관심을 보인 배경

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즉 앞서 이야기한 유득공의 학맥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는 백두산 정계비를 둘러싼 청과의 국경분쟁에서 비롯된 국가 강역에 대한 관심, 또는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지리지를 수용하고 고증적 학문이 발달하였다는 것 등등 결국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여 유득공의 역사인식을 설명한다면 『사군지』 저술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사군지』를 중심으로 유득공의 역사서술을 이해한다고 하었는데, 정작 『사군지』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아 아쉽다. 이에 대한 보충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삼국사기』 후고구려·궁예 관련 ‘정보’의 수용 방식 문제 - 궁예의 가계 및 출생 관련 정보를 매개로 -

홍창우(전남대)

1. 머리말
2. ‘신라왕자설’의 수용
3. ‘조작설’의 제기
4. 『삼국사기』의 내부 논리
5. ‘素光若長紅’이 의미하는 것
6. 맺음말

1. 머리말

후고구려는 건국주인 궁예의 뒤를 이어 2대 국왕으로 즉위한 자를 배출하지 못한 채 단명하고 말았다. 궁예 역시 자신이 세운 왕조의 패멸과 그의 운명을 함께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치체는 왕건의 고려로 고스란히 승계되었다. 918년 여름 6월에 있었던 일이다. 후고구려의 패멸과 고려왕조의 성립이 한국사 내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별개로, 이는 궁예의 일대기가 후고구려의 역사 그 자체이며, 궁예가 곧 후고구려의 표상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내 유일의 궁예 개인사 기록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궁예전은 인물의 전기를 넘어 후고구려의 왕조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¹⁾

물론 우리들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고려사』·『고려사절요』 등 『삼국사기』 이후에 형성된 자료들을 동원하여 후고구려와 궁예의 사적을 복원할 수 있다. 후고구려 당대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세워진 불교 관련 금석문이나 인접한 중국 측의 몇몇 사서를 통해서도 궁예와 후고구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출현한 여러 기록물 역시 후고구려·궁예의 자취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역사 복원의 측면에서 예거한 자료들의 정보 범위는 『삼국사기』 궁예전의 그것으로부터 의미 있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들이 후고구려 연구의 1차 자료로서²⁾ 궁예전의 위상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³⁾

궁예전은 『삼국사기』 열전의 여느 전기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가계와 출생 관련 기사를

1) 이강래, 2010, 「『삼국사기』의 삼국 인식」, 『韓國史學報』 41 ; 2011, 『삼국사기 인식론』, 一志社, 41~42쪽.

2) 이강래, 2003, 「三國史記論, 그 100년의 궤적」, 『강좌 한국고대사』 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2007,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58쪽.

3) 홍창우, 2017, 「『삼국사기』 후고구려·궁예 관련 기록의 계통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7, 353쪽.

첫머리에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궁예나 그가 이룩한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 정보를 조우하고 사료 비판을 하는 것으로부터 연구의 첫발을 던게 될 것이다.

- ① 궁예는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이다. 아버지는 제47대 헌안왕 의정이며, 어머니는 헌안왕의 첩인데(嬪御) 성과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혹은 이르기를 제48대 경문왕 응렴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 ② 5월 5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집 위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빛이 있어 하늘 위로 뻗어 있는 것과 같았다. 일관이 아뢰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 태생으로 날 때부터 이가 있고 또 빛나는 것이 이상하니 장래 국가에 이롭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궁중의 관리를 시켜 아이의 집으로 가서 그를 죽이게 하였다. 관리가 이불 안에 있는 아이를 빼앗아 누각 아래로 던졌는데, 젓먹이는 종이 몰래 받다가 잘못하여 손이 닿아 한쪽 눈이 멀게 되었다. (유비가 아이를) 안고 달아나 숨어서 고생하며 길렀다.⁴⁾

『삼국사기』 궁예전의 서두를 편의상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본 것이다. 첫 번째 사료는 궁예의 가계를 전하는 기록이다. 내용 그대로 궁예는 신라인으로 성이 김씨이며, 아버지가 헌안왕 또는 경문왕이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헌안왕이나 경문왕 중 누군가는 궁예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혹은 둘 다 아닐 수도 있으며, 어딘가에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궁예전을 지은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고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여전히 궁예의 부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을 살펴 궁예가 왕자 출신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궁예의 출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후고구려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⁵⁾ 이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사료는 출생 직후 궁예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어느 해 중오일에 궁예가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 지붕 위로 긴 무지개 모양의 흰빛이 하늘까지 닿아있었고, 신생아임에도 치아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궁예는 출생 직후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유모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궁예가 애꾸가 된 경위이기도 한 이 대목은 일찍부터 지나치게 ‘극적’인데다가 다소 ‘작위적’이고 ‘인위적’이라는 혐의 속에 사실의 신빙성을 의심받아왔다. 따라서 앞선 가계 정보와 연계하여, ‘조작’의 결과로 이해하는 시각이 등장했고 이는 사료가 전하는 궁예의 왕자설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었다.

이 글은 궁예의 가계와 출생에 얽힌 일화를 전하는 사료를 매개로 『삼국사기』의 후고구려와 궁예 관련 ‘정보’를 수용하는 기존의 경향을 살펴보고 필자 나름의 시각을 제안하기

4) 『삼국사기』 권50, 열전 10 궁예전 “①弓裔 新羅人 姓金氏 考第四十七憲安王諡靖 母憲安王嬪御 失其姓名 或云 四十八景文王膺廉之子 ②以五月五日 生於外家 其時 屋上有素光若長虹 上屬天 日官奏曰 此兒以重午日生 生而有齒 且光焰異常 恐將來不利於國家 宜勿養之 王勅中使 抵其家 殺之 使者取於襁褓中 投之樓下 乳婢竊捧之 誤以手觸 眇其一目 抱而逃竄 劬勞養育”.

5) 金皓東, 2008, 「(서평)『궁예정권』의 재조명 읽기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李在範,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혜안, 2007, 『新羅史學報』 12, 344-345쪽.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먼저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두 경향으로 대분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궁예전의 정보 범위 내에서 궁예의 아버지를 찾으려는 시도와 궁예전의 정보 범위 밖에서 궁예의 출신을 규정하려는 시도로 나눠 검토하고자 한다. 전자가 ‘신라왕자설’의 관점을 견지한 것이라면 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으로, 특히 해당 정보가 조작의 산물이라는 ‘조작설’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왕에 관심이 적었던 해당 정보의 형성 과정과 『삼국사기』의 내부 논리 탐색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목했던 궁예의 부계 자체나 ‘重午日生’ 혹은 ‘生而有齒’와 달리 태어났을 때 관찰되었다는 자연 현상, 즉 ‘光焰異常’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자 한다.

2. ‘신라왕자설’의 수용

앞서 말했던 것처럼, 궁예전에 따르면 궁예의 아버지는 헌안왕이나 경문왕 중 한 사람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두 국왕 가운데 어느 한쪽이 옳은지를 부단히 탐색해왔다. 이는 궁예가 신라의 왕자 출신이라는 정보를 역사적 사실로 수용한 관점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헌안왕설과 경문왕설로 나눠 살펴본다.

1. 헌안왕설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출범 이후 궁예를 헌안왕의 아들로 본 것은 단재 신채호가 최초인 것 같다. 그는 1931년 6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한 「조선사」의 12번째 글에서 궁예를 “신라 헌안왕의 자식”으로 소개하였다.⁶⁾ 「一耳僧」이라는 소설에서도 “신라 헌안왕의 아들로써 헌안왕의 화상을 칼로 치고 또 신라를 멸하여 하였”다는 대목이 보인다.⁷⁾ 물론 적극적인 논증의 과정을 거친 결론은 아니었으며, 소설의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도 유의할 대목이다.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사실 신채호는 이른바 ‘조작설’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궁예의 부계 문제와 관련하여 헌안왕을 지목한 것은 신채호가 처음이었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이후 박한설이 헌안왕설을 언급하였다. “궁예는 헌안왕의 서자로서 성이 김씨인데,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을 유모가 구하여 가지고 도망하여 숨어서 길렀”다고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궁예는 “정권 다툼에 희생되어 지방으로 몰려난 자”이며, “견훤이나 궁예는 모두 신라계통 출신”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⁸⁾ 그는 이에 앞서 인명 풀이를 통해 궁예의 ‘고구려계승표방’을 읽어내려는 시도에서 이미 “김씨라는 성이나 선종이라는 이름이나 그가 헌안왕 또는 경문왕의 아들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궁예가 신라계통의 사람이라는 점에

6) 申采浩, 「朝鮮史(12)」, 『朝鮮日報』 1931년 6월 22일자 ; 申采浩 著, 李萬烈 註釋, 1983, 『註釋 朝鮮上古史』 上,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85~86쪽.

7)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1977, 「一耳僧」, 『(改訂版)丹齋申采浩全集』 別集, 螢雪出版社, 305쪽.

8) 朴漢萬, 1978, 「後三國의 成立」,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617~618쪽.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견해를 제출한 바 있다.⁹⁾

아무래도 현안왕설은 정청주가 본격적으로 제창하였다고 하겠다. 그는 경문왕과 정비 영화부인 사이에서, 훗날 현강왕으로 즉위하는 最과 그 뒤를 이어 정강왕으로 즉위하는 晁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을 환기하였다. 따라서 만약 “궁예가 경문왕의 후비 소생의 서자라면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출생과 동시에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할 입장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더군다나 “경문왕의 후비는 현안왕의 둘째 딸로서 경문왕이 원래 결혼하고자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궁예가 “경문왕의 서자로는 인정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현안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둘” 있었으므로, “궁예가 현안왕의 서자였다면,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며, 그러므로 제거되어야 할 이유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경문왕의 아버지로서, 문성왕 대부터 시중을 역임했으며 현안왕의 즉위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김계명이 자기 아들인 응림의 즉위를 위해 현안왕의 서자로서 유력 왕위계승 후보였던 궁예를 제거했다고 추정하였다. 이에 궁예를 “현안왕의 서자”로서, “왕위계승 과정에서의 정권 싸움에 희생되어 지방으로 쫓겨난 자”로 규정하였다.¹⁰⁾

후삼국 간의 상호 관계를 살핀 황선영도 “경문왕이 현안왕의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한 점을 고려하여 “궁예가 현안왕의 서자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¹¹⁾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 과정을 검토한 김창겸 역시 현안왕의 가계를 살피면서 현안왕에게 “嬪 소생의 궁예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그의 출생은 응림의 왕위계승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의 일”로, 이를 “알아차린 김계명 등의 경문왕파가 후환을 제거하기 위하여 죽이려 하였고, 혹은 그의 출생이 현안왕 말년이어서 이 사실을 현안왕이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며 궁예의 아버지를 현안왕으로 지목한 것이다.¹²⁾

현안왕설은 꽤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다가 송은일에 의해 다시 조명되었다. 그는 궁예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인지를 파악한다면 그의 출신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왕이 궁예의 주살을 명령하는 대목에서의 ‘中使’라는 존재에 주목하였다. 이 중사는 곧 中使省[中事省]이거나 이의 관리일 것이므로, 중사성의 존재 과정과 그 시기를 밝혀 단서를 찾고자 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사성은 경문왕 즉위 초까지 존재했으므로 ‘중사’를 시켜 궁예를 죽이려 한 왕도 경문왕이며, “만약 궁예가 경문왕의 아들이었다면 그의 왕위가 것처럼 위태로울 까닭도 없으려니와 더구나 궁예를 죽일 까닭은 없었”기 때문에 궁예를 경문왕의 아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반면에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현안왕은 자신의 왕통을 존속시키려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아들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했을” 것이며, 다만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조에 아들이 없다고 한 것은 “현안왕이 흥거하기 전까지 궁예가 출생하지 않았거나 출생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출생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궁예의 안전을 위해 그 같은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한다.¹³⁾ 원문의 ‘중사’는

9) 朴漢高, 1974, 「弓裔姓名考 -高句麗繼承標榜과 關連하여-」, 『霞城李瑄根博士古稀紀念論文集 韓國學論叢』, 螢雪出版社, 76쪽.

10) 鄭淸柱, 1986, 「弓裔와 豪族勢力」, 『全北史學』 10 ; 1996,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65~67쪽.

11) 黃先英, 2001, 「後三國의 外交關係」 (韓國中世史學會 지음),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정림사, 80쪽.

12) 金昌謙, 2003,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60쪽·134쪽.

그동안 ‘궁중의 칙사’,¹⁴⁾ ‘궁중의 사자’,¹⁵⁾ ‘궁중의 사람’¹⁶⁾ 등과 같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궁안의 관리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2. 경문왕설

한편, 헌안왕설과 대척점에 있는 경문왕설은 ‘연령상으로’ 추정된 정중환에 의해서 스치듯이 거론된 적이 있으나,¹⁷⁾ 신호철이 크게 강조했다고 보아야 한다.¹⁸⁾ 그 역시 헌안왕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둘 있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궁예가 헌안왕의 아들이었다면 그가 비록 궁녀 사이에서 난 서자라 할지라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출생 시부터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처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헌안왕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주목했던, 경문왕에게 정과 황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삼국사기』의 헌안왕 대 기록에서는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분쟁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궁예가 경문왕의 서자라면 왕위에 오를 수는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왕실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궁예는 바로 경문왕과 후비 사이의 서자였고, 왕비 간의 권력다툼으로 인한 희생자”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특히 신호철의 주장은 이후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헌안왕이 불과 재위 4년 만에 죽었고 또한 아들이 없었다는 점, 경문왕 시에 정치적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통해 궁예를 경문왕의 서자라고 한 이정신,¹⁹⁾ 훗날 효공왕이 되는 曉 역시 헌강왕의 서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궁예 역시 서자이긴 하지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경문왕의 소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궁예는 곧 경문왕의 아들이라고 판단한 오영숙,²⁰⁾ “신라 하대의 일반적인 왕위계승 과정을 볼 때 궁예가 헌안왕의 아들이었다면 비록 서자였다 하더라도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궁예를 경문왕의 아들로 판단하면서도, 궁예가 경문왕의 ‘정비’ 소생일 것이라고 본 양경숙²¹⁾ 등이 대표적이다.

‘궁예의 세력형성 과정과 도읍 선정’ 문제를 다룬 정선용 또한 경문왕설에 동의한다. 헌안왕이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자인 자신의 서자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정·황의 두 왕자를 두고 있었던 경문왕의 경우는 궁예로 대표되는 세력이 정비 소생의 아들과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대립하다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호철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라왕자설’이 궁예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조작설’에 대한 저

13) 송은일, 2013, 「弓裔의 出身에 대한 再論」, 『한국고대사연구』 70, 335~382쪽.

14) 李丙燾 譯註,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714쪽.

15) 이강래 옮김, 1998, 『삼국사기』 II, 한길사, 876쪽 ; 고전연구실 옮김, 2000, 『新編 三國史記』 下, 신서원, 449쪽.

16)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824쪽.

17) 丁仲煥, 1966, 「高麗建國考」, 『東亞論叢』 3, 103쪽. 문경현도 궁예가 헌안왕이나 경문왕의 아들이었을 경우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경문왕의 아들로 추정 한 바 있다(文暲鉉, 1987,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 研究』, 螢雪出版社, 17~18쪽).

18) 申虎澈, 1982, 「弓裔의 政治的 性格 -특히 佛敎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29, 34~35쪽.

19) 李貞信, 1984, 「弓裔政權의 成立과 變遷」, 『藍史鄭在角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고려원, 41쪽.

20) 吳永淑, 1985, 「泰封國形成과 弓裔의 支持基盤」,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3~14쪽.

21) 梁敬淑, 1993, 「弓裔와 그의 彌勒佛 思想」, 『北岳史論』 3, 103~107쪽.

자의 생각을 피력한 대목이 눈에 들어오는데, “고려의 건국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궁예가 폄하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약 궁예가 이 설을 퍼트렸다면 “고려시대에 이미 비판되었을 것”이므로 “왕위계승과 관련된 모반사건으로 희생된 왕자 출신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²²⁾

이도학은 “연령 관계로 볼 때 경문왕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양경숙과는 달리 “궁중이 아닌 외가에서 출생했기에 신라왕의 왕비(정비) 소생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³⁾ 김택균도 헌안왕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점, 헌안왕 대에 별다른 정쟁이 없다는 점, 반면에 경문왕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다는 점, 경문왕 재위 시 각종 반란 사건으로 정치적 소요가 심했다는 점 등 기존에 제기된 주안점을 놓치지 않으며, 궁예를 경문왕의 서자로 보았다.²⁴⁾ 후고구려와 후백제 관련 연구 동향을 점검한 조법중 역시 궁예의 출자 문제를 다른 선행 연구를 살펴면서 “헌안왕에게 아들이 없어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점과 경문왕의 경우 정비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문왕설을 제기한 신호철의 주장을 따랐다.²⁵⁾

이렇듯 연구자들은 주로 헌안왕이나 경문왕 대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궁예의 출계를 타진해왔다. 특히 헌안왕과 경문왕의 자녀 유무와 경문왕이 헌안왕의 ‘사위’[甥]로서 왕위를 계승한 점은 궁예의 부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문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 헌안왕이나 경문왕의 재위 시절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었다. 사실 헌안왕에게는 적통을 이을 아들이 없는 반면 경문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점은 궁예가 제거되어야 할 당위로서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같은 사료와 정황을 두고 정확히 반대되는 주장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에 설득력이 더 있는지와 별개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적어도 궁예의 ‘신라왕자설’의 관점에 충실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궁예전의 출생 관련 정보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인 것이다.

3. ‘조작설’의 제기

이와는 반대로 궁예의 ‘신라왕자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시각과는 다른 견해들도 일찌감치 제기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단재 신채호는 『조선일보』에 연재한 「조선사」에서 고려시대의 사관이 궁예를 ‘신라 황궁의 왕자’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한때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신하된 자가 임금을 죽이는 것[以臣殺君]을 싫어하여 “전력을 집중하여 궁예의 可誅할 罪를 구”했다거나 “다시 的證을 만들”었다는 표현 등으로 보아,²⁶⁾ 신채호는 왕건이

22) 丁善溶, 1997, 「弓裔의 勢力形成 過程과 都邑 選定」, 『韓國史研究』 97, 39~40쪽.

23) 이도학, 2000, 『궁예 진흥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18~19쪽.

24) 金澤均, 2004, 「弓裔와 世達寺」, 『史學研究』 75, 64~65쪽.

25) 조법중, 2006, 「후백제와 태봉 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新羅文化』 27 ; 2006, 「후백제와 태봉」 (김정배 편저), 『한국고대사입문』 3, 신서원, 264쪽.

26) 申采浩, 「朝鮮史(12)」, 『朝鮮日報』 1931년 6월 22일자 ; 申采浩 著, 李萬烈 註釋, 1983, 『註釋 朝鮮上古史』 上,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85~87쪽.

궁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궁예 관련 기록들을 조작했고 이를 고려시대의 사관들이 고스란히 수용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궁예와 후고구려에 대해 전근대와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신채호의 이 ‘조작설’은 이후 여러 논자에 의해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홍순창의 주장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는 궁예의 ‘신라왕자설’을 “자기의 출자를 고귀 신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식”으로 보고 “그의 反新羅叛亂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작한 설화”라고 주장한다. 즉, 자신의 가계를 신라 왕실에서 구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궁예 자신이며, 그 이유는 “그의 광적인 반신라적 태도와 신라왕조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소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²⁷⁾ 조작의 주체와 의도 모두 신채호와 다르다.

최규성에 의하면 “가계의 시작부터 착오가 있고 출생과정에 지나치게 극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인위적 조작에 의한 결과임을 바로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에 “고려 초에 궁예의 역사를 기록할 때 반역자·폭군에다가 초점을 맞추었다면 반역자다운 출생과 가계의 혼란은 당연한 귀결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궁예의 “출신 성분이 왕족이었으면서도 정쟁에 희생이 되어 왕실에서 축출”되었다고 말한다.²⁸⁾ 같은 글의 다른 대목에서 “궁예의 몰락과 함께 궁예 반대세력의 의도대로 역사적 사실이 크게 조작”되었다거나,²⁹⁾ 궁예가 양길에게 반심을 품고 배반했다는 신라본기의 기록³⁰⁾에 대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었고 “세력 면에서도 절대적 열세에 있었던 양길로서는二心を 운운할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궁예의 반역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에 부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³¹⁾ 최규성은 고려 건국기의 주요 세력에 의해 궁예 관련 기록들이 전체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 같다.

비슷한 관점으로 근래에 최광식은 “궁예전의 전반부 부분은 그대로 묘사하고, 후반부는 고려인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변개된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궁예의 출생 관련 기록들은 “궁예를 신화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궁예집단에 의해 형성된 이야기”이고 그 이후 기록들은 “궁예의 신화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왕건집단에 의해 형성된 이야기”로 이해한다.³²⁾ 궁예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분기점을 왕릉·왕건 부자의 귀부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전후하여 궁예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점에 착목한 것이다.

관련 기록의 조작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조인성인 것 같다. 그는 “궁예의 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설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가 구사일생하게 된 경위가 지나치게 극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궁예가 과연 왕자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궁예의 신라왕자설을 의심하였다.³³⁾ 이에 “궁예가 왕자라는 사실은 당시에는 물론이고 고려시대에도

27) 洪淳昶, 1982, 「變動期の 政治와 宗教 -後三國時代를 中心으로-」, 『人文研究』 2,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227~228쪽.

28) 崔圭成, 1987, 「弓裔政權의 性格과 國號의 變更」, 『論文集』 19, 상명대학교 ; 2005, 『高麗 太祖王建 研究』, 주류성, 13쪽.

29) 최규성, 위의 책, 20쪽.

30)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3년(899) “秋七月 北原賊帥梁吉忌弓裔貳己 與國原等十餘城主謀攻之 進軍於非惱城下 梁吉兵潰走”.

31) 최규성, 2005, 앞의 책, 26쪽.

32) 최광식, 2018, 「견훤과 궁예」 『삼국유사』의 신화 이야기, 세창출판사, 220~224쪽.

33) 趙仁成, 1991, 『泰封의 弓裔政權 研究』,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7쪽 ; 2007, 『태봉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궁예왕자설’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후대에 궁예나 그의 측근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궁예왕자설’이 “신라 하대의 치열한 왕위계승전을 계산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궁예가 신라 왕실과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그가 선종이라는 법호를 스스로 쓴 것은 진골귀족으로 알려진 자장의 어릴적 이름 ‘善宗郎’³⁴⁾에서 착안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바로 “궁예가 자신의 신분이 원래 진골이었음을 의식한 때문”이라 한다. 그러므로 궁예는 신라의 왕자가 아니라 “본래 중앙의 진골귀족 출신”이며, 그의 “집안은 대체로 궁예 출생 이전에 이미 낙향한 것”이라고 결론하였다.³⁵⁾ ‘궁예나 그의 측근들’을 조작의 주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홍순창의 관점에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강봉룡도 궁예가 “대호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라 왕실의 권위를 빌어 중소 호족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표방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능력과 야망에서 출중한 일개 지방인이었거나 신라의 정권 다툼에서 희생된 귀족의 후예”로 보았다.³⁶⁾

한편, 조작설의 관점은 아니지만, 궁예를 장보고의 가문과 연결한 견해도 있다.

一目大王(궁예 - 인용자)의 성이 弓(궁)이지만 그 시조는 궁가가 아니요 곱가요, 그 사는 골은 곱골이니, 곱골은 지금 황해도 문화현이다. 곱가가 어찌 궁가가 되었느냐 하면, 이는 ‘가우리’(高句麗)의 음에는 한문 글자의 활궁(弓)을 ‘활곱’이라 읽고, 문득홀(忽)을 ‘문득골’이라 읽는 고로, ‘곱골’을 ‘궁’, ‘홀’이라 쓰더니, ‘가우리’가 망하고 신라가 그 때를 차지할 때, 신라는 ‘활곱’이라 읽지 않고 ‘활궁’이라 읽으며, ‘문득골’이라 읽지 않고 ‘문득홀’이라 읽어, ‘곱골’이 드디어 ‘곱홀’이 되고 ‘곱’가가 ‘궁’가가 되었다. 궁가가 신라로 이주한 뒤에 궁북이란 이가, 중국에 망명하여 돌아다닐 때에, 중국에 궁가가 없는 까닭에 행세하기가 아주 불편하므로 활궁에 긴 장(長)을 보태어 張가라 하고, 중국에 ‘ㄱ’ 발음이 없는 까닭에 북을 ‘保皐’라 하더니, 고국에 돌아와 전쟁에 공을 세워 청해진, 지금 완도 대사란 벼슬을 하다가 간신의 시기에 몰리어 죽고, 그 자손이 사방으로 흩어져 혹은 궁가의 본성을 가지고 혹은 장가의 변성을 가지니, 일목대왕은 그 본성을 보전한 송악군 궁가의 자손이다.³⁷⁾

인용문은 신채호가 궁예를 주인공으로 삼아 집필한 소설 「一目大王의 鐵椎」에서 궁예의 출신을 언급한 대목이다. 신채호는 궁예의 ‘궁’을 성씨로 보아 이것이 장보고의 원래 이름인 弓福³⁸⁾의 첫 자에 해당하는 ‘궁’과 같다면, 이를 송악군의 궁씨라고 한 것이다.

이 장보고설은 추정을 거듭하여 궁예를 장보고의 외손자로 판단한 이광식에 의해 확대되기도 하였다.³⁹⁾ 『順天金氏世譜』에서는 궁예를 神武王의 아들이라 했고,⁴⁰⁾ 신무왕 또한 장보

궁예정권』, 푸른역사, 38쪽.

34) 『삼국유사』 권4, 義解5 慈藏定律 “大德慈藏 金氏 本辰韓眞骨蘇判〔三級爵名〕茂林之子 … 及誕與釋尊同日 名善宗郎”.

35) 趙仁成, 1989, 「弓裔의 出生과 成長」, 『東亞研究』, 62~68쪽 ; 2003, 「태봉」, 『신편 한국사』 11, 129~130쪽.

36) 강봉룡, 2016,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가람기획, 416쪽.

37)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1975, 「一目大王의 鐵椎」, 『(改訂版)丹齋申采浩全集』 下, 螢雪出版社, 320쪽.

38) 『삼국사기』 권44, 열전4 장보고·정년전 “張保皐〔羅紀作弓福〕” ;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3년(828) “夏四月 淸海大使弓福姓張氏〔一名保皐〕 …”.

39) 이광식, 2006, 『궁예 평전』, Eastward, 28~39쪽.

고의 군사적 원조에 힘입어 즉위할 수 있었다.⁴¹⁾ 이와 더불어 『삼국유사』에서는 신무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장보고에게 자기 원수를 제거해준다면 그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겠다고 약속한 대목이 보이며,⁴²⁾ 실제로 신무왕 다음에 즉위한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次妃로 삼으려다 측근들에 의해 제지된 바 있다.⁴³⁾ 어쨌든 장보고의 딸이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하필 ‘궁예’가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여하튼 이 장보고설 역시 궁예의 ‘신라왕자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조작설’의 최대 쟁점은 조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가 아닐까 한다. 살펴보았듯이, 조작 주체로는 대체로 궁예(세력)와 왕건(세력)이 각각 제기되었다. 정확하게 서로를 겨누고 있는 상반된 시각이며, 앞 장에서 다뤘던 ‘헌안왕설’과 ‘경문왕설’처럼 양립할 수 없는 관점이기도 하다.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으며 왕건은 궁예의 신하이자 동시에 그를 제거하고 고려를 세운 인물이므로, 두 인물이나 그와 관련한 세력이 해당 정보를 조작했다면 그 의도 또한 정반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공통된 결론은 궁예전의 해당 기록이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며, 조작 주체의 ‘어떠한 의도’로 인해 ‘역사적 실재’가 굴절되었다는 것이다.

4. 『삼국사기』의 내부 논리

지금까지 궁예의 가계 및 출생 관련 기록을 놓고 개진된 기존의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다. 논쟁이 되는 부분을 잠깐 내려놓고,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기록’ 자체의 문제로 시선을 옮겨보고자 한다.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인물들의 가계를 알 수 있는 선에서(별첨 <표-1> 참고) 궁예와 같이 부계에 이설이 제시된 또 다른 인물로 신라의 석우로가 있다.⁴⁴⁾ 『삼국사기』의 석우로 열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석우로는 나해이사금의 아들이다. [혹은 각간 水老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⁴⁵⁾

이 기록에 따르면 석우로는 신라의 10대 국왕인 나해이사금의 아들이거나 신라 17관등 가운데 1등급에 해당하는 각간[伊伐飡] 수로의 아들이다. 석우로와 궁예가 살았던 시대의

40) 『順天金氏世譜』 “三十六世 神武王 諱伯徵 … 三十七世 … 弓裔 神武王之子 其後一爲順天金氏 一爲光山李氏”(李載範, 2007,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혜안, 29쪽에서 재인용). 또한, 『증보 문헌비고』에서도 光州李氏의 시조 李珣白을 궁예의 후손이라 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增補文獻備考』 권47, 帝系考8 氏族 광주이씨 “光山李氏始祖珣白 [本泰封王弓裔之孫 …]”).

41)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민애왕 즉위년(838); 권44, 열전4 김양전.

42) 『삼국유사』 권2, 기이2 신무대왕염장궁파조.

43)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문성왕 7년(845).

44) 김유신의 부친 ‘金舒玄’에 대해 김유신의 비문에는 ‘金道衍’으로 적혀 있다거나(『삼국사기』 권41, 열전 1 김유신전 上), 김영운의 조부 ‘金欽春’에 대해 ‘金欽純’으로도 쓴다는 것과 같이(『삼국사기』 권47, 열전 7 김영운전) 명백히 같은 인물에 대한 다른 표기 사례는 제외한다.

45) 『삼국사기』 권45, 열전5 석우로전, “昔于老 奈解尼師今之子 [或云角于水老之子也]”.

간국이 매우 크긴 하지만, 한 인물의 부계에 대해 이설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궁예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만, 석우로가 각간 수로의 아들이라고 한 분주의 내용은 『삼국사기』의 다른 편목이나 『삼국유사』 등의 다른 사서를 통해 쉽게 부정할 수 있다. 나해이사금 본기에는 포상팔국이 가라를 침공하자 가라를 구원해줄 군대를 이끌게 한 이로 이별찬 이음과 함께 ‘태자’ 우로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16대 걸해이질금에 대해 “아버지는 于老肅 각간으로 나해왕의 둘째 아들이다”⁴⁷⁾라고 한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석우로의 출계를 왕실로 설정한 것과 귀족 집안으로 설정한 것은, 어떠한 견해를 택하든 궁예를 왕자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과 비교했을 때 문제의 소재가 다르긴 하다. 우로의 가계 정보를 비롯하여 『삼국사기』의 이른바 ‘초기 기사’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지만, 관련 기록을 종합해보았을 때 “우로는 신라의 최고 관위에 오른 사람이며, 그 부가 나해왕이고 그 아들이 흘해왕인 석씨 왕족으로, 당대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신분의 사람”⁴⁸⁾이라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궁예전에는 본문으로 제기된 ‘이설’이 석우로전에서는 분주로 되어 있는 점 역시 분명한 차이로 할 수 있다. 다만, 본문 혹은 분주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각 인물의父에 대한 다른 설을 소개하는 데 본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석우로나 궁예의 가계와 관련한 이중의 자료가 『삼국사기』 편찬 당시까지 전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궁예의 경우 열전의 두 가지 설에 대해 신라본기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신라본기에 궁예의 행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진성왕 5년(891)에 양길의 부하로서 경략 활동에 가담하여 경명왕 2년(918)에 휘하 인심이 급변하여 쫓겨나기까지 모두 15건의 궁예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별첨 <표-2> 참고). 영역 확장, 칭왕, 국호·연호 변경, 천도와 같은 후고구려의 굵직한 정치적 행보가 대부분이며, 당연한 말이지만 ‘신라’ 그들과 관련이 있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석우로와는 달리 신라본기를 통해서 궁예의 출계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궁예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憲安王紀나 景文王紀에는 언급한바 없”는 것은 의아하다는 시선이 있기도 했다.⁴⁹⁾ 만약 우리에게 오로지 신라본기만 주어져 있다면, 궁예를 양길의 부하였다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인물⁵⁰⁾로만 이해할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삼국사기』 궁예전 찬자의 편찬 당시 사정을 헤아려보고자 한다. 그들 앞에는 궁예·후고구려와 관련한 여러 기록물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를 토대로 궁예의 전기를 작성하였다. 개중에는 궁예의 아버지를 현안왕이라고 한 기록과 경문왕이라고 적은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특정 문건에 이와 같은 이설이 이미 소개되어 있던 것을 찬자가 충실하게 실었을 수도 있다. 어떠한 가능성을 따르든 “궁예의 가계에 대해 최소 두 가지의 정보가 『삼국사기』 편찬 당시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⁵¹⁾만은 확실하다.

46)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나해이사금 14년(209), “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王命大于老與伊伐浪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還之”.

47) 『삼국유사』 권1, 왕력 新羅 第十六乞骸尼叱今, “父于老音角干 即奈解王第二子也”.

48) 金澤均, 1990, 『三國史記』 新羅의 對倭 關係 記事 分析, 『江原史學』 6, 16쪽.

49) 丁中煥, 1969, 앞의 글, 103쪽.

50) 노태돈·노명호·한영우·권태익·서중석 지음, 1997,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창작과비평사, 85쪽.

궁예전 작성자에게는 두 가지 설명 가운데 어느 한쪽을 적극적으로 지지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두 설을 단지 소개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우므로 둘 다 남겨 둔⁵²⁾ 또 다른 사례인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는 이들이 참고했을, 『삼국사기』 이전에 행세했던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궁예의 출생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궁예전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⁵³⁾ 따라서 기존의 자료에 궁예와 후고구려가 어떠한 양상으로 기술되어 있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궁예전 서두의 궁예 가계 정보가 과연 기존의 전거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인지, 일부 논자들이 제기하는 윤색이나 가필 등 어떠한 형태의 조작이 가해진 결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다. 궁예의 부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료 비판’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더하여 궁예전 작성자는 정작 궁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 같다. 찬자들에게는 궁예의 부계 문제를 고심해야 할 여하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삼국사기』 찬자가, 궁예가 ‘宗國’인 신라를 배반했다는 것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신라는 운수가 다하고 도의를 상실하여 하늘이 돕는 바 없었으며 백성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다. 이에 도적떼가 틈을 타 일어난 것이 마치 고슴도치의 털과 같았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 자는 궁예와 견훤 두 사람뿐이었다. 궁예는 본래 신라의 왕자였지만 배반하여 종국을 원수로 삼아 이들을 없앨 것을 도모해 선조의 화상을 베기에 이르렀으니, 그 어질지 못함이 심하였다. … 그 때문에 궁예는 그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고 견훤은 그 자식으로부터禍가 나왔으니 모두 자초한 것이므로 또 누구를 탓하겠는가. … 이들은 단지 태조를 위해 백성들을 몰아다 준 자(歐民者)들이다.⁵⁴⁾

견훤전 말미에 있는 궁예와 견훤에 대한 사론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궁예전과 견훤전의 편제 의도는 두 인물이 단지 “일생을 허비하여 舊新羅의 전통적인 세력에 타격을 가하여 왕건이 대두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주고”,⁵⁵⁾ “고려 건국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여 주었을 따름”⁵⁶⁾이었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 두 인물의 사적은 단지 태조의 고려 개창을 이바지한 것으로 수렴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위 사론에서 과거의 사실을 들어 궁예를 비판한 대목은 모두 궁예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예는 ‘일찍이’[嘗] 홍주의 부석사에 행차했을 때 벽면에 그려진 신라왕의 초상을 보고는

51) 홍창우, 2017, 앞의 글, 358쪽.

52) 『삼국사기』 권41, 열전 1 김유신전 上 “父舒玄 官至蘇判大梁州都督安撫大梁州諸軍事 按庾信碑云 考蘇判金道衍 不知舒玄或更名耶 或道衍是字耶 疑故兩存之”.

53) 申虎澈, 1982, 앞의 글, 33쪽.

54)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전 말미의 사론, “論曰 新羅數窮道喪 天無所助 民無所歸 於是 羣盜投隙而作 若猶毛然 其劇者弓裔甄萱二人而已 弓裔本新羅王子 而反以宗國爲讎 圖夷滅之 至斬先祖之畫像 其爲不仁甚矣 … 故弓裔見棄於其臣 甄萱產禍於其子 皆自取之也 又誰咎也 … 豈可與我太祖相抗歟 但爲之歐民者也”.

55) 金哲垞, 1990, 「弓裔와 甄萱」, 『韓國文化史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52쪽 ; 1990, 「後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에 對하여」,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365쪽.

56) 丁仲煥, 1966, 앞의 글, 108쪽.

이를 배었다고 한다.⁵⁷⁾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궁예가 918년 6월에 왕건을 위시한 휘하 장수들의 ‘舉義’로 쫓겨난 일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위 사론에서 궁예를 “본래 신라의 왕자”[本新羅王子]라고 기술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론을 작성한 김부식이 궁예전 서두의 가계 정보를 고려한 서술임이 틀림없다. “서술자들이 이를 별도로 고증하거나 확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궁예가 신라 왕실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론이 없었던 것이다.”⁵⁸⁾ 다시 말하여 김부식을 위시한 『삼국사기』 찬자들은 궁예가 신라의 왕자였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삼국사기』에서 하나의 범례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5. ‘素光若長紅’이 의미하는 것

사실 ‘조작’이나 ‘변개’도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형태의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명증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앞에서 말한 내용이 『삼국사기』의 판단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또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삼국사기』는 궁예가 ‘본래 신라의 왕자’였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이후 궁예의 출계에 대한 이해는 어떠했을까?

궁예와 후고구려에 무심했던 『삼국유사』 내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찾을 수 없다. 동시대의 『제왕운기』는 “신라왕 경문이 서자를 낳았는데 이는 두 겹이고 나면서 말을 했다네”⁵⁹⁾라고 노래하였다. “『삼국사기』의 출현을 통해 궁예의 부계에 대한 이설이 소개된 이래 현안왕과 경문왕 가운데 어느 한 인물을 궁예의 아버지로 지목한 최초의 사례”⁶⁰⁾이자 그것을 경문왕으로 특기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가정집』이나 『익제난고』 등 고려 후기 일부 문인들의 문집에서도 궁예나 후고구려가 거론되고는 있다. 다만, 그의 부계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 고려시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궁예를 현안왕의 서자, 열자로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는 궁예의 가계에 대한 배려가 없으나, 관찬사서 『동국통감』에 “궁예는 현안왕의 서자로, 처음 5월 5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된 것을 필두로⁶¹⁾ 『연려실기술』,⁶²⁾ 『해동역사』⁶³⁾ 등이 모두 현안왕설을 채택하였다. 개인 문집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거의

57) 『삼국사기』 권50, 열전 10, 궁예전, “嘗南巡至興州浮石寺 見壁畫新羅王像 發劒擊之 其刃迹猶在”.

58) 홍창우, 2022, 「『삼국사기』의 후고구려 인식 -왕조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양면성의 맥락에 유의하여-」 『한국중세사연구』 68, 277쪽.

59) 『제왕운기』 권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後高麗紀 “羅王景文生庶子 齒有兩重含付聲”.

60) 홍창우, 2022,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인식 -‘수용’과 ‘배제’의 논리에 주목하여-」 『전북사학』 64, 74쪽.

61) 『동국통감』 권11, 新羅紀 진성여주 5년(891) “五年〔唐大順二年〕 冬十月弓裔叛于北原 弓裔憲安王庶子 初以五月五日生於外家”.

62) 『연려실기술』 별집 권19, 歷代典故 泰封 “泰封王弓裔 新羅憲安王孽子也”.

63) 『해동역사』 권16, 世紀 16 諸小國 泰封 “按 泰封國舊都 在今鐵原府 其王弓裔 姓金氏 新羅憲安

비슷하다.⁶⁴⁾ 궁예전과 같이 이설을 모두 제기하고 있는 사서로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들 수 있다.⁶⁵⁾ 다만, 후대의 기록들 역시 이를 단순히 ‘언급’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 과거의 사람들은 궁예의 출계에 대해 이렇게 무심했다. 이는 후대인들이 궁예가 신라의 왕자였다는 사실에 별다른 의구심이 없었다고도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쯤에서 이 글 서두에서 언급했던, 궁예 출생 당시 관찰되었다는 자연 현상의 문제를 거론하여 논지를 보강해보려 한다. 논지 전개를 위해 해당 사료를 다시 인용해본다.

5월 5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집 위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빛이 있어 하늘 위로 뻗쳐 있는 것과 같았다. 일관이 아뢰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 태생으로 날 때부터 이가 있고 또 빛나는 것이 이상하니 장래 국가에 이름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궁중의 관리를 시켜 아이의 집으로 가서 그를 죽이게 하였다. 관리가 이불 안에 있는 아이를 빼앗아 누각 아래로 던졌는데, 젖먹이는 종이 몰래 받다가 잘 못하여 손이 닿아 한쪽 눈이 멀게 되었다. (유비가 아이를) 안고 달아나 숨어서 고생하며 길렀다.

‘긴 무지개와 같은 흰빛’[素光若長虹]은 하얀색의 무지개, 즉 ‘白虹’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이 하늘까지 닿아있었다고 했으므로, 만약 이것이 실제 관찰 정보라고 한다면, 아마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흰 무지개가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어떠한 현상처럼 보였던 것 같다. 일관이 ‘이상’하다고 한 ‘광염’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지개는 대기 중에 남아있는 물방울이 햇빛이나 달빛 등에 의해 굴절·반사되어 생기는 띠로, 광학 현상의 일종이다. 무지개의 색깔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바, 무지개가 ‘흰빛’을 발산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자연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⁶⁶⁾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흰 무지개가 나타났거나 그것이 해를 뚫었다는 기사가 종종 확인되며,⁶⁷⁾ 광복 직후인 1946년 2월 7일에는 흰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관측되었다고 한다.⁶⁸⁾ 지금도 흰 무지개가 주는 압도적인 경이로움을 앞다투어 체보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⁶⁹⁾ 이는 흰 무지개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관

王庶子也”.

64) 대표적인 몇몇 사례만을 예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記言』 권33 外篇, 東事2 新羅世家 下 “王立一年薨 遺命立女弟曼 是爲眞聖王 主淫亂無紀 佞倖用事 政大亂 弓裔叛據北原 裔憲安王庶出子也”; 『무명자집』 詩稿 책6, 詩 詠東史 355 “弓裔生時亦有徵 屬天白氣似虹升 重午以生生有齒 不如只作善宗僧 [弓裔憲安王庶子...]”; 『임하필기』 권11, 文獻指掌編 泰封 “按 王姓金名弓裔 新羅憲安王庶子也”; 권36, 扶桑開荒攷 泰封 “弓裔者 新羅憲安王之庶子也”.

65) 『동사강목』 권5上, 辛亥 진성여주 5년(891) “弓裔憲安王庶子 [或云景文王子]”.

66) 「무지개는 정말 일곱 가지 색깔일까?」,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4일 자 ; 「무지개는 정말 일곱 색깔일까?」, 『대구신문』 2020년 5월 20일 자.

67) 「京城과 平康에 白虹」, 『東亞日報』 1926년 4월 28일 자 ; 「靑天에 白虹, 漣川에 나타나」, 『東亞日報』 1926년 5월 17일 자 ; 「今朝, 白虹貫日 -氣象學으로 幻日環-」, 『東亞日報』 1933년 3월 4일 자 ; 「吉州 上空의 奇現象 -太陽을 둘러싼 白虹-」, 『朝鮮中央日報』 1934년 11월 15일 자 등.

68) 「白虹이 貫日 -七日 낮 全朝鮮에서 現示-」, 『東亞日報』 1946년 2월 11일 자.

69) 「북극에 희귀한 ‘흰 무지개’ 관찰」, 『한국일보』 2011년 12월 13일 자 ; 「“오색하지만 드물다” 안개무지개 포착... 원리는?」, 『나우뉴스』 2016년 8월 28일 자 등.

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잘 알려준다. 흰빛의 무지개는 분명 ‘天體의 異變’⁷⁰⁾이나, 본질에서는 일상의 관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왕의 곁에서 여러 자연 현상을 관측하고 점을 쳐 조언하는 역할을 맡은 일관⁷¹⁾은 왕에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아이가 국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르지 말라고 하였다.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여기에서 일관이 흰 무지개의 출현에 대해 ‘이상’하다고 해석한 점, 그리고 이를 들어 궁예를 온갖 불길한 조짐을 가진 아이로 지목한 점에 있다. 해당 대목에서는 일관이 왜 저와 같이 풀이했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 다만, ‘광염이상’하다고 한 일관의 진단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무지개라면 마땅히 발현해야 할 어떤 색깔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면, 분명 그에게는 무지개가 띠어야 하는 보통의 색깔이 존재했다는 것이 된다.

더군다나 국왕은 일관의 해석을 받아들여 자기가 낳은 자녀의 양육을 쉽게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일관의 풀이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다. 궁예의 출생 관련 정보에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는 시각에서는 타인의 말만 듣고 자식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다소 이해되지 않은 ‘작위적 설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여하튼 일관의 견해가 개인 차원의 그것이 아니었으며, 왕 또한 흰 무지개의 출현과 관련한 당시의 ‘보편적인 해석’을 숙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논지 전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신라 하대 王巨仁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신라 大耶州 사람이었던 왕거인은 진성왕 대에 당시의 시정을 비방한 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다.⁷²⁾ 억울한 왕거인이 이에 獄壁에 썼다는 이른바 ‘忿怨詩’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실려 있다. 상호 간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그 중 『삼국유사』 쪽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燕丹이 피눈물 흘리자 무지개가 해를 뚫었고	燕丹泣血虹穿日
鄒衍이 비통함 머금자 여름에 서리가 내렸도다.	鄒衍含悲夏落霜
지금 내 불우함 돌아보매 옛일과 같으나	今我失途還似舊
하늘은 어이하여 아무 조짐이 없는가!	皇天何事不垂祥 ⁷³⁾

왕거인이 중국 전국시대의 음양오행가 추연을 거론하며 자신의 처지를 빗댄 대목은 두 책에서 모두 발견된다. 이를 통해 9~10세기의 “지식인들이 추연의 오행상승설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음을 짐작”하듯이,⁷⁴⁾ 물론 『삼국사기』에서는 연단 대신 于公의 통곡⁷⁵⁾이 언급되긴

70) 「白虹이 貫日 -七日 낮 全朝鮮에서 現示-」, 『東亞日報』 1946년 2월 11일 자.

71) 辛鍾遠, 1980, 「古代 日官의 性格」, 『韓國民俗學』 21 ; 1990, 「古代의 日官과 巫 -샤마니즘의 政治思想史的 意義-」, 『國史館論叢』 13 ; 1992,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 박은애, 2010, 「한국 고대의 日者와 日官」, 『지역과 역사』 27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847쪽 ; 최일레, 2019, 「한국 고대 기록자로서 ‘史’의 원형에 대한 접근 - 巫, 巫者, 占者, 日者, 日官의 기능 및 변화를 단서로-」, 『歷史學研究』 75, 12쪽.

72)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2년(888) 2월.

73) 『삼국유사』 권2, 기이 眞聖女大王居陀知조.

74) 이강래, 2005, 「후백제의 당대 인식 -토대와 지향의 맥락에서-」 『한국고대사연구』 35 ; 2011, 앞의 책, 251쪽.

했지만,⁷⁶⁾ 그렇다면 그가 연단을 언급한 부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史記』의 魯仲連·鄒陽 열전에는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인 추양이 참소를 당한 것에 대해, 자신을 문객으로 받아준 양나라 효왕에게 글을 올려 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다. 추양은 과거 진나라의 시황제와 그가 인질로 잡아두었던, 연나라의 태자 단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자신을 변호한다. 이에 따르면 진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단이 복수를 위해 평소 그를 흠모하던 형가라는 자를 자객으로 보내 시황제의 암살을 기도했다. 그런데 행장이 다 꾸러졌음에도 형가가 한참 동안 출발하지 않자 단이 형가의 마음이 바뀌어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고, 추양은 이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언급하며 효왕에 대한 충심을 드러냈다.

추양은 이 대목에서, 형가가 거사를 위해 길을 떠나기 전 하늘이 감응하여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현상’[白虹貫日]이 일어났다고 말한다.⁷⁷⁾ 그러나 형가는 시황제를 암살하는 데 실패하였고 현장에서 사로잡혀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다. 이에 대노한 시황제가 왕전이라는 장수를 보내 연을 침공하자 회왕이 이를 면하기 위해 태자의 목을 베어 보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은 멸망하고 말았다.⁷⁸⁾

『晉書』 천문지에 따르면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으면 가까운 신하 가운데 난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후 중에서 모반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⁷⁹⁾ 『南齊書』 천문지에서도 “양기가 부족하면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으니 군주가 이를 싫어한다”라고 하였다.⁸⁰⁾ 물론 『사기』의 연단 관련 고사에서는 ‘백홍관일’이 시황제의 암살을 기획한 것에 하늘이 감응한 결과 등장했다 하였으므로, 단과 형가에게는 이를 길조의 맥락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이들이 ‘백홍관일’의 당대적 해석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나 계획한 일의 성공을 위해 자기중심적 해석을 거친 결과일 것이다. 먼 훗날 고려 우왕 대에 이성계가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때, 장단의 창공에서 출현한 ‘백홍관일’을 보고 占者가 ‘전쟁에서 승리할 조짐’[戰勝之兆]으로 해석했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⁸¹⁾ 그러나 시황제는 목숨을 부지했고 두 인물은 모두 죽었으니, 결과적으로 흰 무지개의 출현은 단 일행에게 흉조였던 것이다. 훗날 後漢의 여순이 『사기』의 ‘백홍관일’에 “흰 무지개는 병란이며, 해는 군주를 말한다”[白虹兵象 日爲君]라고 주해했던 것처럼, 후대인들에게도 연단의 사례는 군주에게 흉조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고사로서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왕거인을 비롯하여 9세기를 살고 있던 신라 지식인들은 이 연단과 관련한 고사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등장하는 흰 무지개의 상징성에 대해서도 익숙하였을 것이다. 우리

75) 『한서』 권71, 열전41 于定國.

76)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2년(888) “時有無名子 欺謗時政 構辭榜於朝路 王命人搜索 不能得 或告王曰 此必文人不得志者所爲 殆是大耶州隱者巨仁耶 王命拘巨仁京獄 將刑之 巨仁憤 怨 書於獄壁曰 于公慟哭三年早 鄒衍含悲五月霜 今我幽愁還似古 皇天無語但蒼蒼 其夕忽雲霧震 雷雨雹 王懼出巨仁放歸”.

77) 『사기』 권83, 열전23 魯仲連鄒陽 “昔者荊軻慕燕丹之義 白虹貫日 太子畏之 …”.

78) 『사기』 권86, 열전26 刺客. 형가의 진 시황제 암살 미수와 이어지는 진의 연 침공 과정은 이 자객 열전에 더욱 상세한데, 다만 여기에서는 ‘백홍관일’을 운운한 대목이 보이지 않는다.

79) 『진서』 권12, 지2 天文 中 “白虹貫日 近臣爲亂 不則諸侯有反者”

80) 『남제서』 권12, 지4 천문 上 “陽不足 白虹貫日 人君惡之”.

81) 『고려사』 권126, 열전39 姦臣 변안열전 “師出至長湍 有白虹貫日 占者以爲戰勝之兆”.

나라 고대 사회에서도 (흰) 무지개와 관련한 기록이 이따금 확인된다.

- 성 왕 27년(549), 봄 정월 경신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⁸²⁾
- 진평왕 53년(631), 흰 무지개가 궁궐의 우물을 삼키고, 토성이 달을 침범하였다.⁸³⁾
- 성덕왕 24년(725), 봄 정월에 흰 무지개가 보였다.⁸⁴⁾
- 효성왕 12년(738),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고, 소부리군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였다.⁸⁵⁾
- 경덕왕 20년(761), 봄 정월 초하루에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고, 해에 햇무리가 있었다.⁸⁶⁾

『삼국사기』에 보이는 무지개와 관련한 기록을 발생 연대순으로 나열해본 것이다. 월차가 확인되는 경우 모두 정월에 관측되었다는 점과 고구려의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앞에서 살폈던 궁예 출생 당시 확인된 흰 무지개도 신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신라의 사례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앞뒤 문맥을 살폈을 때 이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진평왕 53년에 출현했다는 무지개의 경우, 이듬해 왕의 흉사로 귀결되었으므로⁸⁷⁾ 토성의 犯月과 맞물려 그 연관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겠다. 백제 성왕의 사례에 대해서는 “왕의 천도나 국호 개정과 같은 정치적 변혁에서 종묘사직을 소홀히 한 데 대한 경고인지 모른다”라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⁸⁸⁾ 마치 백제 말기의 패망을 예조하는 사태를 연상시키는, 소부리군 인근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효성왕 대의 기사는 ‘백홍관일’과 함께, 당시 왕비의 교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추론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한다.⁸⁹⁾ 경덕왕 20년의 ‘虹貫日’과 ‘日有珥’를 통해서 경덕왕 말기의 ‘불안한 정정’을 읽어낸 성과도 거론해야 한다.⁹⁰⁾ 그러나 (흰) 무지개가 나타난 현상에 당대인의 ‘특정 해석’이 수반된 경우는 궁예전의 해당 기사가 유일하다. 다시 말하여 이를 제외한다면, 『삼국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무지개 출현’ 정보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유추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다만, “단순히 기록자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경험자의 관찰과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⁹¹⁾ 『삼국사기』 편찬 이전 고려의 조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인종) 8년(1130) 8월 병신에 흰 무지개가 서쪽에서 일어나 북쪽을 향해 가다 소멸하였

82)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4 성왕 27년(549) “春正月庚申 白虹貫日”.

8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3년(631) “白虹飲于宮井 土星犯月”.

84)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24년(725) “春正月 白虹見”.

85)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효성왕 2년(738) “白虹貫日 所夫里郡河水變血”.

86)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20년(761) “春正月朔 虹貫日 日有珥”.

8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4년(632) “春正月 王薨 諡曰眞平 葬于漢只 …”.

88) 申滢植, 1981, 『三國史記 研究』, 一潮閣, 138쪽.

89) 曹凡煥, 2011, 「王妃의 交替를 통하여 본 孝成王代의 政治的 動向」 『韓國史研究』 154, 50쪽 ; 2022, 『신라 중대 혼인 정치사』, 일조각, 152~154쪽 ; 尹太陽, 2020, 「孝成王代의 정치·외교적 動向과 景德王으로의 왕위 계승」, 『震檀學報』 135, 19쪽.

90) 李熙德, 1999, 「삼국의 地變과 정치」,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해안, 304쪽 ; 신정훈, 2010, 「경덕왕대 왕권강화책의 성격」,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105쪽.

91) 이강래, 2020, 「고대의 경험과 사유 방식 -『삼국사기』 정보의 설명력을 토대로-」, 『한국 고대의 경험과 사유 방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15쪽.

다. 일자가 아뢰기를 “『개원점(경)』에 이르기를 흰 무지개는 간사한 신하가 군주에 모반을 꾀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합니다.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고 덕을 닦아 하늘의 견책에 답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10월 무자 二更에도 흰 무지개가 乾方과 坤方에서 서로 충돌하다가 땅에 닿는 것이 발견되더니 三更이 되어서야 소멸하였다. 태사가 아뢰어 말하기를 “흰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아래에 유혈이 있게 됩니다. 흰 무지개는 모든 재앙의 근본이자 무리가 난을 일으키는 토대이오니, 마땅히 덕을 닦고 반성하여 하늘의 뜻에 답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중화전에서 도액도장을 17일간 열었다.⁹²⁾

인종 8년인 1130년 8월과 10월에 천상에서 흰 무지개가 관측되었다. 당시 해석을 담당한 일자와 태사는 군주에 대해 신하의 도전과 유혈 사태가 있을 징조, 즉 ‘天譴’으로 해석하여 왕에게 행실을 삼가고 덕을 닦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임완의 상소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이 재변이 일어나자 조서를 내려 조언을 구하니 임완이 상소하여 말하였다. “... 근자에 하늘의 변화가 평소와 달라 폐하께서 천명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시니 직언을 듣고자 생각하시어 조서를 내려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이는 만세의 복입니다. 신이 일찍이 동중서의 책문을 보았는데 ‘나라가 도를 잃고 장차 패망하려 하면 하늘이 이에 먼저 災異를 내림으로써 꾸짖는다.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다시 怪異를 내림으로써 경계하고 두렵게 한다. 그 래도 변할 줄 모르면 傷敗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 근년 이래 재변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기근이 거듭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고 정월에는 우레와 벼락이 특이했으니 이는 近古에 듣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생각건대, 폐하께서 하늘에 응하신 것은 꾸며낸 것으로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⁹³⁾

『고려사절요』에는 위 상소문의 축약된 내용이 인종 12년(1134) 5월조에 실려 있는바,⁹⁴⁾ 아마도 이로부터 4년 전 발생한 백홍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임완은 동중서의 재 이론을 원용하여 왕에게 당시에 일어났던 변고들을 ‘천견’이라 경고하였다. 중국 한나라의 유학자인 동중서는 『春秋繁露』에서 “무릇 재이의 근본은 모두 나라의 실정에서 나온다. 나라의 실정은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하니, 하늘이 재해를 내림으로써 譴告하고, 견고했음에도 변화할 줄 모르면 이에 괴이를 보여 놀라게 하며, 그런데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이에 재앙과 허물이 이르게 된다”라고 했던 인물이다.⁹⁵⁾ 『後漢書』 오행지에는 “무지개가 출현하면 후비가 몰래 왕을 위협한다”라고 했으며,⁹⁶⁾ 『新唐書』 천문지에 따르면 흰 기운은 병란의 상징

92) 『고려사』 권54, 지8 五行2 金 “(仁宗)八年八月丙申 白虹起自西方 向北行滅 日者奏 開元占云 白虹露奸臣謀君 宜反身修德 以答天譴 十月戊子 二更 白虹相衝乾坤方 至地發見 三更乃滅 太史奏曰 白虹出 其下有血 白虹是百殃之本 衆亂所基 固當修省 以答天意 故重華殿 置度厄道場 一七日”.

93) 『고려사』 권98, 열전11 諸臣 임완전 “王以災變 下詔求言 完上疏曰 ... 近者 天變異常 陛下祇畏天命 思聞直言 下詔求言 此萬世之福也 臣嘗觀董仲舒策 有曰 國家將有失道之敗 天乃先出災異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 以警懼之 尙不知變而傷敗乃至 ... 比年以來 災變屢作 饑饉荐臻 近者 白虹貫日 正陽之月 雷震特異 此近古未聞也 意者 陛下應天以文 而不以實耶”.

94) 『고려사절요』 권10 仁宗恭孝大王 12년 5월.

95) 『춘추변로』 권8 必仁且智 “凡災異之本 盡生於國家之失 國家之失乃始萌芽 而天出災害以譴告之 譴告之 而不知變 乃見怪異以驚駭之 尙不知畏恐 其殃咎乃至”.

이라고 한다.⁹⁷⁾ 흰 무지개의 등장이 예로부터 중국 황실 내에서 신하의 반란이나 군주의 암살과 같은 변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음은 앞에서 확인했던 바로, 이러한 해석이 고려에서도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특정 사태에 대한 보편적 해석이 중국과 우리 사이에 공유된 사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⁹⁸⁾

조선시대에도 흰 무지개와 관련한 수많은 기사가 확인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백홍’을 검색해보면 무려 400건을 상회하는 기사가 추출된다. 거의 조선 전 시기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흰 무지개가 ‘貫日’했다는 것과 함께 등장한다. 단적인 예로, 중종이 잦은 재변 발생에 신하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자 홍경주가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것은 곧 병상입니다”라고 하며 상·하가 聖心을 갖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⁹⁹⁾ 중종 때에는 유독 ‘백홍’의 출현이 잦았는데,¹⁰⁰⁾ 왕은 이것이 병란을 상징하므로 위아래 모두 덕을 닦는 데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전교를 여러 차례 내렸을 정도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나 탄생 당시에 관찰된 자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현상 그 자체로는 여하한 설명도 되지 않는다.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러한 점에서 흰 무지개는 ‘기호’(signs)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감각만으로는 여하한 의미를 포착할 수 없는 성질이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하여 관찰된 ‘흰 무지개’에 옛날 사람들은 ‘불길한 조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여기에 광범하게 동의해왔다. 그 결과 백홍은 ‘咎徵’을 ‘상징’(symbols)하게 된 것이다.¹⁰¹⁾ 상징이 된 하나의 현상은 자주 반복되면서 다시 기호화한다.¹⁰²⁾ 궁예가 태어났을 무렵의 사람들은 흰 무지개의 출현이나 혹은 흰 기운이 보였다는 것이나 혹은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을 별다른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홍조’로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록하는 후대 기록자들의 관념과도 공명했기 때문에 훗날 문자 정보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궁예가 태어났다는 저 날에 무지개 모양의 흰빛이 실제로 관찰되었는지는 증명할 수 없다. 어쩌면 그 현상이 실제 관측되었는지가 본질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흰 무지개의 출현이 의미하는 보편적 해석을 동원하여 궁예를 제거해야 하는 당위를 내세웠던 당대의 사유 방식과 후대의 수용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궁예의 ‘출생에 얽힌 불길한 조짐’¹⁰³⁾이 신라 당대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이자, 특정 ‘왕족’을 왕위계승의 범주로부터 이탈시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 설화적 변용을 거쳐 형성된 결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삼국사기』 궁예전이 전하는 궁예의 ‘신라 왕자’ 출신을 ‘역사적 사실’로 판단한다.

96) 『후한서』 續漢志 권17, 오행5 靈帝 光和 元年 6月 丁丑 “虹出 后妃陰脅王者”.

97) 『신당서』 권32, 지22 천문2 日變 “白氣 兵象也” 및 月變 “白氣爲兵喪”.

98) 이강래, 2019, 『고대의 풍경과 사유 -한국고대사의 경험과 인식-』, 세창출판사, 83쪽.

99)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3월 丁酉[9일].

100) 숙종 때에도 백홍 관련 기사가 많은데, ‘貫日’은 물론 ‘貫月’과 함께 등장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101) 김일권, 2011,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468쪽 ; 찰스 엘더·로저 콕 著, 柳永玉 譯, 1993, 『상징의 정치적 이용』, 弘益齋, 51~60쪽.

102) 레스리 A. 화이트 著, 李文雄 譯, 1977, 『문화의 概念 -文化決定論과 文化進化論의 立場-』, 一志社, 17쪽.

1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제공 『삼국사기』 궁예전의 소표제.

6. 맺음말

이 글은 근대 역사학의 출범 이후 학술적으로 축적된 후고구려·궁예 관련 업적들에서 간취할 수 있는 ‘정보’ 해석의 몇 가지 경향을, 『삼국사기』 궁예전에 보이는 궁예의 가계 및 출생 기록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매개로 살펴본 것이다.

『삼국사기』의 궁예 전기는 후고구려 왕조사나 궁예 개인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1차 사료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그러므로 궁예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바, 첫머리에서부터 제기된 가계의 異說과 출생에 얽힌 비경험적 사태로 인해 연구자마다 견해 차이가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선 선행 연구에서 이 정보들을 수용하는 방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가계 정보에 의하면 궁예는 현안왕 혹은 경문왕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을 모두 생물학적 아버지로 둘 수는 없지만, 이에 따른다면 궁예는 신라왕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두 왕 가운데 누가 궁예의 아버지였을지를 탐색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연구자들은 두 왕의 자녀 유무, 현안왕에서 그의 사위 경문왕으로의 왕위계승 과정, 국왕별 정치적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궁예의 부계를 특정인으로 지목한다. 같은 사료와 정황적 근거를 놓고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하고는 있지만, 『삼국사기』 궁예전이 전달하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어느 쪽을 주장하는가와 별개로 이 논의에 개입된 자들은 궁예의 ‘신라왕자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계와 출생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계에 대한 이설이 있다는 점, 출생에 얽힌 일화가 꾸며졌음이 명백해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정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는 ‘조작’의 산물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따라서 조작의 주체나 그 의도를 진단해왔다. 그 결과 조작 주체로 궁예(세력)와 왕건(세력)이 거론되었다. 궁예의 경우 반신라 진영을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본인의 가계를 신라에 연결시켰다고 한다. 왕건의 경우 궁예를 몰아낸 당위성을 찾기 위해 그러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삼국사기』 궁예전이 전달하는 정보의 범위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궁예는 신라 왕실 출신이 아니며, 조작 주체의 어떠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설명이라는 것이다.

제기된 결론들의 지지 여부를 차치하고, 일단 『삼국사기』의 내부 논리에 주목해보았다. 『삼국사기』 찬술을 주도한 자들은 궁예의 전기를 세우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마련한 자료들을 통해서는 궁예의 부계를 확정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闕疑’, 즉 의심되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별도의 판단을 유보했으나 찬술자들은 궁예가 신라의 왕자였다고 여기고 있었다. 사론을 통해 이들은 궁예가 ‘본래 신라의 왕자’였으나 자신의 나라를 배반한 것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삼국사기』의 세계에서 궁예는 신라의 왕자였다.

물론 『삼국사기』의 정보를 부동의 사실로 간주하자는 제안은 아니다. 이에 내부 논리를 존중한 위에서 궁예의 출생 관련 정보에서 ‘광염이상’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궁예가 태어났을 때 집 위로 긴 무지개 모양의 흰빛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이를 ‘흰 무지개’[白虹]로 보았거니와, 이것은 예로부터 왕실 내 ‘흉조’가 발생할 조짐으로 여겨져 왔다. 여러 고사를 통해 중국에서는 ‘백홍관일’을 황실 내 변고가 일어날 예조로 간주하였고, 우리나라 고대의 삼국 역시 이와 방불한 관념이 있었다. 『삼국사기』가 편찬된 고려 인종 대에도 창공에 나타난 무지개는 불길한 자연 현상이자 곧 천견에 다름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즉, 고금을 막론하고 백홍은 구정을 ‘상징’하였던 것이다.

현재의 우리가 궁예 출생 당시 ‘素光若長虹’의 실제 등장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어쩌면 이 자연 현상이 실제 발현되었는지가 본질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예로부터 ‘불길한 징조’를 상징해온 흰빛의 무지개를 동원하여 궁예를 제거해야 할 당위를 내세웠던 신라 당대의 사유와 후대의 채록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서 왕위를 이을 범주에 있었던 인물이었으나,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 각축전에서 밀려나 낙향했던바,¹⁰⁴⁾ 결국 왕위계승자의 축출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당대적 맥락’에서 보여주는 일화로 보고자 한다. 보기에 따라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 충분한 궁예의 가계 및 출생 관련 정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궁예는 실제로 신라의 왕자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記言』, 『南齊書』, 『東國通鑑』, 『東史綱目』, 『無名子集』, 『史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順天金氏世譜』, 『新唐書』, 『燃藜室記述』, 『林下筆記』, 『中宗實錄』, 『增補文獻備考』, 『晉書』, 『春秋繁露』, 『漢書』, 『海東繹史』, 『後漢書』

2. 저서

강봉룡, 2016,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가람기획.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2017, 『(수정증보판)한국사』, 새문사.
고전연구실 옮김, 2000, 『新編 三國史記』 下, 신서원.
김당택, 2015, 『우리 한국사』, 푸른역사.

104) 震檀學會 編, 1959,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719쪽 ; 李丙燾, 1960, 『國史大觀』, 寶文閣, 160쪽 ; 李基白, 1990, 『(新修版)韓國史新論』, 一潮閣, 142쪽 ; 김갑동, 1995, 「고려 전기 정치체제의 성립과 구조」 『한국사』 5, 한길사, 116쪽 ; 邊太燮, 1996, 『(四訂版)韓國史通論』, 三英社, 148쪽 ; 박용운, 2008, 『(수정증보판)고려시대사』, 일지사, 40쪽 ; 신호철, 2008, 『후삼국사』, 도서출판 개신, 66쪽 ; 김당택, 2015, 『우리 한국사』, 푸른역사, 95쪽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2017, 『(수정증보판)한국사』, 새문사, 103쪽 ; 한영우, 2017, 『(제2전면개정판)다시찾는 우리 역사』 1, 경세원, 181쪽 ; 한국역사연구회, 2022, 『시민의 한국사』 1, 돌베개, 172쪽.

- 김일권, 2011,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창겸, 2003,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 노태돈·노명호·한영우·권태익·서중석 지음, 1997,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창작과비평사.
- 震檀學會 編, 1959,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 文暲鉉, 1987,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 研究』, 螢雪出版社.
- 박용운, 2008, 『(수정·증보판)고려시대사』, 일지사.
- 邊太燮, 1996, 『(四訂版)韓國史通論』, 三英社.
-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 申采浩 著, 李萬烈 註釋, 1983, 『註釋 朝鮮上古史』 上,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 申澄植, 1981, 『三國史記 研究』, 一潮閣.
- 신호철, 2008, 『후삼국사』, 도서출판 개신.
- 이강래 옮김, 1998, 『삼국사기』 II, 한길사.
- 이강래, 2007,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 이강래, 2011, 『삼국사기 인식론』, 一志社.
- 이광식, 2006, 『궁예 평전』, Eastward.
- 李基東, 1997,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 李基白, 1990, 『(新修版)韓國史新論』, 一潮閣.
- 이도학, 2000, 『궁예 진훤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 李丙燾, 1960, 『國史大觀』, 寶文閣.
- 李丙燾 譯註,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2012,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鄭淸柱, 1996,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 조범환, 2022, 『신라 중대 혼인 정치사』, 일조각.
- 조인성, 2007,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 崔圭成, 2005, 『高麗 太祖 王建 研究』, 주류성.
- 한국역사연구회, 2022, 『시민의 한국사』 1, 돌베개.
- 한영우, 2017, 『(제2전면개정판)다시찾는 우리역사』 1, 경세원.
- 레스리 A. 화이트 著, 李文雄 譯, 1977, 『文化的 概念 -文化決定論과 文化進化論의 立場-』, 一志社.
- 찰스 엘더·로저 콕 著, 柳永玉 譯, 1993, 『상징의 정치적 이용』, 弘益齋.

3. 논문 및 신문기사

- 김갑동, 1995, 「고려 전기 정치체제의 성립과 구조」, 『한국사』 5, 한길사.
- 金哲堧, 1990, 「弓裔와 甄萱」, 『韓國文化史論』,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哲堧, 1990, 「後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에 對하여」,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金澤均, 1990, 「『三國史記』新羅의 對倭 關係 記事 分析」, 『江原史學』 6.
- 金澤均, 2004, 「弓裔와 世達寺」, 『史學研究』 75.
- 金皓東, 2008, 「(서평)『궁예정권』의 재조명 읽기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李在範,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혜안, 2007-」, 『新羅史學報』 12.
-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1975, 「一目大王의 鐵椎」, 『(改訂版)丹齋申采浩全集』 下, 螢雪出版社.
-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1977, 「一耳僧」, 『(改訂版)丹齋申采浩全集』 別集, 螢雪出版社.
- 박은애, 2010, 「한국 고대의 日者와 日官」, 『지역과 역사』 27.
- 朴漢高, 1974, 「弓裔姓名考 -高句麗繼承標榜과 關連하여-」, 『霞城李瑄根博士古稀紀念論文集 韓國學論叢』, 螢雪出版社.
- 朴漢高, 1978, 「後三國의 成立」,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 송은일, 2013, 「弓裔의 出身에 대한 再論」, 『한국고대사연구』 70.
- 신정훈, 2010, 「경덕왕대 왕권강화책의 성격」,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 辛鍾遠, 1980, 「古代 日官의 性格」, 『韓國民俗學』 21.
- 申虎澈, 1982, 「弓裔의 政治的 性格 -특히 佛敎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29.
- 梁敬淑, 1993, 「弓裔와 그의 彌勒佛 思想」, 『北岳史論』 3.
- 吳永淑, 1985, 「泰封國形成과 弓裔의 支持基盤」,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尹太陽, 2020, 「孝成王代의 정치·외교적 動向과 景德王으로의 왕위 계승」, 『震檀學報』 135.
- 이강래, 2020, 「고대의 경험과 사유 방식 -『삼국사기』 정보의 설명력을 토대로-」, 『한국 고대의 경험과 사유 방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李熙德, 1999, 「삼국의 地變과 정치」,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 李貞信, 1984, 「弓裔政權의 成立과 變遷」, 『藍史鄭在角博士古稀紀念 東洋學論叢』, 고려원.
- 丁善溶, 1997, 「弓裔의 勢力形成 過程과 都邑 選定」, 『韓國史研究』 97.
- 丁仲煥, 1966, 「高麗建國考」, 『東亞論叢』 3.
- 曹凡煥, 2011, 「王妃의 交替를 통하여 본 孝成王代의 政治的 動向」, 『韓國史研究』 154.
- 조법중, 2006, 「후백제와 태봉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新羅文化』 27.
- 趙仁成, 1991, 『泰封의 弓裔政權 研究』,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인성, 2003, 「태봉」, 『신편 한국사』 11.
- 최광식, 2018, 「견훤과 궁예」, 『『삼국유사』의 신화 이야기』, 세창출판사.
- 최일레, 2019, 「한국 고대 기록자로서 ‘史’의 원형에 대한 접근 -巫, 巫者, 占者, 日者, 日官의 기능 및 변화를 단서로-」, 『歷史學研究』 75.
- 洪淳昶, 1982, 「變動期の 政治와 宗教 -後三國時代를 中心으로-」, 『人文研究』 2,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홍창우, 2017, 「『삼국사기』 후고구려·궁예 관련 기록의 계통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7.
- 홍창우, 2022, 「『삼국사기』의 후고구려 인식 -왕조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양면성의 맥락에 유의하여-」, 『한국중세사연구』 68.
- 홍창우, 2022,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인식 -‘수용’과 ‘배제’의 논리에 주목하여-」, 『전북사학』 64.

황선영, 2001, 「後三國의 外交關係」 (韓國中世史學會 지음),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정림사.

「京城과 平康에 白虹」, 『東亞日報』 1926년 4월 28일 자.

「靑天에 白虹, 漣川에 나타나」, 『東亞日報』 1926년 5월 17일 자.

申采浩, 「朝鮮史(12)」, 『朝鮮日報』 1931년 6월 22일자.

「今朝, 白虹貫日 -氣象學으론 幻日環-」, 『東亞日報』 1933년 3월 4일 자.

「吉州 上空의 奇現象 -太陽을 둘러싼 白虹-」, 『朝鮮中央日報』 1934년 11월 15일 자.

「白虹이 貫日 -七日 낮 全朝鮮에서 現示-」, 『東亞日報』 1946년 2월 11일 자.

「북극에 희귀한 ‘흰 무지개’ 관찰」, 『한국일보』 2011년 12월 13일 자.

「무지개는 정말 일곱 가지 색깔일까?」,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4일 자.

「“오싹하지만 드물다” 안개무지개 포착... 원리는?」, 『나우뉴스』 2016년 8월 28일 자.

「무지개는 정말 일곱 색깔일까?」, 『대구신문』 2020년 5월 20일 자.

[별첨] <표-1>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인물들의 가계

※ 附傳된 인물 제외

권수	인물	가계	권수	인물	가계
41~43	김유신	조부: 김무력 부: 김서현(비문: 김소연)		눌최	부: 대나마 도미
	을지문덕	가문의 계보가 자세하지 않다.		설계두	신라의 세력 있는 집안 자손
	거칠부	조부: 잉숙 각간 부: 물력 이찬		김영윤	조부: 김흠춘(김흠순으로도 쓴다) 부: 급찬 반골
	거도	혈족의 성씨가 전해지지 않아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관창	부: 품일
	이사부	내물왕의 4세손		김흠운	부: 달복 잡찬
44	김인문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	47	열기	성씨가 기록에 전하지 않는다.
	김양	조부: 종기 소관 부: 정여 파진찬		비령자	고향과 집안의 성씨를 알 수 없다.
	흑치상지	백제 서부 사람		죽죽	부: 학열 찬간
	장보고·정년	신라 사람, 고향과 집안 내력은 알 수 없다.		필부	부: 존대 아찬
	사다함	부: 구리지 급찬		계백	백제 사람
	을파소	고구려 사람		향덕	웅천주 관직향 사람, 부: 선
	김후직	지증왕의 증손		성각	청주 사람, 성씨와 집안은 기록에 전하지 않는다.
	녹진	부: 수봉 일길찬		실희	부: 대사 순덕
	밀우·유유	고구려 사람		물계자	내해 이사금 때 사람
45	명림답부	고구려 사람		백결선생	어떤 이인지 내력을 알 수 없다.
	석우로	부: 내해 이사금 혹은 각간 수 로의 아들	48	검군	부: 구문 대사
	박제상	조부: 아도 갈문왕 부: 물품 파진찬		김생	부모가 한미하여 집안 내력을 알 수 없다.
	귀산	부: 무은 아간		솔거	신라 사람, 출신이 한미하여 집안 내력이 전해지지 않는다.
	온달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		효녀 지 은	부: 연권
	강수	부: 석체 나마		설씨녀	율리 백성의 딸
46	최치원	왕경 사랑부 사람, 집안 내력은 알 수 없다.		도미	백제 사람
	설충	조부: 담날 나마 부: 원효	49	창조리	고구려 사람
	해론	부: 찬덕		개소문	부: 동부 대인 대대로
47	소나	부: 심나(황천)	50	궁예	부: 현안왕 혹은 경문왕
	취도	부: 나마 취복		견훤	부: 아자개

[별첨] <표-2>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후고구려·궁예 관련 기사

순번	권수	왕대력	서력	기사 내용
1	11	진성왕 5년	891	겨울 10월에 북원의 賊帥 양길이가 그를 보좌하는 궁예를 보내 1백여 기병을 이끌고 북원의 동쪽 부락과 명주 관내의 주천 등 10여 군·현을 습격하였다.
2	11	진성왕 8년	894	겨울 10월에 궁예가 북원으로부터 하슬라로 들어가니 무리가 6백여 명에 이르렀다. 스스로를 장군이라 칭했다.
3	11	진성왕 9년	895	가을 8월에 궁예가 저족·성천 두 군을 공격해 빼앗고 또 한주 관내의 부악·철원 등 10여 군·현을 깨트렸다.
4	12	효공왕 2년	898	가을 7월에 궁예가 패서도 및 한산주 관내의 30여 성을 빼앗고 마침내 송악군에 도읍하였다.
5	12	효공왕 3년	899	겨울 7월에 북원의 賊帥 양길이가 궁예에게 두 마음이 있는 것을 꺼려하여 국원 등 10여 성주와 더불어 그를 공격할 것을 모의하고 비뢰성 아래까지 진군하였으나 양길이의 병력이 무너져 달아났다.
6	12	효공왕 4년	900	겨울 10월에 국원, 청주, 괴양의 賊帥 청길과 신희 등이 성을 들어 궁예에게 투항하였다.
7	12	효공왕 5년	901	궁예가 왕을 일컬었다.
8	12	효공왕 7년	903	궁예가 도움을 옮기고자 하여 철원과 부양에 이르러 산수를 두루 살폈다.
9	12	효공왕 8년	904	궁예가 百官을 두었는데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였다 [제정한 官號의 경우 비록 (백관이) 신라의 제도에서 연유한 것이긴 하나 다른 것도 많았다]. 국호를 마진이라 하고 연호를 무태 원년이라 하였다. 패강도의 10여 주·현이 궁예에게 항복하였다.
10	12	효공왕 9년	905	가을 7월에 궁예가 도움을 철원으로 옮겼다. 8월에 궁예가 병력을 움직여 우리의 변방 고을을 침략해 약탈하고 죽령 동북쪽에 이르렀다. 왕은 영토가 날로 깎여나간다는 것을 듣고는 매우 근심하였으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여 여러 성주에게 삼가 나가 싸우지 말고 벽을 견고히 하여 굳게 지킬 것을 명하였다.
11	12	효공왕 13년	909	여름 6월에 궁예가 장수에게 병선을 이끌고 진도군의 항복을 받고 또 고이도성을 깨트릴 것을 명하였다.
12	12	효공왕 14년	910	견훤이 친히 보병과 기병 3천을 이끌고 나주성을 에워싸고 열흘이 지나도록 포위를 풀지 않았다. 궁예가 수군을 발동시켜 그들을 습격하니 견훤이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였다.
13	12	효공왕 15년	911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고치고 연호를 수덕만세라 하였다.
14	12	신덕왕 3년	914	궁예가 수덕만세를 고쳐 정개 원년이라 하였다.
15	12	경명왕 2년	918	여름 6월에 궁예 아래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 태조를 추대하였다. 궁예는 도망쳐 달아나다 아랫사람에게 살해되었다. 태조가 즉위하여 원년을 일컬었다.

홍창우, 『삼국사기』 후고구려·궁예 관련 ‘정보’의 수용 방식 문제 - 궁예의 가계 및 출생 관련 정보를 매개로 -」에 관한 토론문

박수정(동서대)

발표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에 실린 후고구려 관련 사료를 여러 면으로 탐색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본 발표문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궁예가 신라 왕자 출신이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의 신빙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광염이상’을 홍조로 여겼던 신라 당대의 인식이 『삼국사기』 궁예 출생 서술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 그 근거로 삼고 있다. 궁예 출생과 관련한 사료와 연구사를 꼼꼼히 서술하고, 궁예전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만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후고구려·궁예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 몇 가지 발표자의 보충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아래에 언급한다.

1. 제목과 본문에서 “‘정보’의 수용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제목을 보면 『삼국사기』 찬자들이 궁예의 출생과 관련된 ‘정보’(전거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했는지(혹은 어떤 기록에 더 신빙성을 두고 서술했는지)를 파고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론에서는 『삼국사기』의 후고구려와 궁예 관련 ‘정보’를 수용하는 기존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고, 현재의 연구자들이 『삼국사기』의 궁예 출생 관련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신라왕자설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겠다고 하였다.

‘정보’라는 말에 집중하면, 이는 『삼국사기』 편찬 당시 알려져 있던 궁예 탄생에 대한 여러 이설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삼국사기』에 이미 수록된 궁예의 신라왕자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삼국사기』 궁예전의 출전과 서술방식을 구분해서 따지거나, 『삼국사기』 찬자들이 두 이설 중 왜 현안왕설을 앞세웠는지에 대해 더욱 천착할 것이 아니라면, “‘정보’의 수용 방식”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궁예전에 기록된 신라왕자설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 데 주 목적이 있는 듯하기에 더더욱 굳이 “‘정보’의 수용 방식”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잘 와닿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2. 발표자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궁예의 현안왕자설과 경문왕자설은 본 기록 외에 다른 출처가 없어서 그 사료비판이 불가능하다. 또 『삼국사기』 찬자들이 자신이 인용한 전거자료의 상호 불합치나 착종 여부에 무관심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지만 『삼국사기』에서 궁예의 출생에 대한 두 설의 서술이 약간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분명 현안왕설을 서술할 때는 어머니가 현안왕의 嬪御지만 그 성명을 잃었다고 했고(考第四十七憲安王誼靖 母憲安王嬪御 失其姓名), 경문왕설을 서술할 때는 현안왕설의 뒤에 ‘혹은’으로 덧붙이는 형식으로 쓰면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或云 四十八景文王膺廉之子). 조선시대 『동국통감』 등의 사서에서 현안왕설만 서술하고 경문왕설을 취급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삼국사기』의 서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삼국사기』를 통해 두 설을 숙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는 현안왕설을 버리고 경문왕설만을 언급하였다(홍창우,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인식·‘수용’과 ‘배제’의 논리에 주목하여, 『전북사학』 64, 2022, 73~74쪽). 두 설의 서술 방식이 똑같지 않고, 이미 고려시대에 둘 중 하나만을 내세우는 기록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발표자는 이 두 설에 대해 어느 한쪽을 택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에 『삼국사기』의 궁예 신라왕자설을 받아들인 위에서 두 설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전된 상황에서, 본 발표문의 결론이 두 설을 동일하게 둔 채 다만 ‘『삼국사기』의 궁예 출자 기록은 믿을 수 있다’로 마무리되는 것은 조금 아쉽다. 물론 본 발표문이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은 새로운 구절에 주목하여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결론만을 놓고 보면 별로 새롭지 않은 내용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삼국사기』의 서술 태도나 후대의 취사선택 등을 고려하여, 두 이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있다면 보충해 주길 바란다.

3. 본 발표문에서 살펴본 『삼국사기』의 내부 논리란 결국, 사론에서 궁예를 ‘本新羅王子’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삼국사기』 찬자들은 궁예를 확실히 신라 왕실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궁예전에는 궁예의 통찰력과 후고구려의 군사력을 은연 중 높이 평가하는 듯한 기록이 보이고, 그 출전은 후고구려에서 생산된 독자적 자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홍창우, 2017, 「『삼국사기』 후고구려·궁예 관련 기록의 계통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7, 377~384쪽). 즉 『삼국사기』 궁예전 편찬자들의 태도는 궁예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궁예전 내에는 이러한 인식과 배치되는 듯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궁예 출자 기록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려면, 『삼국사기』 편찬자들의 인식을 살피는 것보다, 궁예전 서술의 여러 층위들을 세세히 살펴 후고구려 자체의 기록이 전제된 곳과 찬자들의 인식이 더 반영된 곳을 구분해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본 발표문에서는 『삼국사기』 이후의 궁예 출자 인식에 주목했지만, 그와 함께 고려 건국 이후 『삼국사기』 편찬 이전의 궁예 출자 인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작설에서 제기하듯 10세기 초 궁예 세력 또는 왕건 세력에 의해 궁예의 출자가 변개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삼국사기』 편찬 때까지 이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조작설의 입장에서는 『삼국사기』의 내부 논리가 어떠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본 발표문에서 새롭게 주목한 사실은 白虹貫日의 서술과 관련된 부분이다. 백홍관일은 상황에 따라 병란·모반이 일어날 조짐이나 하늘이 감응할 조짐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체로 군주가 싫어하는 징조로 여겨져 왔다. 발표자는 무지개의 조짐을 빚낸 신라

말 왕거인의 시와 신라본기의 흰무지개 기록을 근거로 신라 때에도 흰 무지개, 흰 기운이 홍조로 해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당대’ 즉 신라 때의 사유 방식과 ‘후대’ 기록자들의 관념이 공명하여 궁예의 탄생에 대해 光焰異常 기록이 남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홍조의 기운과 함께 탄생했다는 궁예의 기록은 신라 당대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인 듯한데, 그 나름 수긍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 점이 고려 건국 후 궁예 출생설에 가탁,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반박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신라본기뿐 아니라 『고려사』에도 꾸준히 백홍관일 기사가 보이고 발표자 서술대로 고려 인조 대에도 그에 대해 해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었으므로, 백홍관일에 대한 해석은 특정 시기의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니 백홍관일에 대한 수식 역시 어느 때라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